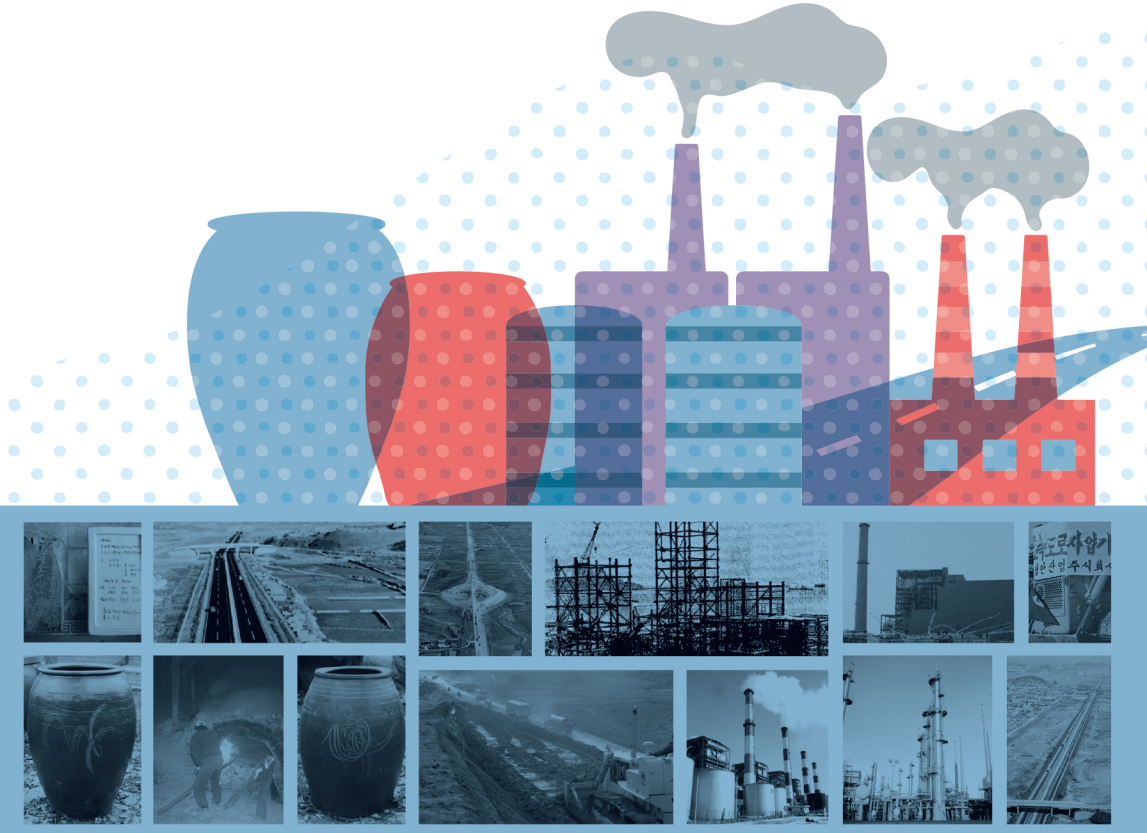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9

인 천 서 구 의 산 업 1

서구산업의 태동과 성장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 천 서 구 의 산 업 1

서구산업의 태동과 성장

발간사



서구문화원에서는 근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서곶의 산업이 발전해온 과정을 되짚어 보며 서곶 산업들의 특징과 변화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3년에 걸쳐 시대별로 서곶 산업의 형성과 발달, 주민들과의 유기적 관계, 지역에 미친 경제 문화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장』입니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서곶의 산업을 조명하는 작업입니다. 이 책에서는 서곶옹기산업을 서곶의 특별한 산업으로 여겨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와 율도 화력발전소의 시작을 점검하여, 초기 서곶 산업의 태동 과정을 담았습니다.

서곶 경서동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녹청자가 생산되었던 지역입니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그릇인 녹청자는 그 시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토기에서 유약을 사용한 녹청자로의 변화는, 그릇을 생활용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첨단의 신 발명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절 유행을 선도했던 산업이 이곳 서곶 경서동 지역에서 다시 번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용기의 생산전통과 맥이 끊어지지 않고 몇 백 년 후 서곶에서 옹기산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190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약 100여년을 이어져 온 서곶

의 옹기산업은 근현대 수도권 옹기 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키며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옹기도 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생활용기의 출현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서곶옹기는 이제 100여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서곶에서 옹기를 생산하였던 기술자들이나 옹기공장을 운영했던 사주들이 옹기와 함께한 애환은 남다를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서곶의 옹기산업은 이러한 면에서 일제강점기 후반과 6.25의 극심한 빈곤을 견딜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면에서도 기억해야 할 서곶의 향토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부터 옹기산업에 종사했던 분들을 찾아다니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분들의 구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서곶 옹기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른 옹기 생산지역들은 '옹기박물관'이나 '옹기축제'를 이어가면서 지역의 옹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곶에도 "서곶옹기 박물관"을 만들어 서곶 옹기의 역사와 지역의 생활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옹기축제를 개최할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녹청자에서 옹기로 이어져온 서곶의 흙의 산업이 먼 훗날 다시 태동하여 서곶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군섭**

목 차

프롤로그 07

Ⅰ. 최후의 증인, 공촌천

1. 쥐불놀이와 석전_18
2. 신화의 밑바탕에는 진실이 있다_22
3. 천문항해술의 발전과 장수왕의 남하정책_27
4. 고현성과 고산성(계양산성)_30
5. 고려 충렬왕의 매사냥_36
6. 운요호 사건과 연희진_38
7. 부평부사 박희방의 도전과 응전_41
8. 일제강점기_46
9. 해방공간과 농지개혁_47
10. 6·25 전쟁의 발발_48
11. 전후 산업화의 태동_52

Ⅱ. 서곶 옹기의 고찰

1. 옹기, 지역에 따른 형태와 민속적 의미_58
2. 옹기, 집단촌 형성과 광명단 사건_61
3. 서곶 옹기점의 유래와 오늘_63
4. 서곶 옹기점과 입지조건_64
5. 옹기점의 구성_67
6. 옹기의 원료_68
7. 성형방법의 종류와 서곶옹기의 성형과정_69
8. 성형도구_73
9. 건조와 유약 및 시유_76
10. 서곶 옹기의 문양_77
11. 가마와 고사의 의미_88
12. 가마재임 및 소성_89
13. 자리와 판매_92
14. 제언 : 옹기박물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_93

Ⅲ. 서곶 옹기의 어제와 오늘
1. 태동과 형성_96
2. 성장과 쇠퇴_104
3. 서곶의 옹기공장들_106
4. 서곶의 옹기장인들_137
5. 서곶옹기의 맥을 이어가는 옹기 가문_140
6. 서곶 옹기장이들의 삶과 애환_149

Ⅳ.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첫 삽을 뜨다 경인고속도로
1. 고속도로 시대의 태동_158
2.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의 건설_171
3. 경인고속도로의 성장과 변화_188

Ⅴ. 밤섬의 발전소 수도권의 불을 밝히다 율도화력발전소
1. 율도화력발전소 설립 이전의 전력사업_197
2. 인천화력발전소_200
3. 경인에너지주식회사_207
4. 결어_228

에필로그 231

프롤로그

정군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서곶 옹기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유년시절 옹기공장의 추억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 중후반 경서동에는 항아리를 만드는 옹기공장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야트막한 산비탈을 따라 자리 잡은 옹기 굽던 마을을 점말이라고 했다. 어린 눈에는 옹기가마가 무척 커다랗게 느껴졌다. 생뚱맞고 감당이 안 되는 옹기가마는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옹기가 구워져 나오는 것은 늘 봐도 신기하기만 했다.

등굣길에 옹기공장에서 놀다 지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선생님께 꾸중 듣는 것은 다반사였다. 꾸중을 들어도 아이들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늘 옹기공장을 들렀다 등교했다. 그리고 옹기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옹기공장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옹기공장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신이 나서 이야기하곤 했다. 하굣길에는 옹기공장에서 놀다 집에 늦게 와 아버지에게 혼난 적도 있다. 그때 아이들은 농사일과 집안일에 일손을 보태야 했던 시절이다. 물을 길어다 놓아야 했고, 소 먹일 풀을 베어다 놓아야 했다. 점말에 들르지 말고 일찍 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늘 귓전 밖이었다.

날씨가 쌀쌀한 날은 등하굣길에 옹기가마에서 몸을 녹이고 갔다. 가마에서 옹기가 구워지면 주변이 훈훈했다. 옹기가마에 불이 높게 오를 때면 신작로까지 열기가 뿜어져 왔다. 옹기를 꺼낸 가마는 며칠이 지나도 열기가 후끈후끈 남아 있었다. 숯가마에서 숯을 꺼내고 나면 후끈후끈한 열기가 남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 꼬맹이들은 그곳에 들어가 몸을 녹이고 장난치며 놀다 집으로 갔다. 가마 검댕이가 옷에 묻기도 하였지만 꼬맹이들은 그냥 신나고 좋았다.

옹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옹기공장 주변에서 살았다. 공장 주인이 마련해준 조그만 집에서 살며 옹기 일만 했다. 물레를 돌리며 항아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다. 어떻게 발을 돌리며 손으로는 항아리를 만들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된다. 옹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옹기일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옹기공장에서 일하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옹기공장이나 옹기가마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타이르듯이 부드럽게 대해 주었다. 뜨거운 가마 쪽으로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고 더 이상은 가지 말라하고, 항아리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까이 가면 항아리 깨지면 안 된다고 조금 물러나라고 했다. 소리 지르거나 혼내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 토박이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에게 욕을 한다든지 하면 토박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게 된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처세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옹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토박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학교에서 공작 수업이 있는 날은 옹기가마에 들러 쓰다 남은 찰흙을 가지고 갔다. 공작 시간에 찰흙을 주물럭거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움푹 파인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옹기가마를 자주 드나들며 항아리 만드는 모습을 보아서 그랬던 것 같다. 짝꿍은 공작 시간에 자동차나 탱크를 많이 만들었다. 그 친구는 옹기가마와 멀리 떨어진 동네에 살았다.

공작 수업이 없는 날에도 자주 옹기공장의 찰흙을 가지고 다니며 주물럭거렸다. 특별한 장난감이 없던 시절 옹기공장의 찰흙은 훌륭한

장난감이었다. 찰흙의 질감은 참 좋았다.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인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 느낌이 좋아서 찰흙을 한번 주무르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주물럭거렸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수없이 모양을 바꾸며 새로워지는 것이 자꾸만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렇게 찰흙을 주물거리다 알게 모르게 생각이 깊어지고 조금씩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든다. 유년시절 한 시기를 옹기공장에서 놀고 찰흙을 주무르고 지낸 것이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깊고 넓게 만들지는 않았나 생각해 본다.

옹기공장에는 우리 또래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옹기공장에 온 아이들이다. 옹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여러 명 있었다. 그들도 우리가 다니던 서곶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그들도 서곶 토박이 아이들 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옹기공장 아이들끼리만 모여 등하교를 했다. 옹기공장 아이들은 토박이 아이들 보다 앞서 뛰어가거나 뒤처져 거리를 두고 걸어왔다. 학교에서도 옹기공장아이들은 그들끼리만 어울렸다. 그리고 하교 시간이 되면 또 자기들끼리만 모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아마도 옹기장이들이 옹기공장을 수시로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현상이 아니었을까 한다. 옹기공장을 옮길 때마다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하였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힘든 과정에서 생긴 습관이었을 것이다. 자유분방하고 천진난만하게 자라야 할 시기에 낯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눈치를 봐야하고 공연히 기가 죽는 일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아마도 그들은 정을 주고받는 과정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서로를 잘 아는 친구들과만 어울리든지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마음 편

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옹기공장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유일한 공간이자 놀이터였다. 밖으로 나오는 일은 드물었고 옹기공장 안에서 옹기공장 친구들끼리 놀았다. 옹기공장 마당에서 불량품으로 버려진 옹기 조각을 갈고 다듬어 땅따먹기 놀이를 하고, 비석치기도 하며 놀았다. 구슬치기도 딱지치기도 모두 옹기공장에서 했다.

옹기공장에서 일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로 자기들끼리만 지냈다. 당시에는 가을일이 끝나면 동 대항 체육대회를 했다. 체육대회가 결정되면 경기에 맞게 선수를 선발하고 체육대회 때 쓸 응원도구를 만들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며 축제 분위기였다. 자신이 사는 동의 명예를 걸고 젊은 사람들은 경기마다 일등을 하려고 혼신을 다했다. 릴레이 경주가 시작 되면 목청이 터지도록 응원을 했고, 북과 꽹과리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이 서로 일등을 하려고 소란 벅적했다.

그런데 이곳에 존재하지도 않는 동이 또 하나 참가를 했다. 그 동은 '중앙동'이다. '중앙동'은 옹기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6.25 때 수용소에 있다 정착한 사람들이 출전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경서동, 연희동, 검암동, 공촌동 중앙에 옹기공장과 수용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체육대회에 참가하려면 이 지역 사람들은 각 동으로 분산되어 출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개 동의 중앙에 있다고 자신들은 '중앙동' 이라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 출전했다. 그때 그들이 붙인 이름이 '중앙동'이다. 그들도 해마다 출전하여 함께 어울렸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했던 모양이다. 그들의 '중앙동'은 지금도 남아있다. 서인천 농협에 '중앙동 영농회'가 바로 그것이다.

힘겹고 고달픈 자수성가의 길

초기 옹기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옹기는 옹기점에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팔기도 하고, 도붓장수들이 지고 다니며 팔기고 하였으며 옹기전(甕器廛)에 위탁하여 팔기도 하였다. 또한 종업원의 가족들도 현물 노임으로 받은 옹기를 부녀자들이 이고 다니며 팔았다.

서곶의 옹기공장들도 사주와 옹기기술자, 데모도(거나꾼과 질꾼)가 생산된 옹기를 일정비율로 나누었던 적이 있었다. 사주가 6, 옹기기술자가 3, 데모도가 1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옹기가 구워져 나오면 10줄로 옹기를 진열하고 6줄은 사주가 3줄은 옹기기술자가 1줄은 데모도가 가져갔다. 그때 옹기기술자들에게 주어진 옹기는 부인들이 아이를 등에 업고 옹기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팔기도 했다.

서곶은 주로 논농사를 짓던 지역이었다.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을 추수가 끝나야 현금을 만져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이들 교육과 생활필수품 등 수시로 돈 쓸 일이 많아졌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열무나 호박, 오이 등을 송림동 현대시장에 내다 팔아 근근이 생활을 이어 갔다. 1958년 인천교가 개통되면서 서곶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이다. 당시 동인천 쪽에서 검단 방향으로 오가는 버스가 서곶을 거쳐 갔다. 아침에 아이들을 싣고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부지런한 서곶 사람들이 온갖 채소를 보따리 보따리 꾸려 버스 정류장으로 몰려든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채소 보따리를 싣는 전쟁이 벌어진다. 차장은 그만 실으라 하고 채소 보따리 주인은 하나라도 더 실으려 하고 온갖 진풍경이 벌어진다. 백석동, 시천동을 지나 검암동, 연희동을 지난 버스는 채소 보따리와 사람으로 가득 차 싱아고개를 휘청휘청 거리며 넘었다.

그 당시 서곶의 옹기공장들도 어려운 고비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었다. 무일푼으로 옹기공장을 시작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옹기공장을 운영했다. 당장 가진 돈이 없어 사정사정해서 외상으로 쌀과 연탄 식료품 등을 마련해 공장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했다.

당시 우리 집은 농사도 지었지만 아버지가 검암동에서 '검암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초창기 옹기공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정미소에서 외상으로 쌀을 많이 가져갔다. 외상으로 가져간 쌀값은 옹기가 팔려야 받았는데 심지어는 1년 후에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들이 근근이 연명만 하며 살던 시절이었다. 나는 가끔 아버지 심부름으로 옹기공장에 쌀을 실어다 주었다. 공장에 직공들이 많아 비교적 대량으로 쌀이 들어갔다. 옹기공장은 늘 바쁘게 돌아갔다.

힘겨운 시절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은 감동적이다. 고향을 떠나 서곶에서 옹기를 굽기 시작한 사람들은 송림동 현대시장 노점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가던 서곶의 서민들보다 더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힘겹고 고달픈 그야말로 '흙수저'의 삶을 살았다.

생산된 옹기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주로 옹기전에 납품하거나 위탁판매를 하였다. 옹기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할 때는 유리한 판매방식이 되었고, 옹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어 남아 돌 때는 불리한 판매방식이 되었다. 시장의 논리다. 시장은 농업보다 한 단계 위 경제 활동이다.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위험성도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옹기가 팔리지 않아 옹기가 공장에 쌓이기 시작하면 옹기공장 사주들은 피가 마른다.

옹기전에 납품한 옹기 대금은 직접 옹기전을 찾아가 수금을 했다. 신일토기 수금은 주로 사주인 최기영의 부인이 많이 다녔다고 한다. 부인 강수자의 말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옹기점

을 비롯, 그밖에 몇 군데가 더 있었다고 한다. 새벽부터 서둘러야 점심때쯤 서울에 도착했고, 장부를 보고 가져간 옹기와 옹기 값을 계산하고 수금을 했다고 한다. 당시 여자의 몸으로 수금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자들은 공장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수금을 다녔지만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살기 위해 겁도 없이 덤벼 들었다니, 우리 부모나 형님 누님 세대의 악전고투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수금을 하고 서둘러 인천으로 돌아오면 벌써 어둑어둑 어두워졌다. 가정동을 지나 싱아고개에 오면 깜깜한 싱아고개를 무서워서 넘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들었고 그러면 서로 의지해서 싱아고개를 넘어 경서동까지 왔다. 어느 때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자전거를 얻어 타고 오기도 했다고 한다. 수금 이야기를 하며 싱아고개 넘어 오던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들려주셨다.

자수성가(自手成家)라는 말이 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은다는 말이다. 서곶 옹기공장 사주들은 자수성가 한 사람들이다. 오직 옹기 기술과 열정, 성실함만으로 힘들어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한 사람들이다. 고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알게 모르게 설움을 받으면서도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았다. 일제강점기와 6.25로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고향을 생각할 틈도 없이 옹기를 만들고 판매하며 한 세기를 살았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나라가 미국이다. 그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적 부강함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구성원은 대부분 이민

자들이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초기 이민자들의 모국이고, 이어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합중국이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자수성가 한 사람들이 특별히 대접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롤 모델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아마도 그러한 배경에는 가진 것 없이 아는 사람도 없는 타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에 대한 인정과 존경심이 깔려 있을 터이다. 그들은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연명하고 해진 옷을 입었으며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일,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오직 목표를 향해 참고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그러한 모습은 비슷한 처지에서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롤 모델이 되었다. 그렇게 자수성가한 그들은 더 이상 낯선 나라의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주인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후손들이 그 정신으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 활기차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

서곶에서 옹기산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처럼 살았다. 아는 사람 없는 타관에서 혹시라도 토박이들 눈에 날까봐 큰소리 내는 일이 없었고, 옹기 만드는 천한 일을 한다고 무시를 당해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일이 없는 겨울에는 먹을 것도 떨어져 어렵게 토박이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겨울을 났다. 그 겨울을 꿋꿋이 버티고 생명이 용솟음치는 봄을 맞이했다. 이제 그들에게 서곶은 낯선 타향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향토산업을 일으킨 서곶의 주인으로 기억 될 것이다.

이번 향토지 발간이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던 옹기산업과 지역 토박이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새로운 서구민 간의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자료 수집과 취재를 위해 몇 차례씩 찾아뵈었을 때마다 환대해주며 소중히 간직한 지난날의 애환을 스스럼없이 말씀해주신 최기영님, 조경제님, 안창만님, 손원모님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서구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 서구 향토사에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다변하는 우리 고장의 역사성과 정체성 보존에 근거가 되는 서구 향토사 연구를 위해 쉬지 않고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I

최후의 증인, 공촌천

(ULTIMATE WITNESS)

1 쥐불놀이와 석전
2 신화의 밑바탕에는 진실이 있다
3 천문항해술의 발전과 장수왕의 남하정책
4 고현성과 고산성(계양산성)
5 고려 충렬왕의 매사냥
6 운요호 사건과 연희진
7 부평부사 박희방의 도전과 응전
8 일제강점기
9 해방공간과 농지개혁
10 6·25 전쟁의 발발
11 전후 산업화의 태동

김영덕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문학평론가)

Ⅰ. 최후의 증인, 공촌천

1. 쥐불놀이와 석전

정월대보름 전야 고현리(古縣里)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깡통을 행랑채 헛간에서 꺼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못으로 옆면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철사로 양쪽에 끈을 맨 폐깡통이었다. 겨울철 농촌에서는 짧은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기 전에 이른 저녁을 먹었다. 부엌에서 장작불로 무쇠솥에 지은 밥을 맑은장국과 김치 같은 반찬들과 함께 큰 밥상에 올려 안방에 들여다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어른들은 아궁이 속에 아직도 시뻘겋게 남아 있던 잉걸불과 미처 타지 않은 숯을 골라 화롯불을 담아 안방과 사랑방에 들여다 놓았다. 질화로나 놋화로에 수북하게 담긴 겨울철 화롯불은 새벽녘까지 조금씩 타들어가면서 스스로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방안에 훈기를 제공했다. 아랫목만 뜨겁고 웃풍이 센 온돌방 구들의 단점을 보완해 준 셈이다. 실내 공기를 덥히는 서양의 벽난로 비슷한 기능을 했다.

화롯불을 알뜰하게 담고도 잔불이 남아 있는 부엌 아궁이 속을 아이들은 부지깽이로 뒤져 반쯤 탄 삭정이들과 미처 타지 못한 숯들을 골라 깡통에 담았다. 마당에 나가 잘 마른 장작개비들을 더 채워 넣고 줄을 돌려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 깡통에 불이 붙었다. 불이 잘 안 붙을 때는 불쏘시개로 관솔가지나 말라붙은 쇠똥을 사용하기도 했다.

불씨가 살아있는 깡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을 고샅길을 지나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공촌천 상류, 과수원 옆 빈 밭에 모인 마을 아이들의 숫자는 얼추 스무 명이 넘었다. 아이들은 행여 불이 꺼

질세라 각자 자기 깡통 속을 들여다보고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깡통을 돌렸다. 겨울 텃새들만 이리저리 떼지어 화르르 날아다닐 뿐, 땅거미가 져 어두워져 가는 겨울 지평선에 풍물패 상모돌리기처럼 둥그런 원을 그리며 경쾌하게 돌아가는 수많은 불덩이들은 마치 신화 속의 한 장면인 듯 신비스럽고 아름다웠다. 깡통을 돌리느라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쥐불놀이는 시골 아이들에게 연중 가장 큰 축제이자, 공인된 해방구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깡통에 붙은 불로 들판의 논두렁과 밭두렁을 뒤덮은 바짝 마른 풀에 여기저기 불을 놓기 시작했다. 쥐불이다. 누런 잔디가 타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군데군데 약쑥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여름철 모깃불 피우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저 멀리 바닷가 쪽으로 넘말과 샛말(연희동), 벌판에서도 듬성듬성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쥐불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계양산 위로 열 나흗날 대보름달(full moon)이 휘영청 떠오르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인근 마을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깡통을 돌리고 있던 조무래기들을 흡수, 병합해 가며 공촌천을 따라 하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저마다 불붙은 깡통을 돌리며 논둑길을 따라 한 줄로 걷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그 옛날 전설 속에서 툭 튀어나온 듯 차라리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마침내 그 긴 행렬이 목적지인 빈정교(濱汀橋) 남단 근처 방죽에 도착했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 몸이 여물어 돌팔매 싸움을 제법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변성기 직전의 소년들만 백 명이 넘었다. 그 나이 또래가 전통놀이 참가자로 묵시적으로 허용되던 아이들의 연령 상한선이었다. 행렬이 이동하는 중에 샛말과 연일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한 아이들도 많았다.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아이들은 둑방 근처 곳곳에 쥐불을 놓고 그 앞에서

분주하게 서성이며 시끄럽게 소란을 떨어 병력의 규모를 과장하기도 했다.

이윽고 빈정내 건너 북쪽 제방에도 일렁이는 불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적군(?) 병력들이 집결하고 서둘러 전열을 정비하는 듯했다. 공촌천 일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상대는 대부분 괴기벌(過騎平)[1] 아이들이었고 검바위, 간재울 마을 아이들도 원군으로 참전했다는 얘기가 풍문으로 들렸다. 적군도 아군의 규모나 전투의지를 살피고 작전을 짜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전선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공촌천 중하류 빈정천

1) 한자로 과기평은 기병들이 말을 달려 지나는 벌판이라는 의미다. 괴기벌은 과기벌의 음운 변화로 보인다. 연희진이 설치될 무렵, 공촌천 갯골 건너편에 계우정(桂虞停)이라는 군사기지도 설치되었는데, 그 기지를 오가는 기병들이 말을 타고 질주하는 곳이라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현재 '빈정공원' 자리다.

그 때 방죽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아이들은 실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냇가에서 저마다 손으로 잡고 멀리 던지기 맞춤한 납작한 돌멩이를 주워서 발밑에 쌓아 놓는 것이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듬성듬성 서 있는 낟가리, 짚가리들만 겨울 들판을 한달음에 달려온 황소바람에 들썩일 뿐 사위는 교교하고 적막했다.

전투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자 아군의 리더들이 상대편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도발(provocation)을 하기 시작했다. 그쪽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조롱 섞인 야유와 욕설이 들려왔다. 이렇게 서로 욕지거리를 주고받으며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전의를 불태운 양측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돌을 집어 가장자리만 얼어붙은 냇물 건너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이내 발밑에서 돌 떨어지는 소리가 투덕투덕 들렸다. 돌팔매싸움은 보통 십여분간 지속되었다.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방한모를 썼지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아이들도 생겼다. 다년간의 전투(?) 경험으로 노련해진 아이들은 자신을 상대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불 근처에서 벗어나 상대편에게 가까운 어둠 속으로 잠입하여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다. 저격수(sniper)처럼 매우 위협적이었다.

싸움은 결국 역부족으로 전열이 무너진 쪽이 일패도지하여 도망을 가고, 냇물을 건너 뒤쫓는 쪽이 상대편 진영의 들판 짚가리 하나를 불태우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 옛날 전투에서 이긴 쪽이 적군의 근거지인 요새와 성채를 함락시키고 초토화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공촌천변의 투석전 풍습은 70년대 후반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고 TV가 빠르게 보급되어 아이들이 저녁때 나가서 놀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기 시작하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2. 신화의 밑바탕에는 진실이 있다

'모든 신화와 전설의 밑바탕에는 진실이 있다.' 헐리웃 영화 〈툼레이더〉 (2018)의 한 대목이다. 근거 없이 허구로만 만들어진 전설이나 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대국가로 성장해 나가던 4-5세기 한반도 삼국시대는 전쟁이 일상화되었던 시기였다. 그 중에서도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와 백제는 거의 매일 싸웠다. 그러나 부족국가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 도성이 아닌 지방 군현에는 그 어느 나라도 상비군을 유지할 정도로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거나 재정 형편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2)]

기간편성(cadre organization)만 유지하고 있다가 전투가 임박하면 예비군을 긴급 소집하여 전선에 투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투병력은 평소 농사일이나 목축, 해산물 채취 등 생업에 종사했다. 백제와 고구려가 쟁패전을 벌이던 이곳 한강하류 지역은 겹겹이 쌓인 역사의 흔적들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다.

4세기 중후반 비옥한 한강하류지역인 김포반도와 인천 서구 일대를 놓고 다투었던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늘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았다. 두 나라는 강과 바다, 육지에서 다투었다. 일반 백성들까지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다.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

---

2) 전 세계 인구는 17세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대륙에서 건너온 감자와 옥수구 덕분이었다. 천년 넘게 2억에 머물던 전 세계 인구는 1650년 약 5억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조선왕조『호구총수』에 따르면 1672년(현종 13) 조선의 인구는 4백65만 명이었으며 1810년 (순조 10) 에는 7백58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조선 중기의 실제 인구는 천만 명, 20세기 초의 실제 인구는 1천3백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1850년 세계 인구는 10억 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식량난이 올 것이라는 영국 경제학자 토마스 맬더스(1766-1834)의 어두운 예측도 그 당시에 나왔다. 조선 후기 인구의 증가에 따라 농토 확보를 위한 남벌이 빈번히 일어나 자연이 훼손되었다.

다. 왕실에서도 부왕(父王)을 상대에게 잃었으니 서로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였다. 한성백제시대 후반의 민낯이다.

사실 7백 년 가까운 백제 역사 가운데 5백 년의 역사가 한성백제시대에 이루어졌다. 당시 황해도 이북과 강화도까지는 고구려 영토였고, 김포반도 이남은 대체로 백제 땅이었다. 오늘날 인천 서구는 백제는 물론, 고구려에게도 최전선이었다. 강화도 전등사는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에 세워졌다. 소수림왕은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 근초고왕에게 잡혀 원통하게 죽은 고국원왕의 아들이다. 소수림왕 사후 동생인 고국양왕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의 아들이 광개토왕이고 손자가 장수왕이다. 바야흐로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였다.

백제라면 이를 갈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소수림왕은 줄곧 백제와 충돌하였다. 375년에는 백제의 수곡성(水谷城)을 빼앗았으며, 376년 음력 11월에는 백제의 3만 대군을 물리치고 오히려 백제의 북변(北邊)을 역습하였다. 사서에 등장하는 수곡성이나 북변, 관모성 등을 오늘날의 위치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모두 인천 서북부와 경기도 서부 지역에 있었던 요새와 성채로 추정된다. 377년에는 백제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왕이 다시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으로 재차 침공해 왔지만 소수림왕은 이를 막아내었고, 11월에 이를 보복하기 위해 남으로 백제를 정벌하였다.[3)]

인류사는 스토리텔링의 역사다. 천오백여 년 전 이곳 공촌천(빈정내) 포구와 가칭 고현성, 고산성(계양산성)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3) 위키백과 소수림왕편 참조

뺏고 뺏기며 격전을 벌이던 전투장면은 이후 고현리 아이들과 과기평, 검바위와 간재울 아이들의 정월대보름 돌팔매 싸움이라는 형태로 매년 재현되었다. 70년대까지도 바닷물이 고잔 큰 갯골을 통해 공촌천을 거슬러 오늘날 빈정교(濱汀橋)[4]까지 들어왔다. 해수면이 높았던 옛날 밀물 때는 배 밑창이 평평한 선박들이 오늘날 계양산 기슭 공촌정수장 인근까지 들어와 다음 썰물 때까지 정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고현 포구는 당시 백제의 읍치였던 고현성 성채의 북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고잔(경서동) 해안에서 갯골수로로 이어져 평저선이 드나들었던 포구로 오늘날 북성포구처럼 밀물 때는 선상파시도 열렸다. 주막이 있었으며 저잣거리도 형성되었고 각종 해산물과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 기능도 했을 것이다. 서울의 사대문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듯이, 성읍 외곽지역에도 민가들이 적지 않았다. 고현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은 세월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고현리 토박이들은 특정 지역의 논밭으로 일하러 갈 때는 '성내'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곳에서 밭을 갈거나 논에서 써레질이나 쟁기질할 때는 깨진 기왓장과 사발, 토기 파편과 같은 옛 생활용품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현재진행형이다.

백제의 고성은 '수이홀'의 성채로 비정(比定)된다. '홀'은 고을을 뜻하는데, 백제의 지명에서 두드러진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추홀이다. 미추홀은 인천의 남부 문학산 인근

---

4) 빈정(濱汀)은 물가라는 뜻이다. 공촌천 중하류는 빈정천 또는 빈정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도 불렸다. 빈정교는 그 중 구서곶로 괴기벌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 위에 놓인 다리이다. 옛날 이곳은 포구였다고 전해진다. 빈정교로부터 남쪽으로 250미터 지점에 지금도'빈정내사거리'가 남아 있다. 수많은 차량의 물결 속에서도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고 있다

에 자리를 잡았던 백제의 큰 군현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오늘날 서구지역을 포함, 고대 부평과 김포 지역에 지방행정구역으로 주부토군을 설치하여 수이홀, 검포현, 동자홀현 및 평회압현 등 4개 속현을 관할했다. 이들 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시기는 475년(장수왕 63)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일대를 차지하였던 때로부터 551년 웅진백제의 성왕 대에 다시 백제로 탈환되었던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인다. 주부토군의 4개 속현 가운데 오늘날 서구 검단과 김포시로 명칭이 바뀐 '검포현'을 제외하고 그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나머지 3개 현 중에서 오늘날 공촌동에 위치했던 고현은 백제의 군현 명칭과 패턴이 비슷한 '수이홀'일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 서구 공촌동이 포함된 이곳 북서곶 지역은 과거 조선시대에는 부평부 모월곶면이었다. 모월곶(毛月串)이라는 몽환적이고 비의적인 지명은 이곳의 지형이 신생대 제4기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면서 리아스식 해안을 가져 마치 '터럭이 많은 반달'처럼 물의 드나듦이 복잡한 모양을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다. 대부분 지형이 반도였다. 속된 말로 이곳은 물 반 땅 반이었다. 물의 고장이라고 해서 '수곶(水串)'이라고 불렸다는 기록도 있다. 요즘의 골프장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가늘고 길게 뻗어나간 페어웨이(Fairway)와 그린(green)을 육지, 그 사이의 러프(rough)나 워터 해저드(water hazard)를 바다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도성인 한성과 함께 이 지역 전체가 475년 고구려에 함락되고 개로왕이 전사하자 백제는 그 해 웅진으로 천도(문주왕 1)했다.



공산성과 금강

통일신라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의 동해 대왕암과 감은사지는 바닷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삼국유사』는 감은사의 금당 아래를 깎아 동해로 구멍을 내어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금당 아래를 파서 동해와 직접 연결했다는 것이다. 지금 감은사 삼층석탑은 해변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문무왕릉은 저 멀리 동해바다에 있고 감은사 삼층석탑 앞을 흐르는 하천인 대종천도 감은사지로부터 3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삼국유사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러나 지금보다 기후가 온화했던 당시에는 해수면이 높아 대종천은 물론, 경주시 양북면 대본리와 구길리 사이의 지대가 낮은 용당리 일대는 모두 바다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감은사는 과거 바닷가에 세워졌다는 뜻이다. 8세기경의 일이다.

3. 천문항해술의 발전과 장수왕의 남하정책

427년 만주 전역과 요동반도, 한반도 중북부를 지배하고 있던 고구려의 장수왕은 평양으로의 천도를 단행했다. 당시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 있었다. 이른바 남북조시대였다. 장수왕 시대 남조에는 송나라, 북조에는 북위가 완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북위의 지배층은 선비족이었고 피지배층은 한족이었다. 장수왕은 북조의 북위와 후연, 남조의 송과 친교하며 외교 다변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당시 북중국의 호전적인 왕조들을 호령하며 좌지우지하던 강대국 고구려의 장수왕이 굳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장수왕의 평양 천도를 촉발(trigger)했던 것일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장 큰 계기였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천문항법의 보급이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종전에는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연안을 따라 항해하며 육지의 지형 또는 물표와의 관계위치로 배의 위치나 방위, 거리를 구하는 항법을 이용한 지문항해(地文航海)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우마차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육상의 도로사정이 열악했던 옛날에는 한반도 내에서도 화물의 원거리 수송은 물론, 사람의 이동도 대부분 연안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을 이용했다. 신라나 가야를 세운 사람들도 북방에서 육상 루트를 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연안항로를 따라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과의 교류도 주로 연안 항해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반도에서 중국 남부에 가려면 걷거나 말을 타고 북행을 재촉하여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 요서지역을 지나 화북지방을 통과하는 육상 루트를 이용하거나, 해안을 따라 연안항해로 갔다. 대동강과 압록강 하류를 통과하여 발해만까지 북상, 육지의 지형지물을 보고 항해

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동반도와 화북지방을 지난 후에도 다시 산동반도를 끼고 돌아야 했다. 문제는 북중국에 고구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세력이 버티고 있으면 육상과 해상 루트 모두 활용이 어려워진다는 데 있었다.

그런데 천체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배의 위치와 방위 등을 알아내는 천문항해(天文航海)가 가능해졌다. 나침반의 전신인 윤도판(輪圖板)[5]의 활용과 보급이 결정적이었다. 아무튼 장수왕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블루오션이 드넓게 펼쳐진 것이다. 기회의 창이 새롭게 열렸으니 눈이 번쩍 띄었을 것이다. 황해를 가로질러 항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국대륙 북조의 수역을 거치지 않고도 남조의 송나라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바다 건너 왜와의 직접적인 교류도 가능해졌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었다.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북중국에는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 등 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장수왕은 근공원교(近功遠交) 정책을 써서 국경을 맞댄 중국 북조는 견제하고 남조(송, 제, 양, 진)와의 교류는 진작시켰다. 송의 요청에 따라 장수왕이 평양성에서 대동강 해상운송을 통해 말 8백 필을 보냈다는 기록도 있다. 말 8백 필을 바다 건너 중국 남부로 보내려면 배 수십 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선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듯 고구려 장수왕은 한강을 통한 중국 남조와의 교역과 교류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전통 지리는 자좌오향(子坐午向)이다. 정북 방향에 앉아서 장남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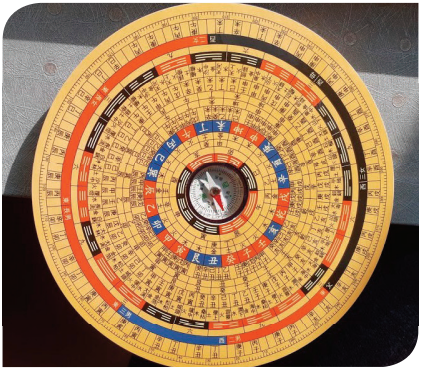
---

5) 윤도판 또는 지남판은 집터나 묘지를 잡을 때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다. 중국 한나라때부터 사용되었다. 지관이나 지사들이 묘지나 택지 선정 등 지질과 길흉을 판단할 때 필수적으로 지니고 다니던 도구이다. 차츰 항해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 옛날에도 고구려 장수왕은 경직된 대륙적 사고에 갇히지 않았다. 발상을 바꾼 장수왕의 눈에 북중국과 만주, 요동반도가 레드 오션이라면 한반도 중남부, 그 중에서도 인천 앞바다인 경기만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었을 것이다.

결국 해상교통을 통한 중국 남조와의 문화교류와 국제무역을 통하여 장수왕의 고구려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중국 남조의 장례문화도 이 시기에 한반도로 들어왔다. 북중국의 강대국들을 포위하는 효과를 통하여 동북아지역 전체의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당시 장수왕이 볼 때 한반도에서 중국의 양자강 유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송나라에 접근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은 대동강 근처가 아니라, 한강유역이었다.

한강하류지역인 이곳에서 벌어진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다툼은 천문항법의 발전으로 촉발된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백제의 입장에서 새로운 항해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이 현장에서 시시각각 적용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은 악몽이었을 것이다. 고구려 장수왕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준 천금같은 천문항법이 백제에게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 버린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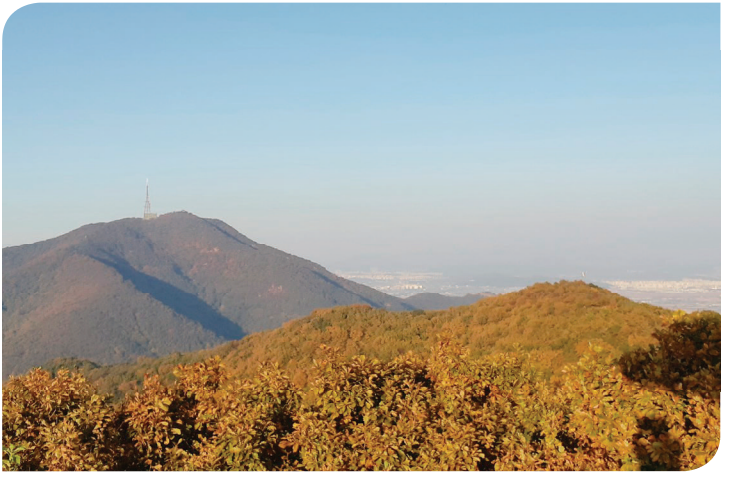


윤도판, 나경

4. 고현성과 고산성(계양산성)

새롭게 단장한 고산성과 최근 개관한 계양산성 박물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세월의 빗장 너머 망각의 늪에 깊이 잠겨있던 이 지역의 향토 역사를 다시 복원하고 귀한 자료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전시한 계양구의 노력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5월 문화재청은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로 지정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고산성, 이른바 계양산성이 오늘날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치 계양구의, 계양구만의 사적(史蹟)인 것처럼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나 협업(collaboration)도 생략하고 서둘러 배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고산성(계양산성)은 서구 공촌동의 고현성(가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천마산 정상에서 보이는 계양산과 고산성

계양구만의 시각으로 고산성에 접근한다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다르지 않다. 주지하듯이, 계양산은 철마산과 더불어 계양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에 걸쳐 있는 지리산이 이 중 어느 한 지자체만의 산이 아니듯, 유럽 8개국에 걸쳐 있는 알프스산맥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특정 국가만의 산이 아니듯, 계양산도 계양구만의 산이 아니다. 물론, 고산성(계양산성)도 계양구만의 산성이 아니다.

서구는 '계양산을 진산으로 안고 그 옛날 주부토에서부터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 부평으로 변천'해 오는 동안 줄곧 계양구와 한 몸이었다. 사실 부평부사 박희방이 계양산 경명현(징매이고개)에 중심성을 쌓고 그 관문인 공해루에 써서 걸었던 편액『부평팔경』[6]은 물론, 검바위 출신으로 개항기에 관립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교육자이자 문필가 정지석의『계양팔경』[7]에 소개된 절경 중에서 절반 이상이

---

6) 부평팔경

桂陽孤鐘(계양고종) 계양산 공해루에 걸린 외로운 종
蘭浦歸帆(난포귀범) 난지포구로 돌아오는 석양 돛단배
大橋漁火(대교어화) 한다리(박촌교)에서 고기잡이하는 불빛
景明落照(경명낙조) 경명현으로 지는 노을
溫洞瀑布(온동폭포) 온수동의 폭포
古城牧笛(고성목적) 고산성의 목동 피리 소리
遠積暮雨(원적모우) 원적산에 내리는 저녁 비
西川院沙(서천원사) 서곶 냇가(공촌천)에 쌓인 모래

7) 桂陽八景(계양팔경)

虛庵冷井(허암냉정) 허암봉의 찬 우물
雷岩宿雲(뇌암숙운) 벼락바위에 머무는 구름
蘭浦靈葉(난포영엽) 난지포구의 신령스러운 난지초 이파리
桂山懸瀑(계산현폭) 계양산 절벽에 내걸린 폭포
尾島落照(미도낙조) 꼬리섬(세어도)에 지는 해
鷹峯朝輝(응봉조휘) 매봉재의 아침 햇살
琢玉成文(탁옥성문) 탁옥봉에서 수련하여 문장을 이룸
天馬皇瑞(천마황서) 천마산에 서린 상서러움

현재 서구 쪽 풍경이다. 영욕의 긴 역사를 줄곧 함께 했던 서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면 훨씬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세월의 격랑 속에서 잊혀져 갔던 역사의 퍼즐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 계양산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누가, 왜 그 산성을 최초로 쌓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촌동은 계양산 서쪽 기슭에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고산성(계양산성)에서 능선을 따라 걷다가 징매이고개만 넘으면 바로 '고현(古縣)'이다. 공촌동의 옛 이름이 '고현'이다. 부평군 모월곶면 '고현리(古縣里)'가 음운변화로 '고련이'가 되었다. 지금도 서구 토박이 주민들은 공촌동을 고련이라고 부른다. 삼국시대 백제의 읍치였던 고현 마을이라는 의미로 계양도호부, 부평도호부 시절 이전부터 오랜 세월 불려온 명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산성(古山城)은 고현에 자리를 잡고 있던 초기 백제의 현소재지 지방정부(읍치)가 적의 공격으로 위급할 때 들어가 항전하기 위해 처음 쌓은 산성이었다. 공촌천변 남쪽 평지에 세워졌던 고현토성을 한성백제의 수도로써 한강변 평지에 세워졌던 풍납토성에 견준다면, 고산성(계양산성)은 구릉을 이용한 산성이었던 몽촌토성에 비견된다. 조선시대 한양을 고현이라고 한다면 남한산성은 계양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공촌동과 샛말 일대에 백제의 고현성이 있었다. 토성이자 평지성이었다. 성의 남쪽은 천마산 줄기가 천연장벽으로 둘러싸고 있었으며, 북쪽 경계는 공촌천이었다. 동쪽과 서쪽에는 흙으로 성벽을 쌓았다. 현재 빈정내사거리로부터 빈정교에 이르는 구서곶로 구간에 있었던 서쪽 성곽은 세월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도로로 변한 지 이미 오래다. 동쪽에는 흙으로 15미터 정도 높이의 거대한 성벽을

남북 방향으로 쌓아 경계로 삼았다. 그 성곽은 조산(祖山)인 천마산에서 뻗어 내려온 능선에 덧대어 흙을 쌓아 조성했다. 오늘날 경남아파트 옆 공촌공원에서 갈매공원을 지나 공촌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흙으로 쌓은 성곽의 길이만 약 1킬로미터에 달했다. 풍납토성처럼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풀밭 언덕으로 '곡장지'라 불리던 그 성벽은 1천5백 년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작용으로 약간 내려앉았지만, 1980년대까지도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며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모여서 축구하기에 딱 좋은 천연 잔디구장이었는데, 단점은 공을 잘못 차 옆으로 굴러 내려가기라도 하면 찾아서 올라오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는 점이다.

6.25 전쟁 중에는 살벌한 인민재판이 그 풀밭 언덕에서 열렸으며, 1.4 후퇴 직후 터키군 제1여단 예하 대대급 부대와 청천강 전투와 개마고원의 인공호수인 장진호 전투에서부터 미군, 터키군과 교전을 하며 뒤쫓던 중공군 제50군 소속 제149사단 447연대 예하 부대가 번갈아 주둔하기도 했다. 매년 유랑극단의 연극과 마을 콩쿠르가 단골로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군의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 사태 직후, 공촌동에도 향토예비군이 편성되면서 정상에는 적이 침입할 경우 타종을 하여 예비군들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큰 종이 매달린 대형 망루가 설치된 적도 있다. 그만큼 시야가 탁 트여 사주경계를 하기 좋은 곳이었다. 1968년 봄에 벌어졌던 일이다.

고현성이 그 위용을 자랑하던 백제시대에는 계양산 고개를 넘어 오늘날 경명대로를 따라 오다가 고현성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했다. 파수꾼들이 길을 막고 삼엄한 검문을 했다. 성문은 무심한 세월과 함께 사라졌지만, 성곽이 중간에 끊어져 움푹 들어간 그곳을 토박이들은 '길 막은데'라고 불렀다. 현재 경명대로 공촌동 경남아파트 버스정류장 자리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 전체가 도시화(연희3지구)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구체적으로 심곡로로 이어지는 공촌3거리 부근 논배미 저지대를 매립하는데 대부분의 토성 흙이 사용되었다. 포크레인과 불도저 등 중장비들이 그 언덕을 해체할 때 육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암반이나 큰 돌 하나 없는 마사토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사진기록이라도 남겨두었어야 했다. 무지의 소치다.

고현성의 중심지이자 번화가는 경명대로 공촌사거리에서 공촌천까지의 공간이었다. 당시 그 성의 북쪽 공촌천변에는 포구가 있었다. 빈정포구다. 해수면이 높았던 당시 밀물때는 소형 선박들이 바닷물을 따라 들어와 다음 썰물 때까지 그곳에서 정박을 했다. 북성포구처럼 파시가 열리기도 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먼 훗날 부평부사 박희방이 계양산 경명현에 중심성을 쌓고 성문 누각인 공해루에 써서 걸었다는 사언고시(四言古詩) 『부평팔경』의 제2경 '난포귀범'에 등장하는 경서 난지도 포구가 이곳에서 지척이다.

부평읍내에서 징매이고개만 넘으면 곧바로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장수왕의 고구려군이 전격전(電擊戰)을 통해 고현성을 점령한 후, 백제의 고산성이었던 오늘날 계양산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군사들이 사용할 보급품을 서해 연안항해를 통해 공촌천 갯골을 거슬러 올라와 전달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공성전에 투입되는 전투 병력들이 스스로 무거운 식량과 여분의 무기들을 배낭에 지거나 등짐을 지고 이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속한 기동이 어렵고 오히려 언제든 복병의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당시 고구려군의 병참은 해로와 내륙수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한 세기 전만 해도 바닷물이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아래까지 들어왔다. 경명대로가 뚫리기 전 공촌정수장 인근에는 큰 여울이 있었는데,

어깨 높이까지 냇물이 흘러서 여름이면 동네 조무래기들이 멱을 감았다. 산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위가 있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다이빙도 했다. 절벽 상단에는 손잡이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다. 어른들은 그것을 옛날에 배를 밧줄로 맨 자리라고 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다시 동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는 세월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일제강점기 때도 계양산에서 해안까지는 5㎞밖에 안 된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계양산 고개에서 공촌 사거리 옆 빈정내 다리까지의 직선거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공촌동의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의 계산삼거리 인근, 부평도호부 청사가 있는 곳을 '부평읍내'라고 불렀다. 그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물론, 청년시절에도 부평부사가 다스리고 기거하던 장소이자 번화가가 그곳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부평부를 폐지하고 부천군을 신설, 군청소재지를 관교동으로 이전(1914년)했던 일제에 대한 소극적 반발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60년대에도 이미 젊은 학생들은 부평읍내라고 하면 계산동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의 부평역 근처를 떠올렸다. 장강의 뒷물결은 앞 물결을 밀어내고, 세상에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대신한다고 했다. 명나라 격언집인 『증광현문增廣賢文』에 나오는 말이다. 흐르는 세월을 그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사실 부평읍내를 중심으로 부평과 징매이고개 너머 서구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오늘날 서구를 배제하고 전통 부평의 온전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평도호부가 계양산 자락에 치우쳐 있었던 것도 그 산 너머에는 부평의 일부로 유의미하게 존재했던 모월곶면(서구)이라는 관할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현 읍치 중심지의 오늘날 모습

5. 고려 충렬왕의 매사냥

계양산과 천마산 줄기 사이에 징매이고개가 있다. 오늘날 경명대로가 그 고개를 지나간다. 도로가 뚫리기 전 계산동에서 출발하여 굽이굽이 가파른 산길을 지나 좁은 고갯마루를 힘겹게 넘어 서구 경내로 들어서면 공터가 나왔다. 그 한 가운데 서낭당이 있었다. 신목인 큰 나무 둘레로 돌무더기를 쌓아 놓고 울긋불긋한 천을 줄에 매달아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다. 몽골고원이나 티베트 산길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비슷한 모양이다. 구한말 부평부사 박희방의 주도로 백성들이 힘을 모아 축조한 중심성의 관문인 공해루가 있던 자리다.

징매이고개는 고려시대 사냥용 매를 징집하는 국영 매방이 개경으로부터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붙은 이름이다. 고려 충렬왕은 수십 차례나 계양산 서쪽 들판인 이곳 고현에 와서 매사냥을 즐겼다. 충렬

왕이 매를 징발했다고 해서 '징매'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요즘도 몽골에는 매사냥의 전통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냥은 승마와 함께 과거 귀족들이 즐기던 스포츠였다. 고려는 당시 세계제국 몽골의 부마국이었다. 충렬왕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던 몽골제국 황제 쿠빌라이가 애지중지하던 막내딸 제국대장공주(홀도로게리미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자라서 왕위에 올랐다. 충선왕이다. 충선왕도 외가인 몽골제국의 계국대장공주와 혼인을 했다.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의 공주들이 고려에 시집을 오면서 왕실에서는 자연스럽게 매사냥이 고급(?) 레저 문화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충렬왕이 평생 사냥에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자 이를 보다 못한 제국대장공주가 남편에게 사냥놀이도 좋지만 나랏일부터 돌보라고 훈계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실제로 어머니의 몽골혈통을 이어받은 충선왕이 세자시절부터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기록들이 많다. 엄처시하 궁궐에서 벗어나 이곳 고현리의 자연 속에서 매사냥하는 것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을 충렬왕의 옹색한 처지가 안쓰럽다.

고려뿐 아니라, 조선조 양녕대군도 이곳 고현 지역에서 매사냥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매사냥을 하려면 풍부한 사냥감 뿐 아니라, 매가 서식하기 좋은 높고 깊은 산줄기와 함께 말이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이 있어야 한다. 능숙한 말타기는 기본이다. 매사냥은 매를 훈련시키고 무기 다루는 방법을 연마하며 살생 기술도 익히고 신체도 단련할 수 있으니, 나라의 지도자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전투훈련을 하는데 그만이었을 것이다. 모두 공촌천 인근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고려시대 매방 설치장소로 추정되는 갈뫼와 계양산

6. 운요호 사건과 연희진

운요호(雲揚號)사건은 1875년 9월 20일 일본 해군 전함들이 공촌천(갯골) 하구인 경서동 난지도[8] 동남쪽 금산 후사면에 닻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경서삼거리 인근이다. 운요호 함장인 이노우에 가오루는 직접 수십 명의 해병과 함께 보트를 나누어 타고 불시에 강화도 초지진으로 침입했다. 강화해협을 방어하던 조선수비병이 침입해 오는 일본 보트에 포격을 가하자 이노우에는 운요호로 철수한 다음, 전함들을 강화해협으로 배치하여 신식 함포로 초지진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여 초토화시키고, 내친김에 영종진에도 포격 후 상륙하여 살상과 약탈을 자행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장졸들이 장렬히

8) 난지염 또는 난점이라고도 불렸다. 난점은 난지염의 음운변화로 보인다. 과거 이 지역에서는 규모가 작은 '섬'을 '염'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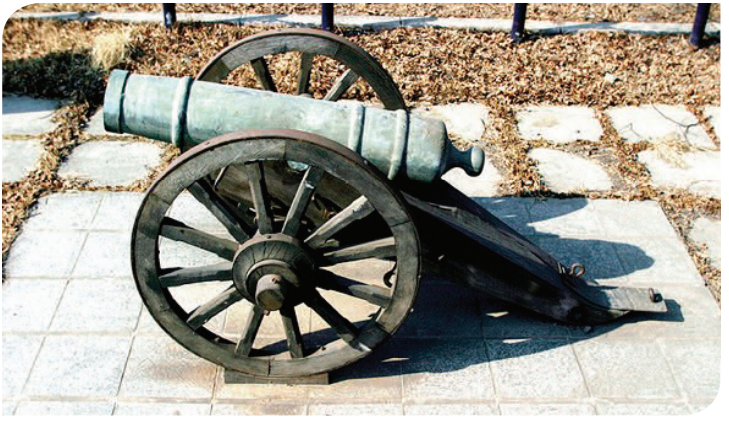
전사했고 조선의 조정은 결국 그 이듬해 강압적으로 강화도조약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3년 후(1879년) 조정은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편성하고 화도진과 함께 연희진을 설치하기로 한다. 오늘날 서구 연희동 우성아파트 옆 계명공원 자리다. 그러나 당시 연희진이 가진 대포는 구경 백 밀리로 포구에서 화약과 포탄을 장진, 후미 구경에 점화하여 쏘는 포구장전식 화포로 사정거리가 7백 미터밖에 안 되고 폭발의 힘으로 포탄이 날아가기는 하지만, 포탄 자체는 폭발하지 않아 그 위력이 턱없이 약했다. 영조 때 주조한 것을 개량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던 것이라고 하니 할 말을 잃게 한다.

공성전이나 수성전과는 달리 해전에서는 포탄이 적의 선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전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데 연희진은 화도진과 마찬가지로 요즘의 해안방위 개념처럼 해안 일대를 전반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치했던 군영이 아니다. 그랬다면 당시 최서단이었던 경서동 금산에 군영을 설치했거나 적어도 일선 포대를 배치했을 것이다.

당시 기연해방영 소속 연희진 군사들이 보유했던 화포의 사정거리는 7백 미터밖에 되지 않았는데, 해안까지의 거리는 사실 3천 미터가 넘었다. 그런데 연희진에서 가장 가까운 공촌천 갯골까지의 거리는 6백 미터였다. 결론적으로, 공촌천 하류가 연희진 군사들이 보유한 화포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운요호가 정박했던 해안은 연희진 소속의 일선 포대였던 용두포대로부터도 2㎞ 이상 떨어져 있다. 당시의 격전지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철마산 정상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면, 포의 사거리를 감안할 때, 연희진 소속의 또 다른 포대였던 포리(원창)포대의 전술적 목표도 서해 방위가 아니라, 과거 인천교 자리에 있었던 번지기나루 갯골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갯골을 타고 올라



포구장전식 화포 (사진출처 경기일보)

가면 주안과 십정동을 지나 원통이고개까지 단숨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희진과 용두포대의 설치 목적은 더욱 분명해진다. 해안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 군대가 경서동 갯골수로를 통하여 공촌천 하류와 중류, 상류까지 평저선을 타고 접근하여 계양산 징매이고개를 넘어서 부평관아를 점령한 후, 임금이 있는 한양을 향하여 파죽지세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요컨대, 배를 타고 공촌천 갯골을 거슬러 공격해 오는 적을 공촌천 하류와 중류에서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계우정'의 존재다. 계우정(桂虞停)은 공촌천(빈정내)을 사이에 두고 연희진의 북쪽 피안에 설치되었던 군사기지로 공촌천을 거슬러 올라오는 외국군을 연희진과 함께 공촌천 양안에서 궁수와 포수들을 배치하여 협공하도록 했던 군사기지다. 기연해방영 소속은 아니고 부평부사가 관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기지는 현재 빈정공원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7. 부평부사 박희방의 도전과 응전

박희방하면 떠오르는 것이 계양산고개 중심성 축조와 아나지고개 산적 일망타진이다. 박희방은 이순신 장군 이래 문무를 겸비했던 조선시대 최고의 지방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운요호 사건(1875)이 벌어지고 그 이듬해 강화도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박희방은 지척에서 벌어졌던 그 치욕적 사건의 전개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지켜보았다.

1879년 기연해방영이 창설되면서 화도진과 함께 연희진이 설치되었다. 부평부사 박희방은 여기에 더해 자신의 직권으로 연희진 북쪽, 공촌천 갯골 건너편에 계우정이라는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적이 공촌천 갯골을 거슬러 침입할 때 양안에서 협공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해 놓았다.

그러나 부평부사 박희방을 포함, 이 지역의 지리에 정통한 전술전략가들의 고민은 기본적으로 당시 조선이 보유했던 무기를 가지고 신식 무기와 전술로 무장한 외국군을 연희진과 예하 포대, 그리고 계우정같은 군사기지를 총동원하여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었다. 결국 수년 후 그들은 연희진을 혁파하고 작전상 후퇴를 결정하게 된다. 1883년의 일이다.



| 연희진지

그로부터 거의 70년 후 이 땅이 다시 외세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6.25 한국전쟁 때 장진호전투에서 중공군의 기습으로 고전했던 미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이 마지못해 흥남으로의 철수를 결정하면서도 장병들에게 '우리는 결코 후퇴하는 게 아니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진군하는 것일 뿐이다. (Retreat, hell! We're not retreating, we're just advancing in a different direction.)'라고 패기 있게 외쳤듯이, 박희방 부사도 고종의 칙령을 얻어내 이를 근거로 연희진을 혁파하고 계우정의 폐쇄를 결정하면서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진군'을 했다. 서둘러 후방인 계양산 고개에 중심성(衆心城) 축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세와 패기만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사거리가 매우 짧고 착지점에서 폭발하지도 않는 재래식 화포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장소로 징매이고개를 선택한 것은 오늘날

의 전술적 관점에서도 매우 탁월한 결정이었다. 어차피 당시 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화포나 무기를 가지고 신식무기와 전술로 무장한 일본군을 해안에서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화포의 사거리는 터무니없이 짧고 포탄은 착지점에서 폭발하지도 않는 멍텅구리였기 때문이다.

그 화포는 사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산성을 방어하는데 특화되어있는 무기였다. 가까운 적을 향하여, 그것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사용할 때만 효과적인 무기였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해상이나 해안에서 적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한양으로 진군하려는 적의 중간목표일 가능성이 큰 계양산 고갯마루에 성을 쌓고 방어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래식 화포의 치명적 약점인 짧은 사거리와 착지점에서 터지지 않는 포탄도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올라오는 적을 상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결정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서구 일대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어떤 보호막도 없이 사나운 일본군의 자비에 맡겨진 계양산 서쪽 군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하지만 당시는 국토를 방위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가치보다 국왕을 보위하고 종묘사직을 보존한다는 가치가 훨씬 우위에 있던 시절이다. 강화도 돈대들이 대부분 서해 쪽보다는 김포반도와의 사이인 염하 쪽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해방어를 통해 강화도 군민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강을 통해 한양으로 올라가려는 적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면 백성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조정은 그 해(1883년) 12월 기연해방영을 연희진 자리로 옮기고 당대의 거물 정객 민영목을 사무총관으로 임명했다. 당시 조선의 국왕이던 고

종이 관방시설이 집중되었던 계양산의 서쪽 이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민영목은 연희리에서 기연해방영 사무총관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해인 1884년 병조판서에 제수(除授)되었다. 그러나 그 해에 발생한 갑신정변 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의 개화파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박희방은 후임 조병하와 함께 아나지고개 산적토포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안성 칠장산에서 시작된 한남정맥은 달기봉, 무너미고개, 형제봉, 광교산, 수리산을 거쳐 관내의 소래산, 성주산, 원적산, 천마산, 계양산, 가현산을 거느리고 달리다가 김포 문수산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 가운데 원적산과 천마산을 이어주는 고개가 바로 '아나지고개'다.

아나지고개는 경인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면서 차츰 잘려나가다가 70년대 초반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의 서구와 부평구, 계양구를 가르는 아나지고개는 바닷가가 지척이라 해발고도에 비해 아주 험준해서 인근의 '징매이고개'와 함께 사나운 산적들과 화적떼들이 자주 출몰했던 곳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적이나 산적, 화적떼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지름길, 외통수인 곳이다. 물산이 풍부한 대처 인근이면서도 치안의 중심지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군을 동원하여 토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설령 토벌을 당하더라도 두목과 같은 핵심 인물들이 어렵지 않게 도피할 수 있도록 능선으로 연결된 곳이면 더욱 좋다. 아무리 산세가 험해도 육지의 섬처럼 고립될 수 있는 곳은 피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나지고개'는 산적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사업장(?)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육상운송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인천 앞바다는 고려시대 이후 기호지방에서 개경과 한양으로 올라오는 세곡선들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곳이었다. 특히 조선시대 세곡선 운송책임자들에게 있어서 강화 손돌목의 염하를 통과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 직접 마포나루로 올라가는 루트가 플랜A라면, 지금도 그 흔적이 이름으로 남아 있는 서구 원창동의 창고에 일단 짐을 부려 놓고 그곳에서 다시 우마차를 이용한 육상운송을 통하여 한양으로 올라가는 루트인 플랜B가 있었다. 플랜B 루트를 선택했다면 지름길로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가 바로 '아나지고개'였다. 주지하듯이 강화 손돌목은 물살이 거세어 숱한 세곡선들이 그곳에서 난파를 당했다.

산적들은 일단 세곡미를 털어 한남정맥 산줄기를 타고 북쪽으로 도주하면 김포 가현산과 문수산을 거쳐 개성 송악산까지도 단숨에 도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담하게 작전에 나설 수 있었다. 조정에서 대대적으로 토포에 나서 제압하고 나서도 단속이 시들해지면 다시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곤 했다.

부평부사 박희방은 부임하자마자 세곡미의 손실을 막고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아나지고개에서 준동하는 산적들을 토벌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지역의 산악 능선을 중심으로 지형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답사를 한 끝에 세곡미 행렬이 아나지고개를 넘는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군사를 아나지고개와 계양산 양쪽으로 분산, 매복시켰다. 아나지고개에서 관군에 패주하면서 한남정맥 산줄기를 타고 도망치던 산적들은 결국 계양산 피고개 능선에서 매복하고 있던 관군의 주력부대에 의하여 일망타진되었다. 그 와중에 용케 달아났던 산적 잔당들도 몇 년 후 조정이 토포사로 임명한 박희방의 후임 조병하 부평부사에 의해 한들마을(백석동)에서 토벌되었다. 1887년의 일이다.

8. 일제강점기

부평부의 변두리, 고즈넉한 농촌지역이었던 서구 공촌천 주변은 일제강점기에도 큰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촌천 하류지역인 경서동 해안 일대에서 번창하던 전통적인 제염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인들이 대만에서 들여온 천일염 생산방식을 주안염전을 중심으로 보편화시키면서 전통 제염방식인 화염생산과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다.

바닷물을 큰 가마솥에 끓여 생산한 소금을 화염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소를 동원하여 써레질한 갯벌 흙을 잘 말려 염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흙을 통과하여 농축된 바닷물을 졸여서, 효율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을 전오염 혹은 자염이라고 한다.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지리적 환경은 자염의 생산은 물론, 판매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드넓은 갯벌이 있고, 인근에 한남정맥이 지나가 땔나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숲이 많은 지역적 특성과 서울이라는 큰 배후시장까지 근처에 있다는 인문지리적 특성에 착안하여 큰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육상운송이 열악했던 당시에 공촌천 하류 해안에서 자본과 노동을 투여하여 생산한 자염을 배에 싣고 강화해협인 염하를 거쳐 한강을 거슬러 올라 마포나루까지 가져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도 했다. 가격 경쟁력 또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염생산이 금지되고 천일염 생산이 전면적으로 보급되면서 다소의 사회경제적 격동은 피할 수 없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부평의 앞 글자와 인천의 뒷 글자를 조합한 부천군이 신설되고 축곶산 남쪽의 석곶면과 북쪽의 모월곶면이 통

합되면서 이 지역은 부천군 서곶면이 되었다. 면사무소는 연희진이 있었던 자리에 목재 건물로 세워졌다.

9. 해방공간과 농지개혁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반쪽짜리 해방이었다.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 남한에서는 단독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농지개혁이 전격 시행되었다. 6.25 전쟁으로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개혁이자 무혈혁명이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원칙이었던 북한과 달리 정부의 '유상수용 유상분배'의 결과로 이 지역에서도 90퍼센트 이상의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해묵은 계급 갈등이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일종의 백신 역할을 했던 농지개혁은 결과적으로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은 일등공신이기도 했다. 남한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월북하여 김일성을 도와 남침을 계획했던 박헌영 등 남로당 수뇌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숙청되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이 시작되어 남한으로 밀고 내려가기만 하면 지주들의 착취로 도탄에 빠져 신음하던 대다수 남한의 소작농들이 인민군을 열렬히 환영하며 봉기할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이 결과적으로 엉터리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다수 소작농 입장에서도 이미 자작농 지주가 되어 스스로 신분상승이 이루어진 마당에 공산화를 지지함으로 그 땅을 다시 국가에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강화 출신으로 초대 농림부장관에 발탁된 죽산

조봉암을 앞장세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상한선을 3정보(9천평)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나라에서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강제로 수용하는 혁명적 결정을 내렸다.

소작농들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병작반수제'로 경작하던 지주의 땅에서 나는 소출의 150퍼센트, 즉 3년분 소작료만 연부연납으로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그 땅을 소유하여 지주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자식을 많이 낳아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여 남의 땅을 많이 부치던 소작농들이 최고 수혜자가 된 반면, 농사지을 노동력이 부족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지주 집안들은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친일파 지주들도 농지개혁이라는 무혈혁명으로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그 개혁의 결과로 지주와 소작농이라는 이 땅의 봉건적 신분질서도 함께 무너졌다.

10. 6 · 25 전쟁의 발발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질곡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야기된 극도의 이념적 혼란과 갈등은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치닫고 말았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그 해 공촌천 인근 지역은 초여름까지도 몹시 가물었다. 그날은 마침 뒤늦게 모내기를 하느라 분주한 집이 많았다. 그런데 아침부터 멀리 북쪽에서 대포소리가 들리는 게 심상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새참을 먹고 점심때쯤 되자 피난민들이 서곶로를 가득 메우고 내려오며 난리 소식을 전했다. 마음이 급해진 주민들은 부랴부랴 남쪽에 사는 친척 집으로 피난을 떠났다. 당시 피난지라는

곳이 대개 주안 신기촌같이 가까운 곳이었고 기껏해야 안산이나, 수원 같은 곳이었다. 그 옛날 병자호란 때 피난했을만한 거리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경황이 없어 집에 그대로 두고 온 가축들이 걱정되어 열흘도 안 돼 귀가를 했다. 집에 와 보니 소와 돼지 등의 가축들은 먹지를 못해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마을은 이미 인민공화국 세상이 되어 있었다.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관과 공무원들이 인민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빨치산들에게 잡혀 처형되었다는 흉흉한 소문만 들려왔다. 동네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발걸음들은 진득하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북한군은 실제로 1950년 7월 4일 이 지역에 들어왔다.

전쟁통에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다.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지는 9월 중순이 되자 갑자기 인천 쪽에서 우뢰와 같은 함포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마침내 점령군이 물러가고 수복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인천상륙작전 이후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미해병 1사단이 함경남도 서북부 개마고원의 인공호수인 장진호 전투에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와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 12만명에 달하는 압도적 병력에 포위되어 거의 궤멸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중공군과 백병전까지 벌이며 용맹하게 싸워 미10군단 병력이 동해안의 항구도시 흥남으로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남하하던 터키군 제1여단 예하의 대대급 부대가 김포반도를 지나 공촌천 주변으로 들어왔다.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쳐 서울, 부산까지 단숨에 종단할 수 있는 1번 국도에서 조금 비켜나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이 지역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장병 10만명과 군수품 35만톤, 피난민 10만명과 차량 1만7천대를 선박으로 수송한 흥남철수작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터키군 병사들은 이곳 서해안 지역 북서곶 동토에 조용히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오늘날 서부교육지원청 인근의 공촌동과 갈뫼, 검암동, 시천동 일대다.

김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305번 도로가 지나가는 서인천고등학교 인근 험봉산 중턱에는 추격해오던 중공군과의 비장한 결전을 위해 터키군이 파 놓았던 견고한 참호와 구불구불한 교통호들이 70년대까지도 붉은 상흔처럼 드러나 있었다.

당시 한반도 주요 전선의 전투상황은 대체로 소강상태였다. 양측 모두 상대방과 일전을 치룬 후, 부대를 재정비하고 탄약과 장비를 보충하며 새로운 작전계획을 짜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51년 중공군 춘계공세가 시작되자 터키군은 북서곶 지역을 떠나 수원, 용인 방면으로 이동했다.

제공권을 갖지 못해 야간행군으로 몰래 압록강을 건너와 청천강 전투와 개마고원의 장진호 전투에서부터 미군, 터키군과 교전을 하며 뒤쫓던 중공군 제50군 예하 제149사단 447연대 소속 부대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왔다. 북서곶 지역에서 용인의 '김량장'에서처럼 터키군과 중공군이 마을 중심부에서 주로 백병전으로 맞붙었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천운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점령군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서는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탄약과 장비를 조달하는 보급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병참선이 끊기면 부대의 전투력은 곧바로 상실된다. 그런데 마을 주변 추수를 끝낸 빈 논밭에 야전텐트로 막사를 치고 보급문제도 스스로 해결했던 터키군과는 달리, 중공군은 마을 한가운데 민가들을 함부로 접수하고 지휘본부를 설치했

다. 일부 식량도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현지에서 조달했다. 말이 좋아 조달이지 마을 주민들로부터 거의 갈취하는 수준이었다.

공촌천과 인근 마을들은 그렇게 야수적 무법자들의 공간으로 속절없이 추락했다. 국군이나 인민군 의용군 징집연령이 한참 지나,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던 늙수그레한 남자들은 그들이 묶고 있는 방을 덥힐 땔나무를 해 오고, 부녀자들은 그들의 취사를 돕는 부역을 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데자뷰이자, 힘없는 나라 백성들이 그 옛날 겪었을 남루하고 비루했던 숱한 고초의 대물림이었다.

민가들을 접수한 중공군은 곧바로 돼지 징발에 나섰다. 돼지고기가 빠진 중국식단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중공군 취사 책임자인 장교와 부관은 마을 이장을 앞세우고 돼지 키우는 집들을 찾아다녔다. 서툰 우리말로 "돼지 있소? 돼지 있소?"라고 소리치며 민가를 샅샅이 뒤지는 그 기괴한 행렬을 호기심 많은 마을 조무래기들이 줄곧 따라다녔다.

거래(?)가 성사되면 장교는 즉시 권총으로 돼지 머리를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마을 남자들은 방금 숨이 끊어져 축 늘어진 돼지를 수레에 실어 취사병들에게 넘겼다. 돼지를 키운 주민들이 그들로부터 보상으로 받은 것은 몇 장의 중국 인민폐뿐이었다.

11. 전후 산업화의 태동

6.25 전쟁이 휴전협정이라는 어설픈 모습으로 종식되자 전선에 투입되었던 수많은 이 지역 젊은이들이 귀향을 했다. 군복무 경험을 가진 이들 신세대는 조상 대대로 농사만 짓던 이 지역의 선배 세대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용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동족상쟁의 잔인한 전쟁은 좁은 지역에서 벗어나 비로소 전국적 차원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불러왔다.

그들은 향후 국가의 산업화,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력이라는 자원의 보고가 되었다. 과거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한 국가의 근대화,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성공이 정부 지도자나 엘리트 집단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광범위한 인력풀이 요구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세대(Baby Boomer)의 등장도 이들의 군 제대 및 귀향과 무관치 않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다. 그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가 바로 6.25 전쟁 참전세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군대는 지휘계통이라는 위계질서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행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물론, 각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직업학교이기도 했다. 토목공사 전문인 공병은 물론, 통신병과나 병기, 심지어 군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참호공사에 바쳤던 보병 출신들도 장비 다루는 방법이나 귀중한 공사 경험을 쌓고 제대를 했다.

게다가 전쟁 직후 정부는 이른바 북진통일을 위해 1백만 대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참전 군인들의 제대를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전 군인들은 6,7년 동안이나 군복무를 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 긴 시간 동안 장병들은 자신의 주특기(소총수, 탱크병, 공병 등) 분야에서는 거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6.25 전쟁이 종식되고 귀향한 젊은이들은 군복무 시절 배우고 경험했던 각종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전 세대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공촌천 홍수방지를 위한 사방공사와 농지개간도 그중 하나였다. 불도저를 활용한 하천의 둑 보강공사를 통하여 농토가 대폭 확장된 것이다.

공촌동 출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후, 김해의 육군병기학교에서 7년간 군복무를 했던 (故)김유수는 60년대 초 공촌천 중류의 하천부지를 대상으로 농지개간 라이선스를 받았다. 당시 새마을운동의 전신인 '재건국민운동'을 주도하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자갈투성이였던 황무지를 포크레인과 불도저 같은 중장비를 수개월간 동원하여 하천 제방을 보강한 후, 그 안의 땅을 농지로 만들어 평평하게 고르고 흙을 퍼다 날랐다.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는 그 쓸모없던 땅을 2정보(6천 평) 이상 규모의 번듯한 농장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의 집념과 성공 스토리는 인근 마을 후배들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었다. 나도 하면 된다는 의지를 심어주었다. 하늘만 쳐다보던 이전 세대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전후 복구의 일환으로 부평 조병창 등 일제가 남기고 떠난 시설물을 인수한 미군은 대규모 막사와 시설물 건설에 나섰다. 필요한 건자재 중에서도 자갈과 모래는 대부분 공촌천에서 조달했다. 유엔 마크

를 앞문에 부착한 군용트럭들이 거의 매일 드나들었다. 고현리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긴 셈이다. 군인들이 작업하는 광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동네 조무래기들은 냇가로 달려갔다.

그런데 트럭이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이 작업 중 자주 고장을 일으켜 군인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는 마을의 제대 군인들이 고장난 장비를 응급으로 고쳐주거나 구덩이에 빠진 트럭을 능숙하게 꺼내 주기도 했다. 오랜 군복무를 통해 주특기로 습득한 기술 덕분이었을 것이다. 해결사 역할을 쉽게 해낸 평범한 마을 어른들은 마을 아이들에게 일약 영웅이 되었다. 하찮은 농사꾼인 줄로만 알았던 이웃 아저씨가 신기해 보이기만 하던 트럭과 중장비들을 조자룡 헌 칼 쓰듯 아주 쉽게 다루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후 3,4년 단위로 홍수에 시달리곤 했던 공촌천 인근의 잡종지들이 비로소 비옥한 농토로 변신했다. 공촌, 검암, 경서동의 접경지역인 과기평에서 기업형 옹기산업을 일으켰던 최기영과 (故)안인배 등의 대규모 옹기산업도 그때 태동했다.

삼국시대부터 60년대까지 1천7백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다.

공촌동 마을

[개관] 인천광역시 서구에 공촌동(公村洞)이라는 마을이 있다. 법정동이다. 행정동으로는 연희동에 속해있다. 옛 이름은 고현리(古縣里)다. 『호구총수』에 이미 공촌리로 되어 있다. 호구총수는 규장각에서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기록하여 1789년(정조13)에 간행한 관찬서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 흑전정(黑田町)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공촌동이 되었다. 연희 3지구의 일부로 8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본래 '곡장지'라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천마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 풀밭 언덕(土城)을 사이에 두고 앞말, 넘말 50여호가 자연부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공촌천 중류에 터 잡고 전통지리 방식인 자좌오향으로 조감해 보면, 12시 방향으로 본마을(앞말, 넘말)이 위치해 있고, 2시 방향에는 현재 공촌초등학교가 들어선 웃골이 있었다. 11시 방향으로 서부교육지원청과 공촌정수장 사이의 뒷골, 10시 방향에 도당뫼와 왼쪽 징매이고개 쪽에 산골, 8시 방향 방아다리 건너 갈뫼가 있었다. 그곳에는 듬성듬성 인가가 몇 채 있는 정도였다. 7시 방향에는 공촌천이 자주 범람하면서 오랜 세월 자갈과 모래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땅에 19세기 이후 형성된 마을인 괴기벌(과기평)이 추가로 편입되었으며, 6.25 전쟁 피난민 정착촌이 괴기벌과 군수골 사이인 6시 방향에 형성되었다.

[유래] 공촌동은 인천에서 가장 유서 깊은 마을 중 하나다. 그 역사가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펴서 이 지역을 병합했던 47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이미 백제의 읍치(邑治)였다. 현소재지였다. 1천7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공촌(공평한 마을)이라는 사뭇 관념적이며 근대적 공동체 지향의 지명이 공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조 영조 때의 일이다. 그 이전 천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는 그냥 '고현'이라는 보통명사로 불렸다. 그런데 공촌이라는 지명은 인근 마을들 이름과 달리 새로 작명을 한 흔적이 있다. 누군가 작심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공촌이라는 지명은 한남정맥의 계양산 줄기와 천마산 줄기가 새의 양 날개처럼 좌우로 활짝 펼쳐지고 그 가운데로 작은 산맥이 마치 혈자리처럼 맺어지는 모습이 한자의 공(公)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지어졌다. 뜻인 즉 '공평한 마을'이다. 그 이전에는 옛날 현 소재지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그냥 고현리라고 불렸다.
고현성의 중심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성내'지역은 그 중 네 번째 획이 놓여지는 혈자리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획은 성의 동쪽에 흙으로 쌓은 성벽(곡장지)을 정확하게 묘사한다. 옛 풍수전문가들의 혜안이 놀랍다. 영조 때 이 지역 행정기관이었던 부평군 모월곶면의 소재지는 검암동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허암봉에 좌정을 하고 바라보면 공(公)자가 뚜렷이 나타난다. 조선조 연산군 때 사화를 피하여 허암봉 기슭에서 수년간 은거생활을 하던 허암 정희량을 포함, 이곳이 그 옛날 백제의 현 소재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식자층의 작명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별도로 한성백제시대가 어쩔 수 없이 막을 내리고 웅진(공주)으로 이주한 후 사비(부여)로 옮길 때까지 약 60년간 백제의 도성이었던 공산성(公山城)의 규모와 형태가 고현성과 놀랍도록 유사하고 포곡형 산성이라는 공통점도 발견되는 만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I

서곶 옹기의 고찰

1 옹기, 지역에 따른 형태와 민속적 의미
2 옹기, 집단촌 형성과 광명단 사건
3 서곶 옹기점의 유래와 오늘
4 서곶 옹기점과 입지조건
5 옹기점의 구성
6 옹기의 원료
7 성형방법의 종류와 서곶옹기의 성형과정
8 성형도구
9 건조와 유약 및 시유
10 서곶 옹기의 문양
11 가마와 고사의 의미
12 가마재임 및 소성
13 자리와 판매
14 제언 : 옹기박물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부웅 (李富雄, 前 단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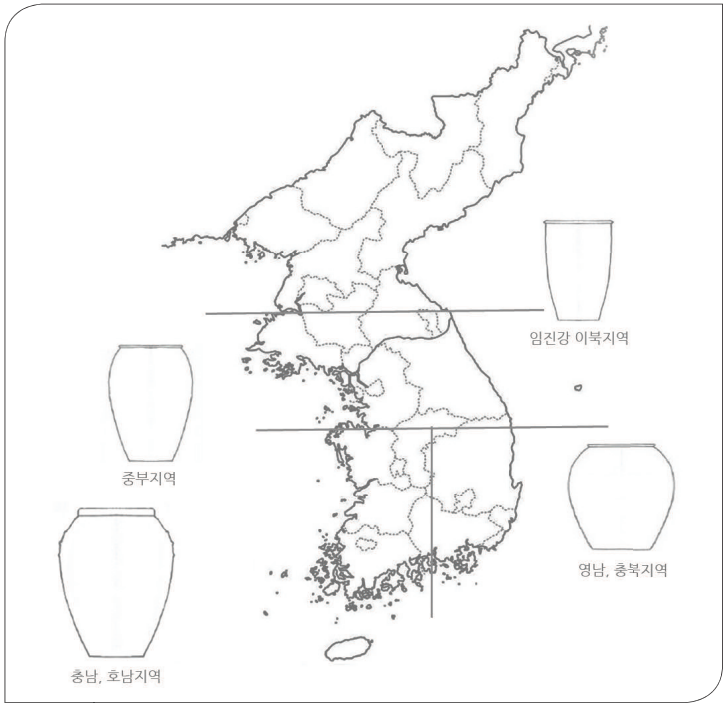
Ⅱ. 서곶(西串) 옹기(甕器)의 고찰

1. 옹기, 지역에 따른 형태와 민속적 의미

옹기는 철분이 많은 적색 점토가 주원료이며 점력이 매우 좋아서 작은 그릇에서부터 큰항아리까지 일상에 쓰이는 다양한 기물을 성형해 1200℃ 전후에서 구워 완성한다. 점토 속의 철분은 소지를 단단하게 소결시켜주므로 굽고 나면 강도가 높고 흡수성이 거의 없어서 물을 포함한 액체를 저장하는 용기로 매우 적합하다. 특히 흡수성이 거의 없어 추운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여도 기벽에 동글게 적이 튀어나가는 박리현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이 길고 삼한사온이 있는 대륙성기후에서는 매우 유용한 용기로 대가족 제도인 우리나라의 어느 가정에서나 장독대를 마련해 오랫동안 쓰여 왔다. 그러나 옹기는 너무 흔하고 값이 싸서인지 천시를 당했다. 한국의 도자사(陶磁史)에서조차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옹기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발달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1986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발굴한 전남 영암의 구림도기 발굴지에서 시유도기가 발굴됨으로써 옹기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자생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더 많이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옹기의 형태는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갖는다. 대륙성 기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고 남과 북의 온도 차이도 큰 편이다. 따라서 절기에 맞는 발효음식을 먹기 위해 전국을 크게 4지역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옹기 형태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4지역은 호남과 충남지역, 영남과 충북지역, 중부지역, 북한 지역이다.

호남지역의 옹기는 어깨가 넓고 키가 훤칠하며 아구리가 좁은 편이다. 지역적 환경과 교류로 충남지역의 옹기도 흡사하다. 영남지역의 옹기는 배통이 발달하고 아구리가 좁은 구형이다. 충북지역의 옹기도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은 바닥과 아구리의 크기가 비슷하고 배가 약간 부르다. 북한 지역의 옹기는 새우젓 독 같이 생긴 큰 항아리로 입이 넓고 바닥이 좁은 사선의 형태이다. 항아리의 전은 노전, 넙전, 왜전, 무전, 통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옹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성형한다.



지역별 옹기형태의 특성

옹기의 종류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무유 옹기와 유약을 바른 시유 옹기 두 종류가 있다. 무유 옹기는 삼국시대의 토기와 같이 소성 과정에서 연을 먹여 짙은 회흑색이며 시유 옹기는 잿물을 발라 지금의 옹기와 같다.

옹기는 긴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만큼 민속 신앙과 풍습에 깊은 연관이 있다. 민속신앙의 예로 긴 대업은 구렁이 업으로서 집 안팎에서 쥐를 잡아먹는다. 겨울에는 볏가리 속 바닥에서 살고 봄, 여름, 가을에는 초가지붕에 살면서 쥐를 잡아먹는다. 지방에 따라서 구렁이가 잘 살도록 광 속 어두운 곳을 택하여 독 항아리를 두어 은신처를 만들어 준다. 그 외에도 집안을 다스리는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독과 대감독,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을 옹기에 모셨고, 토주 신을 모시는 터주가리는 뒤뜰이나 뒷간 근처에 짚으로 비를 맞지 않도록 가리고 그 안에 토주 항아리를 넣어 모셨다. 옹기와 관련, 자연과 신에 대한 인간의 염원을 기리는 민속 풍습으로는 장독대를 들 수 있다. 어느 가정에서나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곳에 장독대를 만들고 장맛이 좋도록 관리를 한다. 음력 10월 상달에 추수가 끝나고 고사를 지내거나,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장독대에서 무당이나 집안의 제일 연로한 분이 장맛이 좋고 가정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위해 축사 기원을 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장독대에서 음력 칠월 칠일에 칠석제를 지내기도 하고, 버선본을 장독에 거꾸로 붙여서 장맛이 나빠지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는 벽사의 의미를 담아 주술적인 표시를 하기도 한다.

2. 옹기, 집단촌 형성과 광명단 사건

우리나라는 개화되기 전 반상(班常) 사회였다. 그중에 옹기 만드는 사람들은 천민으로서 백정 다음 계급으로 '흙장' 또는 '점놈'으로 불렸으며 일반 상민 사회에는 섞일 수가 없어서 옹기장이들만 모여 사는 집단촌(店村)을 형성하였다. 옹기 작업은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로 더운 여름에는 남녀노소가 옷을 벗고 일을 하며 특히 가마 작업은 덥기 때문에 모두가 옷을 벗기 일쑤였다. 게다가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서 남녀가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상놈 취급을 받았다. 집단촌에서는 동네에 고아가 생기면 점말에 데려다가 키우며 일을 시켰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옹기장이의 자녀와 혼인하여 자녀의 혼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옹기장이의 90% 정도가 천주교 신자이다. 대표적인 예로 김수환 추기경의 아버지가 옹기장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천이 개항되고 외국 지계(地契)가 형성되면서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와 외국인 신부와 수녀, 목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며 자녀를 교회와 학교에 보낼 것을 권유했다. 부잣집 자녀는 현대 학문을 유료로 가르치는 반면 형편이 어려웠던 옹기장이의 자녀는 무료로 가르치며 주로 신부와 수녀, 목사로 교육되었다.

인천에도 옹기와 관련된 지명이 크게 4곳이 있다. 예로부터 인하대학교 인근의 지명은 '독쟁이'였고, 주안 석바위에 위치했던 구 법원 자리 지명은 '독점'이며 '점말', '점마을'이란 이름이 도처에 흔했다. 인천 선학동의 옛 지명은 '도쟁이'로 주로 벽돌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경서동 녹청자박물관이 위치한 서곶은 윗점과 아래점, 시루점의 '점촌'이 있었다. 옹기와 관련된 지명이 도처에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인천에서 생산한 옹기의 수를 짐작할 수 있다.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발전되어온 옹기도 1940년대부터 연료 부족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옹기에 잿물 대신 광명단 유약을 쓰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납이 포함되어있는 화공약품인 광명단은 옹기에 발라 구웠을 때 붉은색 또는 검은색을 띠며 표면이 매끈하여 보기에 좋다. 그러나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납이 검출된다. 광명단 유약을 바른 옹기가 장마로 오랫동안 비를 맞거나 장을 담가서 오래 두면 옹기 표면에 흰 가루가 나와서 마치 서릿발 같아 보인다. 이것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면 혀가 도려질 것 같은 쓴맛이 난다. 이것이 옹기 안에 담겨있는 발효식품에 섞이면 음식 맛을 변질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도 유해하다. 예로 필자가 청소년일 때 94세에 작고하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요즈음 김치나 장맛이 전과 같지 않고 맛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연독 항아리에 담근 음식이 맛이 좋을 리가 없다.

이러한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데도 광명단을 사용한 까닭은 먼저, 종래의 잿물 옹기는 1200℃ 전후에서 구워냈으나 광명단을 사용한 옹기는 600℃~900℃ 내외에서 구워낼 수 있어 인건비와 연료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었고, 두 번째는 겉면에 반질반질한 윤기가 흘러 당시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 세 번째로는 잿물 바른 옹기보다 광명단을 바른 옹기를 가마에서 구웠을 때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었다. 이후 1980년대를 전후하여 옹기에 연독의 피해가 공학적으로 증명되고 언론에 소개되면서 대중이 옹기를 외면하고 상당수의 옹기 공장이 폐업을 하거나 축소되었다. 1950년대만 해도 전국에 500여 곳에 이르던 옹기점이 현재는 얼마 남아있지 않아 점차 잿물 옹기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잿물 옹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서곶 옹기점의 유래와 오늘

빈정촌과 독점 마을, 과기평 마을은 서곶로에서 서쪽으로 뻗어간 경서동 반도로 향하지 않고 서곶로에 인접한 지역을 가리키며 서로 이름이 혼용되기도 하고 매우 가깝게 바라보고 있다. 빈정촌은 빈정천이 지나가는 빈정교 주변 마을을 가리킨다. 서곶로에서 국제컨트리클럽 간판을 보고 서쪽으로 진입하는 길의 오른쪽은 윗독점(검암동 쪽)이고 왼쪽(연희동 쪽)은 아래독점이라고 부른다. 지난날 이곳에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들어 공소(公所)를 열고 옹기를 구웠는데 가마는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빈정촌과 아래독점은 동일하다고 보아도 된다. 과기평(過騎平)은 위의 빈정촌, 독점 등을 아우르는 지명이기도 하다. 병인양요 후 이곳에 계우정(桂虞亭)이라는 군사기지가 설치되고 기병들이 말을 달려 지나는 곳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이 마을 출신 원로들은 괴기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과기벌'의 음운변화로 보인다. 위의 빈정촌, 독점, 과기평은 오늘의 행정구역으로 경서동과 공촌동과 검암동의 경계가 겹쳐 있다. 경서동의 복잡한 취락을 그 마을에 진입하는 순서대로 설명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검단과 김포를 거쳐 강화로 가는 서곶로 국도의 빈정천을 건너면 빈정촌 또는 과기평이라는 마을을 만난다. 빈정교를 건너자마자 다가오는 취락이 아래독점이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 서쪽으로 난 길(지금은 국제골프장 입구로 설명된다)을 따라 걸으면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 윗독점이다. 옹기 공장에 대한 기록은 인천사(仁川史)에는 없고 서구사(西區史)에서 옹기공장의 옛 지명(地名)과 위치의 설명만이 남아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래독점과 윗독점 외에도 질그릇을 굽던 시루점이 있었다. 시루점은 일찍이 문을 닫고, 아래독점은 광명단사건(1970년~1980년)때 문을 닫았다고 한다. 윗독점(현재

신일산업)은 생산방식을 바꾸어 199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터널가마(Tunnel Kiln)를 도입하였다. 연속식 소성로인 터널가마는 송차(送車) 시간이 30분으로 하루에 48대(臺)의 가마가 요출(窯出)되므로 그 작업의 수요를 맞추는 시설과 생산은 기존의 생산 시스템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옹기 생산은 적은 수의 작업 인구로 많은 생산량을 내기 위해 보다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었다.

또한 현대의 도시 집중적 주거환경과 핵가족 사회에서 옹기의 생산은 큰 항아리보다는 작은 항아리들과 다양한 기물에 맞추어 생산하게 되었고 예전 방식의 큰 옹기의 생산은 주문에 의하지 않고는 만들지 않게 되었다. 생산량이 많은 신일산업의 옹기 성형 방법은 좀 큰 것은 대장이 물레성형을 하고 작은 옹기들은 석고틀(Plaster Mould)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만들고자 하는 기물을 위와 아래로 반씩 나눠 석고틀을 만들고 자동 동력 물레(Jiggering)로 성형한 후 탈형하여 아래와 위쪽을 맞붙여서 성형을 완성한다. 성형과정이 빠르며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4. 서곶 옹기점과 입지조건

필자가 처음 옹기점을 찾은 시기는 1963년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당시 윗점, 아래점, 시루점이 있었다.

1) 윗점(검암·경서동)

경서동에 위치한 신일산업은 서곶점 마을에 1955년 설립되었으며, 강용복 전무의 말에 의하면 북한 신의주에서 왔다고 한다. 사무실에

있는 작은 항아리의 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초기 제품인데 북한 것과 닮았다고 한다. 필자가 방문했던 당시(1963~1964년) 작업장에 조카라는 신학교(神學校) 학생이 쓸쓸하게 혼자 지내는 모습과 대화가 생각난다. 그는 그 후 인천 교구의 신부를 거쳐 지금은 여주 휴양소에서 요양 중이라고 한다. 전성기에는 한국 옹기시장의 70~80%를 신일산업 옹기가 점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옹기수요량 급락과 울산에 옹기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터널가마(Tunnel Kiln) 생산 및 다량 다품종의 도전을 받았다. 2020년 현재는 신일산업 부지가 검암 역세권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면서 옹기 생산 가동은 멈추었다.

2) 아래점(연희동)

지금의 서구청에서 인천 쪽으로 계양산에서 흐르는 큰 개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그 위로 다리가 놓여 있었다. 다리를 왼쪽으로 끼고 50여 미터 거리의 개울 옆에 큰 옹기 공장이 있었다. 큰 작업장 안에 양쪽으로 독 만드는 물레가 6개쯤 있는 것으로 봐서 작업량이 많은 공장이나 당시(1963년)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두 군데서만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잿물을 바르고 마르기 전에 손그림(手畵)을 그려 햇볕에 말리는데 방문 날이 주말인지 미군들도 와서 사진을 찍었고, 공장을 방문한 사람들도 그려 보라고 해서 그렸다. 말린 항아리들을 보관하는 작업장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가 있으며 가마가 비워지면 창고에서 항아리들을 옮겨서 가마에 채워 소성하였다. 이후 광명단 파동으로 인해 1980년을 전후로 파점했다. 참고로 인천개항과 축항의 시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윗점보다 먼저 생긴 아래점의 개점은 약 100여 년 전후로 추측된다.

3) 시루점

버스정거장 위쪽(계양산 쪽). 떡 시루 밥통을 대장(大匠) 혼자서 한 칸짜리 굴가마에서 만들었다. 시루는 옹기보다 화도가 낮은 900℃에서부터 1000℃ 사이에서 소성하였으며 마지막 불에는 소나무와 솔가지를 아궁이에 잔뜩 넣고 아궁이 입구와 굴뚝을 꼭 막아서 그릇 속에 연기가 침투되어 짙은 회색을 띠게 된다. 식소라는 흡수성이 있어서 밥을 담으면 밥맛이 좋고 오래도록 신선하다. 시루 대장은 후일 서곶점을 접고 서울로 갔다고 들었다.

점의 설립에는 입지조건, 즉 인문 조건과 자연조건이 맞아야 한다. 130여 년 전 서곶점의 입지조건은 인천개항 직후라서 인천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당시 인천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인천구읍(문학동), 부평구읍(계산동), 서곶 등이었다. 자연조건으로는 인근에 산이 많아서 연료 해결이 어느 정도 용이했으며 주원료인 점토와 약토, 재 등이 인근에서 채취되었다.

필자가 동산 중등학교 교사 시절(1967~1968년)의 이야기이다. 중학교 저학년 미술교재인 점토 공작 시간에 사용하는 점토를 서곶 할아버지가 공급했다. 점토를 어디에서 채취했냐고 물었을 때 바닷가 개흙 밑의 점토층을 파서 많은 양을 채취했다고 말했다. 점토의 색깔은 엷은 황색(산화제1철; FeO)을 띠고 있으며 불순물이 매우 적었다. 1200℃ 정도에서 소성했을 때 소지 색이 짙은 갈색의 옹기 색깔을 띠었다. 점토에 염분이 함유되면 화도가 낮아지며 소결 온도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육로로 인천에 판로가 있고 해로를 이용해서 인근 도서지역이나 해주 등에 공급할 수 있었으니, 교통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인문 조건으로 볼 때, 서곶 지역은 예부터 사람이 거주해온 지역으로 일손을 구하기가 용이했다.

5. 옹기점의 구성

점은 작업장 전부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그 구성은 움(성형장), 수비장(水飛場), 토련장(土鍊長), 창칸(건조장), 시유장(施釉場), 가마로 구분한다. 옹기점의 인원 구성은 표와 같이 구성한다. 옹기점은 보통 대장, 거나꾼, 질꾼을 포함하여 4~5명이 한 조를 구성한다.

| 옹기점 인원구성 |

대장	2인	5인	1인
거나	1인	2인	1인

가마는 '굴'이라고 하며 굴은 대개 900~1000자리 크기로 한다. 대장 1인이 1000자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양은 대개 가마 내에 11줄 재임이 80~90자리이다. 자리의 개념은 항아리의 크기와 값의 비례에 준하는 것으로 큰 항아리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하며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 자리수의 개수와 용량 |

명 칭	개수 및 용량
양(兩)자리	장 담그는 독으로 대자리의 두 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제작)
대(大)자리	한자리 (기본크기)
짝항	2개가 한자리 (물 80ℓ)
삼항	3개가 한자리 (물 60ℓ)
사항 ~ 십오항	4개가 한자리 (물 50ℓ)~15개가 한자리 (물 3ℓ)

판매액의 분배는 10으로 환산하면 주인6, 대장3, 거나1의 비율로 분배되며, 질꾼은 가마당 주인이 값을 따로 준다. 작업팀은 패장일(한 패거리)로 구성되며 일을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부역 일을 나누고 그 부역에 부수(등급)를 메겨서 일의 분담과 임금을 정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등급으로는 7부, 8부, 9부, 10부 순서로 정했다.

동삼 석 달이라고 하여 겨울 3개월 동안은 작업을 쉬게 되는데 이 때에 돈이 필요하면 선용이라 하여 주인에게 돈을 빌려 쓰고 판매의 성수기인 가을에 갚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았다. 구성원들이 옹기를 잘 만들고 가마 안에서 잘 구워져 나와야 선용을 갚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야반도주를 하여 옹기점에 피해를 주곤 하였다.

옹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대장이라고 한다. 대장의 구분으로는 같은 형태라도 보기 좋게 빨리 만드는 수대장(수품대장, 秀品大匠)과 작은 중들이, 옹패기를 잘 만드는 기술자를 '모쟁이'라고 하며, 잘못 만드는 밤대장이 있다. 점에서는 대장을 '빵빵이꾼'이라고 한다.

6. 옹기의 원료

원료인 점토를 토속어로 '질'이라고 부른다. 큰 항아리를 만들 때는 흰빛과 누런빛을 띠는 점토를 사용하고 작은 항아리를 만들 때는 갈색 또는 적갈색 점토를 사용한다. 큰 항아리를 만드는 질은 수분이 약 20% 정도의 '된질'로 만들고 작은 항아리를 만드는 질은 수분함량이 약 35%로 질게 한다. 수분을 함유한 질을 고작테미에 쌓고 깨끼로 깎으면서 자갈과 풀뿌리, 나무토막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리고 뚝메, 곧메, 감투메를 가지고 두드려서 흙덩어리를 풀어주고 수분의 분포를 고르게 하여 사용하기 좋은 질을 만든다. 제토 과정은 너무 힘든

일이어서 함께 일을 하는 일꾼들끼리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피로를 풀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소위 노동요가 불러졌다. 이 토련작업을 하는 사람을 '깍기쟁이'라고 한다. 지금은 전기 교반기와 토련기를 사용한다.

7. 성형방법의 종류와 서곶옹기의 성형과정

옹기성형방법은 크기와 기물의 형태에 따라서 수레질성형과 물레성형으로 나뉜다.

1) 수레질성형

도개와 수레를 가지고 기벽을 두들기면서 형태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기벽을 쌓는 방법에 따라 베게타렴과 쳇바퀴타렴으로 나뉜다.

① 베게타렴

도개와 수레를 사용하여 기벽을 두드려 만들어가는 것이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지방에서 사용되었으며 위에서 아래로 밀어 쌓는 방식이다. 이 기법의 장점은 큰독과 같은 대형 기물의 성형이 용이하며 단단하게 제작되는 대신, 시간 소요가 많은 것과 기물이 무거운 것이 단점이다. 왼손은 받침손, 오른손은 누름손으로 오른쪽 검지로 방아쇠를 당기듯 움직여서 질재기한 점토를 붙여나가며 도개와 수레를 이용하여 얇게 두드리며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다.

② 쳇바퀴타렴

질 재기한 점토 대신 긴 판장을 만들어 쌓은 후 베게타렴의 경우와 같이 수레질을 거쳐서 기물을 성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우 독

특한 고도의 기술이며 제작시간이 베게타렴에 비하여 많이 단축되나 큰 기물을 만들 때는 부적당하다.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사용되었다.

2) 물레성형(썰질법)

썰질법은 수레질 성형과 달리 주로 작은 기물이나 옹기의 뚜껑 등을 만들 때 쓰이는 기법이다. 물레 위에 백토 가루를 뿌린 후 밑창을 방망이로 두들겨 만든 후 길게 늘인 흙가래(목질점토)를 1~3단 정도 쌓고, 물레를 돌려가며 만드는 성형법으로 수레와 도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가죽을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와 두께가 이루어지면 근개를 이용하여 형태를 잡고 물가죽으로 전을 잡으며 정리한다. 신일산업에서 만드는 작은 옹기류는 베게타렴과 썰질 성형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곶 옹기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베게타렴 수레질 성형으로 항아리를 성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바닥판 만들기** : 반죽된 점토를 바닥에서 치대며 둥근 원형의 판장으로 넓게 편다.

② **방망이질** : 백토가루가 뿌려진 물레판 위에 바닥점토를 올리고 방망이로 고루 때려가며 일정한 두께를 만든다.

③ **바닥 점검** : 바닥 점검대로 바닥판의 크기를 정하고 표시를 한다.

④ **바닥 점토 자르기** : 표시된 바닥판의 선을 따라 밑가새로 잘라낸다.

⑤ **바닥점토 올려 세우기** : 바닥판 이외의 잘려나간 점토를 바닥판 가장자리에 쭉 돌려가며 올려 세운다.

⑥ **청태림(첫태림)** : 길게 늘여진 흙가래의 시작부분은 기물의 바닥부분에 놓고 나머지 흙가래는 옹기대장의 오른쪽 무릎 위에 얹고 첫

태림질을 시작한다.

⑦ **고역붙이기** : 바닥점토와 청태림 사이에 가늘게 늘인 흙가래를 붙여주는 과정으로 바닥점토와 청태림을 보다 견고하게 접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ㄷ'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이용하여 가는 점토가래를 밀어가며 접착시킨다.

⑧ **밑골쌓기** : 기물의 아랫부분을 쌓는 것으로 태림방법은 동일하다.

⑨ **메꿈작업** : 태림과 태림사이를 보다 완벽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검지 및 중지를 이용하여 태림과 태림사이를 줄을 긋듯이 메우는 과정이다.

⑩ **수레질** : 왼손에는 도개를 잡고 기물의 안쪽 벽을, 오른손에는 수레를 잡고 기물의 바깥쪽 벽을 함께 두들긴다. 수레질을 통해 기벽의 두께를 일정하고 얇게 만들며 원하는 형태로 성형을 한다.

⑪ **근개질** : 기물의 안쪽에는 안 근개를, 바깥쪽에는 바깥 근개를 대고 물레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형태를 다듬는다. 물레는 왼발로 끌어당기면서 회전시킨다.

⑫ **중골쌓기** : 성형방법은 밑골쌓기와 마찬가지로 3~4태림을 쌓고 메꿈 작업을 한 후 손바닥으로 대충 형태를 잡고, 수레질 및 근개질을 통해 형태를 잡는다.

⑬ **맞골쌓기** : 밑골, 중골 쌓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3타렴 정도를 태린다. 밑골, 중골과 달리 맞골은 태림질 한 후 수레질을 통해 늘려가는 것이 아니므로 흙가래의 굵기를 조금 얇게 하여 손아귀 힘을 많이 주어서 태림질이 얇게 되도록 한다. 수레질도 밑골, 중골과 달리 조심스럽게 하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⑭ **목가새질** : 맞골 수레질이 끝나면 키 점검대로 키의 크기를 정한 후 목가새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

⑮ **전 잡기** : 형태가 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을 잡는다.

⑯ **안공그레질** : 아시전이 잡히면 형태를 완벽하게 성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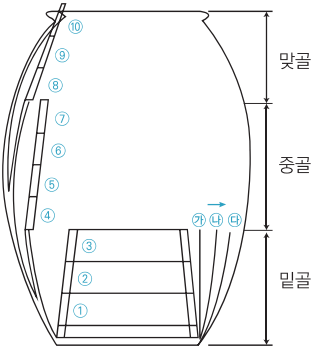
⑰ **전 잡기** : 형태가 완성되면 전을 마무리 한다. 항아리의 전은 튼튼한 넙전을 잡는다. 넙전의 끝부분은 약간 내려 앉게 성형하며 끝부분을 동그랗게 성형하여 운반 시 쪽이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⑱ **근개띠** : 성형이 끝나면 근개를 이용하여 근개띠 무늬를 넣는다.

⑲ **밑가시기** : 성형과 장식이 끝이 나면 밑가새로 기물의 바닥 부분을 곱게 깎아낸다.

⑳ **들보내기** : 성형된 기물이 소형일 경우 대나무를 휘어서 만든 들채를 이용하여 대장 단독으로 기물을 떼어내나, 기물이 대형일 경우 들보를 이용하여 거나꾼과 함께 물레에서 떼어낸다. 들보로 이동하며 약간 찌그러진 형태를 손으로 밀어내며 복원시키는 과정을 '들보 자국 낸다'고 한다.

〈 항아리 성형과정 〉



① ~ ⑩ 태림순서, $\overrightarrow{㉮㉯㉰}$ 수레질로 형태 잡는 순서

* 성형된 항아리는 높이 78 / 배넓이 60 / 아구리 42 / 바닥 38 / 전넓이 4이다. (단위㎝)

8. 성형도구

옹기에 사용하는 나무로 된 모든 도구들은 이른 봄 나무에 물이 오를 때 잘라서 만들어 사용한다.

1) 수레 : 긴 사다리꼴 모양의 나무 도구로 도개와 함께 기물의 벽을 두드려 얇게 만들면서 형태를 만들어 간다. 기물을 아시(처음)때릴 때 수레에 점토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무늬가 있는 부분으로 때리고 형태를 만들며 정리할 때는 무늬가 없는 부분으로 때려 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2) 도개(안그네, 조막) : 수레질을 할 때 기물 안을 받쳐 두드려 펴주는 역할을 하며 홈을 파서 쓰고 소나무로 만들어서 쓴다.

3) 방망이 : 밑판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두드려서 둥글고 평평하게 만드는 도구.

4) 바깥근개 : 기물의 바깥 면을 다듬는 도구로 사다리꼴 모양의 도구이다. 수레질을 한 후 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으며 형태를 성형하는데 사용한다. 오리나무로 만들어 쓴다.

5) 안근개 : 기물의 안쪽 벽을 다듬으며 성형하는 도구로 깨진 항아리의 파편을 다듬어서 사용하거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한다.

6) 밑가새 : 창 모양으로 생긴 도구로 밑판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거나 성형된 기물의 밑 부분을 정리하는 도구.

7) 목가새 : 밑가새 보다 몸통이 좁고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주로 대나무로 만든다. 목을 가셔내는 도구라는 뜻으로 기물의 전 부분을 정리해 잘라낼 때 사용한다.

8) 물가죽 : 기물의 전을 잡을 때 사용하며 성형 시 그릇 벽을 다듬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무명광목 등 물집이 좋은 헝겊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길이 30㎝, 폭 5㎝ 정도의 크기로 누벼서 쓴다.

9) 안공그레 : 큰 기물 성형 시 손이 닿지 않는 항아리의 안쪽 부분을 성형할 때 사용하는 도구.

10) 쨀줄(째줄) : 흙덩어리를 자를 때 사용하는 철사로 된 줄이다. 철사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 양끝에 손잡이를 달아 사용한다.

11) 정검대 : 기물을 성형할 때 바닥 및 높이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 나무에 홈을 내어서 눈금을 표시한다.

12) 도롱테 : 성형된 기물에 무늬를 찍는 도구로 무늬가 새겨진 원형의 점토 도장을 나무 손잡이에 부착하고 돌려가며 찍는다.

13) 뚝메(떡매, 매퉁) : 수비된 질을 30~50㎝ 두께로 깔아놓고 기포를 없애고 질의 점력을 높이기 위하여 질을 내리치고 질 덩이를 골고루 이기는 데 사용한다.

14) 곧매(꽂매) : 처음에 뚝매로만 질을 내리치다가 질이 매에 들러붙는 단점을 보완해 생겨난 도구이다. 소나무로 만들며 질이 들러붙지 않도록 밑바닥에 무늬를 넣어준다.

15) 가래 : 뚝메 및 곧매로 이겨진 질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

16) 감투매 : 뚝메나 곧매보다 크기가 작고 모양이 감투처럼 생겨서 감투매라고 부른다. 소나무로 만드는데 소량의 질을 치댈 때 쓰거나 성형 시 그릇 바닥용 흙을 물레에 놓고 넓게 펼 때 쓴다.

17) 글갱이 : 반 건조된 기물 및 잿물을 입힌 기물의 바닥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

18) 깨끼(깍개) : 낫과 비슷한 모양으로 고작테미를 깎아낼 때 사용

한다. 손잡이는 나무이고 날을 쇠로 만든다. 손잡이를 다는 방향에 따라 왼 깨끼와 오른 깨끼로 구분한다.

19) 들채 : 완성된 기물을 물레판에서 떼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로 기물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혼자 사용한다. 대나무를 휘어서 사용한다.

20) 백토가루(보토가루) : 기물을 성형할 때 밑바닥 뭉치를 올려놓기 전에 물레판 위에 뿌려 완성된 기물이 바닥에 붙지 않고 잘 떨어지도록 한다. 백토를 건조해 부순 가루이다.

21) 부드레통 : 큰 기물을 성형할 때 무너지지 않도록 서서히 건조하면서 작업하는 데 이때 숯을 담아 은은한 온도를 유지하는 통이다. 기물의 안에 설치하는 안 부드레통과 기물의 밖에 설치하는 밖 부드레통이 있다.

22) 말토막 : 큰 기물을 성형할 때 깔고 앉는 육면체의 상자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르다. 필요한 높이에 따라 말토막을 돌려가며 사용한다.

23) 잔그릇 판 : 성형된 기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판.

24) 들보 : 성형된 큰 기물을 물레판에서 떼어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둘이서 함께 사용한다.

25) 물레 : 물레용 나무는 느티나무를 사용한다. 높이가 약 50㎝로 윗박과 아랫박 모두 원판형으로 윗박은 평면이고 아랫박은 발로 밀거나 끌어 차기 편하게 표면의 끝부분이 사선이다. 아랫박의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중심축을 세우고 윗박의 바닥끝에는 회전 시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봇끝을 붙였으나 요즘에는 베어링을 사용한다.

9. 건조와 유약 및 시유

완성된 옹기는 지붕이 있어서 직사광선은 피하고 벽의 상단이 터져서 바람이 잘 통하는 건조장(청칸)으로 옮겨서 건조를 한다.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바닥이 위로 올라오도록 뒤집어서 위아래가 고르게 건조되도록 하며 옹기 바닥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도록 손바닥으로 두드려주는데 이를 '바닥 우긴다'라고 한다. 바닥을 우기지 않았을 경우 소성 후에 바닥이 불룩 튀어나와 팽이처럼 빙빙 돌기 때문이며 파손의 위험도 크다. 만들어 놓은 기물이 한 가마 분량이 되면 '가마 넣기'를 하는데, 우선 햇볕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 기물에 함유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는 소성 중 파손을 막기 위함인데 이를 '강정 한다'고 한다. 건조작업을 하는 사람을 '건화장'이라고 한다.

옹기점에서는 유약을 '잿물'이라고 부른다. 유약의 주원료는 나무를 태운 재(잡재)와 약토이다. 좋은 재는 흰 색깔이 많이 나는 것이 잘 탄(사원)것이다. 약토는 부엽토의 일종으로 인근의 산이나 밭에서 퍼서 사용한다. 유약은 약토 10삼태기에 재 14삼태기의 비율로 배합하여서 잿물탕에 물을 넣고 휘저어서 100목체에 거른다. 잿물 통에 옮겨서는 80목체에 거르고 한 달 이상을 묵혀서 사용한다. 이때 칼륨(K)과 나트륨(Na) 같은 알칼리성분이 녹아서 물이 미끈미끈해지며 유약이 부드러워진다. 재와 약토를 체에 걸러 수비 후에 비율을 측정한 결과는 재 1에 약토 2.4의 비율이며 전통가마에서 사용하는 잿물의 비중은 1.36 정도 엷다. 잿물 작업을 하는 사람을 '착수장'이라고 한다.

옹기점에서는 시유를 '잿물 친다' 또는 '잿물 입힌다'라고 한다. 옹기는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반건조 상태(수분 15%)에서 시유하여 한 번의 마침 구이로 구워 끝낸다. 소지가 완전히 건조가 되었을 때 유

약과 같은 액체가 닿으면 흙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반건조 상태로 시유를 한다. 유약을 고무래로 골고루 젖고 항아리를 유약 통에서 돌려가며 시유를 하고 시유가 끝난 항아리는 쳇다리에 거꾸로 얹고 손날로 밑바닥의 유약을 밀어내며 바닥을 닦아낸다. 다시 항아리를 반듯하게 세워놓고 전을 훑어 내며 전 부분에 묻어 있는 유약을 닦아낸다. 이는 소성 시에 가마에서 기물끼리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0. 서곶 옹기의 문양

대장이 항아리를 만들어 손띠문, 근개띠문, 목질띠문, 압인문, 도롱테문 등을 시문하면 거나꾼이 잿물을 칠 때 항아리에 손그림을 그려 넣었다. 옹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반 건조된 항아리에 잿물을 발라서 한 번에 굽는다. 이 작업은 반 건조된 항아리에 유약인 잿물을 바르면 잿물이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작업을 '그림 그린다', '환(畵)을 친다', '수화문(手畵文)', '지두문(指頭文)'이라고 말하며 이 작업은 거나꾼의 몫이다. 신일산업은 작업의 분업화로 거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원들이 맨손으로 유약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면 손이 트므로 유약 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고무장갑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로 작은 항아리에 그림을 그리면 선(線)이 곱지 못하고 지저분해져서 2007년부터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서곶 옹기의 손가락 그림은 사실상 끝이 난 셈이다.

서곶 옹기의 손그림 문양은 크게 난초문(蘭草紋)과 학문(鶴紋)으로

나눌 수 있다. 난초문은 엄지나 검지로 난 줄기를 밑에서 위로 좌우대칭이 되게 올려 그린 후 난 봉오리와 잎을 항아리의 크기에 따라서 3단, 2단, 1단으로 정하여 그려준다. 학문은 비상하는 학의 머리 방향에 따라 우(右)학, 좌(左)학, 수평(水平)학 이외에도 운학(雲鶴), 쌍학(双鶴), 좌학(座鶴) 등이 있으며 학 그림은 대체적으로 날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검지·중지·약지·소지를 경우에 따라 사용하며 몸통은 엄지나 검지를 이용하여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이 수집해서 녹청자박물관에 기증한 서곶 옹기 230여 점 중 140여 점의 대·중·소의 옹기를 추려서 문양을 분류하여 난초문 49점, 학문 40점, 기타 51점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서곶 옹기 문양의 특징인 난초문과 학문양에 관하여 시문 방법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일산업에서 옹기업에 종사해온 문재만 씨의 고증을 참고한다.

1) 난초문(蘭草紋)

난초를 현장에서는 편의상 난이라고 칭한다. 난의 구성은 보통 줄기, 꽃봉오리, 잎으로 되어있으나 난의 줄기가 없이 꽃봉오리와 잎, 또는 잎만 그리는 경우도 있고 간혹 난꽃이나 화분을 함께 그리기도 하며 겨울을 지내고 새잎이 돋는 그림도 볼 수 있다. 난은 대개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대칭이 되게 밑에서 위로 줄기를 긋고 양손으로 꽃봉오리나 잎을 좌우대칭이 되게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리는 순서와 손가락 놀림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주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며 검지를 뒤집어 손톱 부분으로 그리기도 한다.

〈사진 1〉은 밑골에서 맞골로 올려 그린 그림으로 양손의 검지를 약간 띄어서 위로 올려 난 줄기를 긋고, 폭이 좁은 밑골에는 잎만 양손으로 동시에 그리고 위로 올라가 폭이 점점 넓어지는 중골에는 꽃봉오리를 먼저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잎을 그린다. 가장 넓은 맞골에는 꽃봉오리가 더 커지고 검지가 항아리 표면에 닿는 부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잎도 넓고 크며 전 밑으로는 목이 좁아지기 때문에 잎만 그리고 있다. 오래된 항아리로서 숙련된 손그림의 구도와 필치를 엿볼 수 있으며 간결하고도 세련된 문양이라 할 수 있다.

〈사진 2〉는 검지로 그린 난으로 구성이 다소 복잡하다. 먼저 양손 검지로 난 줄기를 올려 그리면서 맨 위쪽에 잎을 그린다. 다음은 중골의 밑부분에서 대칭이 되게 꽃봉오리와 잎을 그린 후 밑골에서 다시 대칭이 되게 잎을 두 개씩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난 잎을 검지와 중지로 그렸다. 문양을 그린 순서는 유약이 흘러내린 상태로 보아서 먼저 그린 문양 위로 나중 그린 문양이 유약을 밀어내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의 효과는 손놀림이 매우 활달하며 거침이 없고 자유로우며 문양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수작이다.

〈사진 3〉은 겨울에 잎이 말라서 줄기에서 잎을 제거한 후 새봄에 꽃봉오리와 잎의 싹이 건강하게 피어나는 그림으로서 계절과 난의 표현이 재미있다.

〈사진 4〉의 난 그림은 초보자들의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난은 줄기, 꽃봉오리, 잎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진의 그림들은 줄기가 생략되거나 잎만 그리는 등 다소 치졸한 표현 솜씨를 보이고 있다.

난초문(蘭草紋)

사진 1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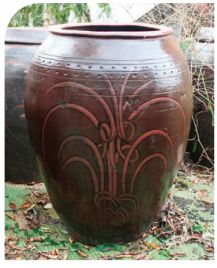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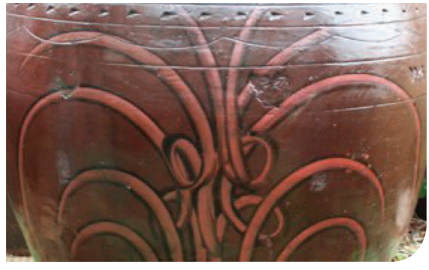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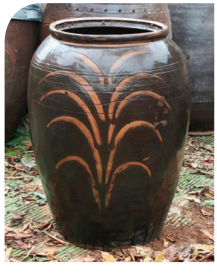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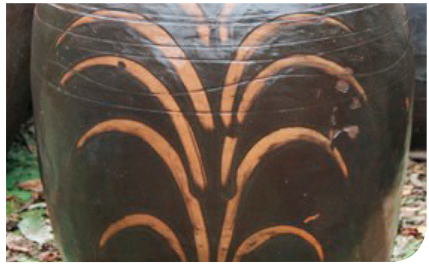



사진 3




사진 4

2) 학문(鶴紋)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곶 옹기의 문양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은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 두루미를 칭하는 상서로운 동물로서 흰색 몸통에 머리와 꼬리는 검고 붉은 벼슬과 가늘고 긴 다리를 갖고 있다. 천년을 산다는 속설 속에 예부터 학은 인간에게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학 그림들은 바닷가에 접한 옹기점에서는 흔히 갈매기에 비해서 학을 갈매기로 부르기도 한다. 학의 종류로는 머리 방향이 좌측을 향해 나는 좌학(左鶴)과 우측을 향하는 우학(右鶴), 수평(水平)으로 나르는 학과 앉은 학, 쌍학(双鶴), 구름 속을 나는 운학(雲鶴) 등이 있다. 학을 표현할 때는 검지·중지·약지·소지를 모두 응용하였으며, 거나꾼이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주로 좌학을 많이 그리고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우학을 많이 그렸다. 그러나 한 손으로 반복해 그림을 그리게 되면 팔이 아파 손을 바꿔서 그렸다고도 하였다. 학 그림을 그리는 순서로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개를 그리고 머리와 몸통, 꼬리는 위에서 아래로 그린다.

〈사진 1〉은 먼저 날개는 검지와 중지, 약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개 선을 긋고, 엄지로 왼쪽의 머리에서 몸통, 꼬리까지 길게 한 번에 긋는다. 주홍색의 옹기 바탕과 붉은 갈색 유약 위에 거침없고 숙련된 손놀림으로 그려진 힘찬 몸통의 선은 공중을 힘차고 빠르게 비상하는 학의 형상과 어우러져 한 폭의 선화(禪畵)를 보는 듯하다.

〈사진 2〉는 구름 속을 자유롭게 나는 선학(仙鶴)의 비상하는 모습으로 구름을 표현한 선들에 몸통만 그으면 곧 학이 될 것만 같다.

〈사진 3〉은 엄지만으로 그린 학으로서 양쪽 날개와 몸통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손톱 모서리 끝에서부터 손가락의 바닥으로 돌려가면서 그린 그림이며, 마지막에 비상하는 학의 머리와 몸통, 꼬리를 짧게 그렸다. 간단하면서도 강렬하며 선으로 비상하는 학을 힘차게 표현하였다.

〈사진 4〉는 검지, 중지, 약지로 순식간에 그린 그림으로 힘과 속도감이 느껴진다. 학의 양쪽 날개와 머리에 이르는 목, 몸통, 꼬리 등이 도식화(圖式化) 되어 있으며 선과 선이 겹쳐서 그려져 학이라는 이미지 전달이 분명하다. 학 그림의 구도나 유려한 필치, 표현방법, 효과 등은 마치 추상화를 보는 듯하다.

〈사진 5〉는 엄지를 뺀 네 손가락으로 왼쪽 날개를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 검지, 중지, 약지로 그렸다. 머리가 생략된 상체는 검지, 중지, 약지, 소지로 그리고 몸통과 꼬리는 검지와 중지, 약지로 그려 마치 나는 학의 뒷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 6〉의 쌍학은 수집된 옹기 중 특별한 그림으로서 검지, 중지, 약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개를 그리고 검지를 위에서 아래로 머리, 몸통, 꼬리를 그린 그림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손놀림이나 구도 및 효과가 뛰어난 그림이다. 이러한 그림은 옹기 겉면에 그림을 많이 그려 넣으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사진 7〉은 큰 항아리에 간결하면서도 힘 있고 웅장하게 느끼도록 검지와 중지, 약지로 그린 그림이다. 날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머리, 목, 몸통, 꼬리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빠르게 그렸다.

〈사진 8〉은 힘 있게 비상하는 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검지, 중지, 약지, 소지를 서로 닿지 않게 벌려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톱 쪽 끝에서 손가락 바닥 쪽으로 포물선이 되도록 팔꿈치와 어깨를 움직여 오른쪽 날개를 그리고, 왼쪽 날개는 빠르게 손가락으로 끌어서 그렸으며 몸통은 중지와 검지로 그렸으며 중지로 그릴 때 검지가 약간 닿아서 다소 가는 선을 내주었다. 또한 나는 학의 몸통을 강조하는 속도감 있는 짧은 직선을 몇 개 그려주었다. 왼쪽 날개는 아궁이의 소금이나 재티가 그릇 표면에 부착되어 부분적으로 갈색 반점이 효과를 더한 것이 나는 학의 신비감을 더하였다. 그러나 이 학 그림의 상당한 부분은 우연에 의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사진 9〉와 같이 넓고 키가 큰 항아리는 날개나 구름 같은 무늬를 옆으로 넓혀 그리고 항아리는 학문양 하단에 구름을 그려 넣어서 학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그림을 꽉 차게 채워 주는 효과도 얻는다.

〈사진 10〉은 항아리의 좌우, 상하에 구름을 그리고 그중에 나는 학을 그려서 학이 창공의 구름 속을 자유롭게 날도록 하며 항아리의 시장성을 고려해서 그림이 꽉 차도록 의도하고 있다. 우학이나 좌학은 모두가 머리의 방향을 좌우로 하여 나는데 비해 수평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학이 수평으로 날던지 앉아있는 형상의 학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평학 3점 모두 머리 부분은 좌편을 향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사진 11〉은 앉은 학이라고 한다. 그림의 표현은 검지, 중지, 약지로 삼각점을 이루어 속도 있게 머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그리고 검지와 중지를 팔꿈치를 돌려가면서 그리고 다음의 몸통을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넓게 펴서 팔꿈치를 돌리고 치켜서

몸통과 꼬리 부분을 그렸다. 앉은 학이라고 증언해 주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그림이다.

〈사진 12〉는 수평으로 나는 학으로 검지, 중지, 약지를 간격을 넓게 띄어서 위에서 아래로 몸통을 먼저 그리고 난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목과 손가락을 돌려가면서 몸통을 두 번 돌리고 몸에서 머리와 부리 방향으로 약지를 내려 그었다. 이때 소지가 약간 머리 윗부분에 닿아서 가늘고 짧은 선을 만들었다. 같은 굵기의 선으로 손가락의 방향과 항아리에 닿는 부위의 조절로만 복잡한 몸통과 단순한 날개, 꼬리, 머리 부분의 표현이 기막힌 발상으로 현대 문양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겠다.

학문(鶴紋)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학문(鶴紋)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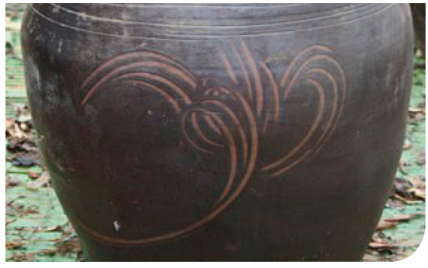



사진 6




사진 7




사진 8




학문(鶴紋)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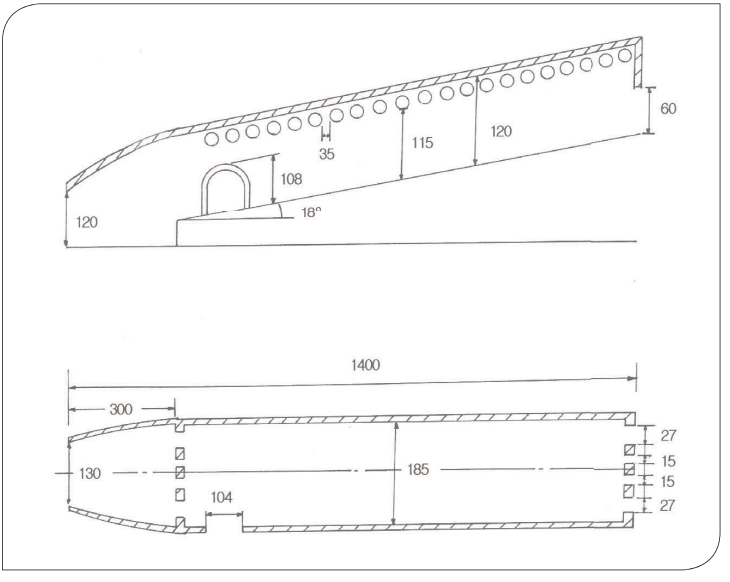


사진 12



11. 가마와 고사의 의미

가마는 통칭으로 '굴'이라고 부르며 순수한 우리말이다. 보통 가마는 길이가 1400㎝, 폭 185㎝, 높이 148㎝이며 18° 정도의 경사가 있는 긴 굴의 형태이다. 가마의 양쪽 옆으로 창불구멍이 20여 개씩 있으며 기물은 봉통 옆에 있는 입구를 통해 들여 넣는다. 가마도구로는 기물의 수평을 잡는 수평자, 경사진 바닥에서 기물을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바닥을 고여 주는 내화토로 만들어진 고염돌, 기물과 기물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공뚜껑과 왕모래 등이 사용된다.



굴가마의 구조

가마에 옹기를 재임하는 일은 마지막 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가마재임이 끝나고 불을 때는 일은 옹기점의 축제이자 휴식기간이다. 3~4일간 불을 때는 기간은 온갖 정성과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움불, 중불, 큰불, 창불 등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불을 땔 때 깜박 졸아서 한 고물을 놓치면 옹기가 익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주인)는 마지막 불 때는 일을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술, 떡, 돼지머리 또는 북어 등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고사를 지낸다. 이 때 돼지 머리의 입, 코, 귀에 돈을 꽂는데 이 돈은 불 때는 대장 몫으로 3~4일간 불을 때면서 간식값으로 지불된다. 때로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굿을 하는 곳도 있으며 이 행사는 노동제이다.

12. 가마재임 및 소성

가마재임은 가마의 제일 뒷부분인 굴뚝 부분부터 서려서 밑으로 내려온다. 재임 순서는 밑자리, 중통, 꼬동 순서이다. 밑자리 위에 재임하는 것은 모두 '꼬동친다'고 하며 중통도 일종의 꼬동인 셈이다. 밑자리는 가마 바닥 위에 바로 세우는 큰 기물로 가마의 바닥이 경사져 있는 관계로 고염돌을 이용하여 수평을 잘 잡아야 위로 기물을 안전하게 재임할 수 있다. 고염돌은 내화토로 주먹만 하게 뭉쳐서 구운 것으로 경사진 가마 속에서 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수평을 잡는 기능을 하며, 그릇 밑바닥에 고루 불길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기능도 있다. 밑자리의 수평을 잡을 때에는 약간 뒤로 넘겨지도록 수평을 잡는데 이는 소성 시 앞부분이 먼저 익으면서 앞으로 쏠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밑자리 속에는 왕모래를 뿌리고 작은 속 기물을 넣을 수 있으나 기물에 왕모래 자국이 남아 소비자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속 기

물을 넣지는 않는다. 수평이 잡힌 밑자리 그릇 위에 공뚜껑을 올리고 왕모래를 뿌려준 후 뚜껑을 덮고 다시 왕모래를 뿌리고 뚜껑을 뒤집어 올려놓는다. 그 위에 모래를 뿌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가마의 천정 부분까지 꼬동친다.

이렇게 적재된 한 줄(밑자리, 중통, 꼬동)의 모양을 '한동가리'라고 하며 한동가리가 가로줄로 가마의 한 줄을 채웠을 때 '한 벌'이라고 한다. 한 벌 한 벌 가마를 채워 불통 부분까지 재임이 되면 가장 앞쪽인 불통 부분에는 불메기 그릇을 놓는다. 불메기 그릇은 불통에서 일어나는 강한 불길을 일단 막아 불길이 그릇에 직접 닿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작으로 인한 재티가 다량으로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귀하게 쓰이지 않아도 되는 기물을 사용한다. 재임이 끝이 나면 가마 문과 창불 구멍을 막고 황토를 발라 외부의 찬 공기가 가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서곶 옹기점에서는 피움불, 중불, 큰불, 창불이라는 소성용어를 썼다. 피움불은 가마에 최초로 불을 지피는 것을 말하며 불통 좌우에 나누어 피우는 경우와 가마 입구에 가로로 길게 피우는 방법 등이 있다. 피움불은 가마 속의 냉기와 날 그릇의 습기를 제거하는 목적이 있으며 약 36시간 정도 작은 불꽃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소성한다. 불통의 입구가 큰 관계로 외부의 찬 공기가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통의 윗부분을 함석으로 막아놓고 소성한다.

중불은 피움불 보다 약간 세력이 커진 불길로 가마의 온도를 서서히 높여나간다. 불통의 좌우 가장자리로 나무를 투척하여 가마 안의 온도가 고르게 상승하도록 한다. 약 36시간 정도 서서히 불길을 키워가며 소성하는데 가마통에 열이 가해짐에 따라 그릇 표면에 덮여있던 검댕이가 차차 열에 의해 연소되는데 이 과정을 '배낌불'이라고 한다. 불통에는 연소되지 못한 숯이 차츰 쌓이게 되는데 불통 입구에 땅을

파고 설치한 송풍기를 이용하여 숯을 연소시켜 가마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숯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검댕이가 벗겨지면 본격적으로 큰불이 시작되는데 장작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불 때기 과정이다. 가마통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도록 약 24시간 정도 쉴 새 없이 장작을 투입한다. 앞부분의 창불 구멍으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굴뚝 부분에 있는 기물의 검댕이가 벗겨졌을 때 창불로 넘어가게 된다. 창불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불통에 장작을 가득 넣어 온도를 상승시키는 과정을 '네 길목 한다'고 하며 불통을 반쯤 흙벽돌로 막는다. 창불을 때면서 가마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쯤 막힌 불통에 계속 장작을 넣어주는데 이를 '뒷게본다'라고 한다.

불통에서 뒷게보는 동안 창불로 넘어간다. 창때기를 열어보아 기물이 말갛게 잘 구워졌는가를 확인하고 덜 구워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창솔을 넣어 완전히 익힌다. 기물이 잘 구워졌는지는 수십 년간의 가마 소성 경험으로 확인하며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불길이 잦아들길 기다렸다가 가마 속이 말갛게 되었을 때 작은 나뭇가지를 넣어서 불길이 솟게 하며 그 불길에 반사되는 기물의 표면을 확인하여 완성도를 확인한다.

창불은 넣는 위치에 따라 저탱이(가마의 벽쪽), 단속(기물의 아래쪽), 깊은속(가마의 중심부분), 짓 걷는다(가마를 가로지르는 창솔)라고 한다. 창불 작업이 끝난 창불 구멍은 창때기를 덮고 황토흙으로 막아주어서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후 다음 창불 구멍을 열고 창불 때기를 반복한다. 창불은 가마의 양쪽,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행하여지며 가마 굴뚝으로 갈수록 창솔 나무가 많이 소요된다. 약 12시간 정도 소성한다. 4~5일간의 불 때기가 끝이 나면 굴뚝과 불통을 완전히 막고 일주일 정도 서서히 식힌 후 가마 문을 열고

그릇을 꺼낸다. 소성 온도는 온도 측정용 콘을 사용한 결과 1180℃ ~ 1200℃이었다. 가마와 소성은 책임자 '화대장'과 '화부'로 구분한다.

가마에서 꺼냈을 때 유약이 붉은빛이 많으면 약토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노란색이 많으면 재가 많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서 옹기의 기본색인 대추색에 가까운 옹기를 만들도록 했다.

13. 자리와 판매

자리는 옹기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일컫는 말로 옹기가 구워져서 굴 밖으로 꺼내어진 후 항아리의 크기로 자리에 따라서 값을 정한다. 큰 항아리 1개를 한자리로 기준하며 크기는 대략 다음과 같으며, 옹기 대장의 1년 작업량이 대략 1000자리이다.

| 한자리의 크기 | (㎝)

구분	밑지름	아구리	배지름	높이
크기	40	56	67	85

아무리 잘 만든 옹기라도 좋은 값에 팔려야 하고 팔아야 한다. 운반 수단이 지금과 같지 않은 예전에는 지게에다가 걸머질 수 있을 만큼을 지고 다니며 판매하는 등짐장수에 의존하였다. 때마다 식사를 하기 위하여 쌀과 냄비, 반찬으로는 소금 한 가지만 가지고 다녔다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였는지 짐작이 간다. 지금은 시장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공급, 판매되며 운송은 짐차 즉 트럭을 이용한다.

14. 제언: 옹기박물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서곶은 녹청자와 옹기를 만든 지역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녹청자박물관도 세웠다. 100여 년 이어온 서곶 옹기의 역사가 2020년으로 막을 내렸다. 서곶은 한국 중부지역의 옹기를 대표할만한 지역이며 그 옹기들은 서곶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의 도처에 남아있다. 장과 김치 등의 발효식품을 보관했던 큰 옹기와 작은 그릇 등 핵가족화와 함께 거주지의 형태가 주택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공 주택으로 변화되어가며 옹기의 사용도 점차로 줄어들고 불필요해졌다. 20여 년 전 많은 이웃들이 토지수용과 함께 아파트로 이사하며 가져갈 수 없었던 옹기들을 버리고 가거나 깨버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 서구(서곶)와 인천의 문화유산이 모두 소멸되기 전에 아직도 옹기가 많이 남아있고 값이 저렴한 지금, 옹기들을 수집해놓아야 한다. 이것은 후일 옹기 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료와 근거가 될 것이며 후손들과 연구자들에게도 훌륭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현재 녹청자 박물관에 기증받은 서곶 옹기 약 270여 점(이부응 기증)이 보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옹기 박물관은 여럿 있으나 전문가가 보기에는 여러 지역의 옹기를 모아놓은 수집관의 수준이다. 수집관도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북부, 중부, 영남, 호남 각 지역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옹기 박물관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 '한국 종합 옹기 박물관'이 되는 것이다.

Ⅲ

서곶 옹기(甕器)의 어제와 오늘

1 태동과 형성
2 성장과 쇠퇴
3 서곶의 옹기공장들
4 서곶의 옹기장인들
5 서곶옹기의 맥을 이어가는 옹기 가문
6 서곶 옹기장이들의 삶과 애환

허문태 (시인, 인천서구문화원 이사)

Ⅲ. 서곶 옹기(甕器)의 어제와 오늘

1. 태동과 형성

1) 역사적 배경과 태동

1950년대 발행한《인천공보 서곶지방지》를 보면 "요업은 멀리 고려시대부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지금 시천동 부근에는 유명한 고려자기 제조에 사용했던 도구류와 자기 파편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원료는 도처에 풍부히 매장되어 있어 주안 제자 공장에서도 서곶 지역의 흙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서곶 지역의 질그릇과 오지그릇은 석남, 경서 등 각 동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제조하고 있다. 가마 수가 6개이고 연 생산액(生産額)이 400만으로 계산된다. 연료 수급난으로 발전상 지장이 적지 않다. 장래 연료 문제가 해결되는 날에는 요업은 본 지방의 유수한 공업으로 괄목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1] 라는 기사가 있다.

또한 서곶지역은 고려시대 중기부터 자기(磁器)와 녹청자가 구워지던 지역으로 시천동, 경서동, 석남동 뿐만 아니라 백석동, 공촌동에도 가마가 있고 도자기를 구웠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고려시대 중기부터 구워진 녹청자는, 전라도 해남과 인천 서곶에서 주로 구워졌는데 이곳 서곶에서 질 좋은 녹청자가 많이 구워졌다고 한다. 녹청자는 고려청자보다 갈색이 짙고 표면이 고르지 못해 양반층보다 중산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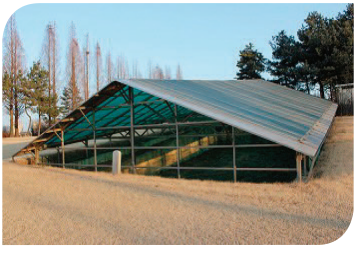
1) 현대문으로 바꾸어 씀

장식용보다는 실용을 위해 구워졌다고 한다. 서곶에서 많이 생산된 질 좋은 녹청자는 지방관아나 작은 사찰 평민들에게 널리 이용되었고,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도 서곶 녹청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1970년 6월 녹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서곶 국제골프장에서 발견되어 국가사적 277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서곶지역은 오래전부터 흙을 이용해 그릇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었고, 그릇을 만들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이 곳곳에 서려 있는 지역이다.



녹청자 가마 – 전통가마 재현



녹청자요지(窯址. 가마터)

녹청자를 빚고 구우며 지금의 서곶에서 살았던 옛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그려보며, 서곶 옹기 산업의 태동을 살펴본다.

녹청자를 굽던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으로 먹고사는 최하층의 사람들이었다. 생사여탈권이 지방관리나 주인에게 있는 노비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다. 단지 녹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 가마터를 중심으로 점말을 형성하고 정착해 사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몸이 부서지도록 질토로 쓸 흙을 채굴해 날라야 했고, 발이 뒤틀리도록 물레를 돌려가며 그릇을 만들었으며, 뜨거운 가마 속을 드나들며 땀과 검댕에 범벅이 되어 하루하루를 노곤하게 살았다.

처자식을 편하게 먹이고 가르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마누라는 부족한 서방의 노동을 돕기 위해 늘 남루한 차림으로 서방 옆에서 뒷일을 거들었고, 자식은 아버지 하는 일을 따라하다 아버지처럼 점놈이 되어갔다. 그들은 뼈가 휘도록 고된 일을 별 보상도 없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다. 오직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인과 관리에게 진상하며 자신들은 비루하게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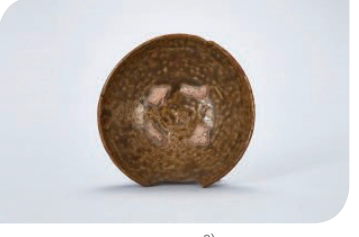
| 녹청자 연판문 항아리



| 녹청자 연판문 광구병



| 녹청자 대접



| 녹청자 접시 (발굴유물)[2)]

2) 이상 네 점의 녹청자 사진은 인천 서구 녹청자박물관에서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녹청자를 빚고 구우며 고되고 비루하게 살던 사람들은 흙이 불에 구워져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나올 때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창조고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가는 길이 고뇌 끝에 다다르는 장인의 길인지는 몰랐지만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천한 일이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누구나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을 묵묵히 제공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녹청자를 구우며 살아간 사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장인정신과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정서가 서곶 땅에 알게 모르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한 정신과 정서는 수백 년이 흘러 다시 이곳 서곶에서 숨 쉬는 옹기를 구우며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이어졌다. 서곶옹기산업은 녹청자를 구우며 살았던 선조들의 피와 땀이 오랫동안 서곶 땅에서 숙성되어 발현된 축복이다.

일제강점기 말 전세가 불리한 일본은 전쟁무기를 만들기 위해 한반도에서 쇠붙이는 모두 수탈해갔다. 무쇠 솥단지며 놋쇠 주발, 놋요강, 놋수저 등 생활용기마저 다 수탈해갔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질그릇이다. 당시 생활용기로 질그릇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릇이었다. 이 시점에 옹기기술이 뛰어난 옹기장이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서곶의 오랜 녹청자 굽던 정서와 옹기굽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이 만나 옹기가마에 불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서곶옹기가마는 활활 타올라 우리나라 옹기산업의 한 축을 담당한다.

2) 형성

(1) 위치

서곶에서 옹기가 주로 구워졌던 장소는 경서동 '윗점말'과 '아랫점말'이다. 옹기를 구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일컬어 '점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점말'이 많이 있다. 서곶 윗점말은 서구 경서동 국제컨트리클럽 골프장으로 향하는 '도요지로' 위쪽 검암역 방향이고, 아랫점말은 '도요지로' 아래쪽 아시아드경기장 방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 윗점말 내에 '윗점말'과 '아랫점말'이 있었다고 한다. 가마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가마에서 질그릇을 굽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을 '윗점말', 아래 가마에서 질그릇 굽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을 '아랫점말'이라고 하였다. 이후 질그릇과 옹기 굽는 지역이 넓어지면서 지금 불리는 '윗점말'과 '아랫점말'이 되었다.

주소로는 윗점말은 경서동 4번지 지역이고, 아랫점말은 경서동 산 18번지와 경서동 90번지, 경서동 산 90-4번지, 공촌동 54번지 지역이다. 이외에도 석남동과 백석동, 시천동 등에 소규모의 질그릇 가마가 있었으나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못했다.

(2) 지리적 조건

고잔리(古棧里)와 과기평(過騎平)으로 불린 경서동 앞 갯벌에는 시천동 방향으로 큰 갯골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갯골을 이용해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수산물 등 물품 거래가 왕성한 지역이었다. 시천동으로 연결된 뱃길로 섬사람들과 충청도 지역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북쪽 개경이나 의주 쪽 사람들도 간혹 이용했다. 1910년 이전 이 갯골을 이용해 서곶지역에서 생산된 자기, 녹

청자, 질그릇 등이 뱃길을 이용해 섬과 외지로 이동했다. 자기와 녹청자, 그리고 옹기 기술자들도 자연스럽게 왕래하다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징맹이 고개로 연결된 지금의 경명대로와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내륙으로 생산된 옹기가 빠르고 손쉽게 유통될 수 있었다.

(3) 자연조건

옹기산업이 형성되려면 먼저 주변에 옹기를 만들 좋은 질토가 있어야 한다. 질토는 입도가 미세하여 물에 풀었을 때 부유할 수 있어야 하고, 수분을 가하면 가소성(可塑性)이 발현되어야 하며, 고르게 섞어 이기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일단 건조되면 굳어져 강성을 발현해야 하며, 고온으로 소성하면 암석과 같이 굳어져야 한다.

서곶 해안선 지역은 오랫동안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형성된 갯벌지역이다.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곱게 분해 또는 풍화된 호성점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

또한 옹기를 구울 때 필요한 화목의 확보는 질토만큼이나 핵심이다. 옹기 소성(燒成)에는 아무 나무나 땔감으로 쓰지 않고 소나무를 사용한다. 소나무는 화력도 강하지만, 불꽃이 길기 때문이다. 화목으로 제일 좋은 소나무가 경서동과 인근 산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서동 지역은 야산을 따라 경사면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 가마를 만들기에 좋았고, 가마와 옹기공장에 필요한 땅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4) 시대적 조건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인들의 식량 및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화를 위한 판매처였다. 도자기 분야에서는 조선백자 생산을

말살시키고 왜사기 시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으나, 옹기시장은 오히려 전성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는 옹기(독과 항아리)가 없다. 일본은 옹기 대신 목제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옹기산업을 통제하지 않았다.[3]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봉건 사회가 붕괴되면서 기형적이나마 식민 자본주의가 싹트게 되었다. 토착지주들이 옹기장이들과 손잡고 자본과 기술을 합쳐 자기 집 인근에 옹기점을 운영하였다. 또한 옹기는 중량품인데다가 깨질 위험성이 있어서, 19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도로가 발달하지 못하여 배편이 없는 내륙 지방에서는 옹기보부상이 지게로 운반하였기에 지방 단위로 옹기 시장이 형성되어 옹기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서곶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옹기산업이 형성되었다.

(5) 옹기장이들의 유입 과정

서곶에는 조그만 가마를 이용해 소규모로 질그릇을 굽던 사람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질그릇 수요가 많았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독과 항아리 등 오지그릇의 수요가 늘었지만 기존에 질그릇을 굽던 사람들은 옹기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여 옹기공장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독과 항아리를 만들려면 숙련된 옹기기술이 있어야 했다.

옹기기술은 조선시대 천민들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시대 옹기를 굽던 사람들을 '점놈'이라고 했는데 팔천민의 하나였다. 심지어 백정들도 무시했다고 한다. 그들은 관요(官窯)에서 옹기를 만들어 궁에 공급하던 사람들이다. 옹기 일은 뼈가 휘도록 힘들고 고달프며 모

3) 송재선, 『우리나라 옹기』, 동문선, 2004. 참조

습은 차마 보기 민망할 정도로 남루했다.

그 옹기 일을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외진 산골짜기로 숨어들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했다. 그들이 옹기 기술을 이어받아 옹기를 생산하면서 옹기 기술과 옹기 생산은 자연스럽게 박해받던 천주교 신자의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박해 이후, 옹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천주교 신자들이 옹기 만들기 좋은 서곶으로 흘러들어옴으로서 서곶옹기 산업은 옹기기술을 가진 그들에 의해 형성· 발전된 특이함이 있다.

서곶으로 들어온 천주교 옹기 기술자들은 대략 네 군데에서 들어오게 된다. 첫 번째는 경상도 합천 쪽에서 용인을 거쳐 서곶으로 들어온 조금석이다. 그는 1930년대 후반 서곶으로 들어와 봉우리가마를 짓고 질그릇을 굽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함경도 의주에서 온 강몽엽이다. 의주에서 가족과 함께 월남한 강몽엽은 수원에 머물다 6.25 동란 이후 서곶으로 오게 된다. 그 후 사위 최기영과 아들 강용복과 함께 서곶옹기 산업을 이끌어가게 된다. 세 번째는 손병재로 충청도 아산에서 가족과 함께 서곶으로 온 옹기 기술자이다. 손병재는 신일토기에서 아들과 함께 옹기기술자로 일하다 옥당도예를 개업하였다. 지금 그 자손들이 서곶옹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조부가 황해도 연백에서 온 안인배이다. 옹기 사업은 비록 늦게 시작 했지만 뛰어난 수완으로 공장을 운영하여 서곶옹기 산업의 전성기를 함께 했다. 이들은 모두 천주교 신자다. 선조들로부터 옹기 기술을 이어받은 그들이 서곶으로 흘러 들어와 서곶옹기의 초석이 되었고 성장시켰으며 전성기를 이끌었다.

2. 성장과 쇠퇴

1) 초창기

1920년대부터 해방 전 1945년까지를 초창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주로 질그릇을 구웠다. 질그릇은 500℃~1,000℃ 이하에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내는 그릇이다. 가마는 에스키모인들의 집 이글루처럼 생긴 한 칸 봉우리가마에서 구웠다.

질그릇은 일제강점기하에 쇠붙이로 된 생활용기를 수탈당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수요가 많았다. 전국 어디서나 굽기 쉬운 질그릇은 많이 만들어졌다. 서곶에서도 경서동, 시천동, 백석동, 석남동 등에서 질그릇이 많이 구워졌다.

2) 성장기

1945년 이후 일제의 패망과 해방으로 생활용기들이 다시 무쇠그릇과 놋그릇 등으로 바뀌고 주거가 안정되면서 질그릇보다 장을 담그고 김치를 발효시킬 독과 항아리 등 오지그릇의 수요가 늘었다. 질그릇에서 오지항아리로 생산이 바뀌었다. 또한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 생활에 필수인 항아리의 수요가 늘었다. 1950년대 초를 기점으로 질그릇 공장들이 오지항아리 공장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새롭게 옹기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서곶옹기는 질그릇에서 독과 항아리로 바뀌며 빠르게 성장한다.

3) 호황기

1961년 5.16 군사정변과 제3공화국 탄생 이후 경제개발5개년 등 국가재건을 위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옹기산업도 호황을 이루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수도권의 옹기 수요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생산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옹기가마에서는 옹기가 쉴 새 없이 구워졌고, 공장에 기술자들도 점점 늘어났다. 1970년대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등 신소재 용기가 개발되어 옹기생산이 줄어들었으나 서곶옹기는 수도권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때 서곶옹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호황을 누리게 된다. 서곶의 옹기 사주들은 공장의 물레를 늘리고 옹기가마를 늘리며 생산을 늘려간다. 1980년대 초까지 서곶옹기공장에서는 항아리가 쉴 새 없이 구워져 나왔다.

4) 쇠퇴기

1970년대부터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의 등장으로 옹기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그 후 주거 생활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옹기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히 광명단 사건은 결정적으로 옹기산업을 쇠퇴시켰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옹기에서 납성분이 나온다는 소문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등 고급화된 생활용기 상품들의 출시로 대부분의 옹기공장이 문을 닫았다.

서곶에도 신일토기만 남고 옹기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신일토기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공장을 현대화하면서 현명하게 극복하였다. 재래식 옹기가마를 터널가마로 바꾸고, 연료를 나무에서 기름으

로 바꾸었으며, 확보하기 힘든 옹기기술자 문제를 옹기틀을 만들어 일정한 규격으로 표준화하면서 해결했다. 신일토기는 옹기산업의 쇠퇴기에도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줄어드는 옹기수요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5) 서곶옹기,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2010년 이후 신일토기도 차츰차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공장 가동을 줄이며 명맥만 유지하다 '검암역세권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가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공장자리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00여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서곶의 옹기산업은 막을 내리게 된다.

3. 서곶의 옹기공장들

1) 조금석과 질그릇[4)]

(1) 조금석

1912년생인 조금석(趙今錫)은 1938년 서곶 빈정촌(아랫점말)에서 질그릇을 굽기 시작했다. 조금석은 아버지 조만이(趙萬伊)의 2남3녀 중 장남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다. 조금석의 선조는 경상도 함안, 합천, 김천을 거쳐 용인으로 이주한 천주교 집안이다. 집안에서

4) 이하 조금석과 관련된 내용은 조경재(조금석의 아들)씨를 취재 · 녹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집필했음을 밝힌다. 취재는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2020.02.07./2020.06.15.)

옹기 일을 시작한 사람은 아버지 조만이이다. 당시는 옹기 기술자들이 돈을 많이 주는 옹기공장을 찾아 자주 옮겨 다녔다. 조만이도 그런 이유로 멀리 용인까지 오게 되었다. 옹기일을 하던 조만이는 안세순(安細順)과 용인에서 결혼하였다. 조금석이 11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조금석은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서울에서 떠돌며 점원생활도 하고 생선장사도 하며 살다 1933년 최마리아와 결혼하였다. 영등포에서 공장생활을 잠시 하다가 옹기기술이 있는 조금석은 옹기 일을 하기 위해 강화로 이주한다. 강화에서 여기저기 옹기일 할 곳을 찾으며 3년 정도 살다 1938년 인천 서곶 빈정촌으로 오게 된다.



故 조금석



조경재 아버지의 질그릇 공장과 깸팔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 질그릇 가마에 불을 넣다

조금석과 신현재는 형 동생하며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사이다. 신현재가 5~6세 더 많다. 조금석이 강화에서 나오기 전 신현재는 먼저 서곶 경서동 산18번지 부근에서 질그릇을 구울 가마를 만들고 있었다. 가마가 다 만들어질 무렵 조금석도 강화에서 서곶으로 나와 신현재와 합류한다.

당시 만들어진 가마는 단칸 봉우리가마로 하나의 봉긋한 가마였다. 이 가마를 둘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조금석은 경서동에, 신현재는

공촌동에 공장이 있었다. 동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거의 붙어있었다. 1938년 가을 20대 후반의 젊은 조금석과 30대 초반의 신현재가 질그릇 단칸 봉우리가마에 불을 넣음으로써 서곶의 질그릇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질그릇 공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위 사람들이 질그릇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경서동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오던 허씨 집안의 허약도 방앗간을 그만두고 질그릇 공장을 시작했다. 그 외 몇 사람이 더 질그릇 공장을 시작하여 질그릇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개 질그릇에서 오지그릇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장을 그만두게 된다. 질그릇을 만드는 기술과 오지그릇을 만드는 기술은 많은 차이가 있다. 오지그릇인 항아리를 만들려면 오랫동안 축적된 옹기기술이 필요하다. 뛰어난 옹기기술자의 확보가 옹기공장의 흥망을 좌우한다. 옹기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한 질그릇 공장들이 이때 대부분 문을 닫았다. 신현재도 이 시기에 질그릇 공장을 그만두고 농사일을 했다.

(3) 질그릇의 호황과 쇠퇴

당시 가마는 900℃ 이하에서 질그릇을 구워내는 가마였다. 모양은 지붕이 둥근 숯가마와 비슷한 단칸 봉우리가마였다. 생산량은 우마차로 2~3차 정도 구워낼 정도의 크기이다. 비록 가마는 하나지만 성형이 끝난 질그릇이 준비가 되면 두 공장에서 충분히 구워낼 수 있었다. 질그릇은 매일매일 구워낼 수도 있다.

질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드는 질그릇은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4~5단계 공정을 거친다. 그 첫 단계는 원료 질토의 채취와 대토의 준비이고, 두 번째 단계가 그릇 형태를 만드는 성형, 면을 다듬는 정면 및 장식의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인 건조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인 소성(燒成)을 거치면 완성된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무기를 만들 물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철강(鐵鋼) 부족은 심각하여 일제는 한반도의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모두 수탈해 갔다. 가정에서 쓰던 놋그릇, 놋대야, 놋요강, 심지어 놋수저까지 다 수탈해 갔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질그릇이었다. 질그릇의 수요가 늘면서 질그릇 생산이 늘어나는 시기였다. 물동이, 밥통, 단지, 자배기, 소래기, 시루 등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기는 만들어 내기 무섭게 다 팔렸다.

조금석은 생산량을 늘리며 공장을 키웠다. 조금석의 질그릇은 1944년 보국단(報國團)에 납품을 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았고 품질을 인정받았다. 보국단에 납품한 물건값의 대부분은 채권으로 받았는데 해방되고 안타깝게도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한다.

호황을 누리던 질그릇은 해방이 되고 쇠퇴하기 시작한다. 전쟁물자로 수탈되어 사라졌던 철제그릇들이 다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곶의 옹기산업은 질그릇 생산에서 오지그릇 생산으로 바뀌었다.

질그릇에서 오지그릇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질그릇 공장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만두게 된다. 질그릇을 만드는 기술과 오지그릇을 만드는 기술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항아리를 만들려면 오랫동안 축적된 옹기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옹기 기술자의 확보가 옹기공장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

조금석은 1948년 10여 년 동안 해오던 질그릇 공장을 접었다. 그리고 옹기 만드는 기술이 있던 조금석은 가마를 바꾸어 오지그릇을 굽는 옹기 공장을 시작하게 된다.

(4) 질그릇에서 오지그릇으로

조금석은 1948년 질그릇공장을 접고 '경서동 산 18번지'에 노브리가마(그 당시 서곶에서 불리어지던 가마 이름)를 만들고 항아리를 굽기 시작했다. 노부리가마는 봉우리가마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 칸마다 천장이 둥근 봉우리로 된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대포가마가 나오기 전 옹기가마 모습이다. 경사면을 따라 7~8개의 둥근 모양의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각 가마 가운데 화목을 넣을 수 있는 아궁이가 있고 위에는 작은 화목을 넣을 수 있게 작은 구멍이 있다. 연결된 둥근 모양의 가마는 밑으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불길이 서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있다. 가마는 경서동 산18번지에 약 400여 평의 대지에 지어졌다. 그리고 공장은 공촌동 54번지에 1000여 평의 규모로 지어졌다. 그러나 공장이 자리 잡기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 공장을 멈추고 피난하게 된다.

피난지에서 돌아왔을 때는 자본이 없어 다시 공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다. 옹기공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이 없어 돈을 빌려 옹기를 만들고 옹기를 팔아 빌린 돈을 갚으며 옹기공장을 하였던 시절이다. 도저히 혼자서는 옹기공장을 할 수가 없어 뜻 맞는 5명이 합자로 윗점말에 옹기공장을 짓고 다시 옹기공장을 하게 된다. 5명이 옹기공장을 시작할 때도 자본금을 댄 사람은 따로 있었다. 송현동에 살던 김철수라는 사람의 소개로 새우젓 장사를 대규모로 하는 분의 돈을 빌려 시작하였다. 그 때 새우젓 독을 구워 납품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한다.

얼마간 함께 운영하다 김요셉이란 분에게 넘기고, 조금석은 전에 하던 가마를 다시 보수하여 단독으로 옹기를 굽기 시작하였다. 6.25 동란으로 전 국토가 대부분 파괴되고 살림살이에 필요한 생활용기도 찌그러지고 깨져서 다시 마련해야 하는 시기였다. 옹기산업도 다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질그릇과 달리 항아리는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했다. 수소문을 해서 돈을 더 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옹기기술자를 모셔 와야 했다. 옹기가마 옆에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사택을 만들어서 기술자들이 숙식하며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택의 수가 8개였다. 물레를 8개 돌리며 옹기를 빚었다. 흙은 서곶지역의 흙이 고갈되어 외지의 흙을 썼다. 경기도 지역에서 화물차로 실어왔다.

생산된 옹기는 옹기공장 요적장에 크기와 종류별로 쌓아놓고 팔기도 하였지만 우마차를 이용해 인천 주안 '중앙시장' 옹기상점으로 실어 갔다. 당시 서곶에는 연희동과 검암동 그리고 백석동에 우마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옹기가 구워져 나오면 우마차 부리는 고정 운반인이 새끼와 짚으로 깨지지 않게 단단히 옹기를 묶어 주안으로 운반했다. 옹기를 실은 우마차는 새벽 4시에 출발하여 십정동을 지나 주원고개를 넘어 주안으로 실려 갔다. 아들 조경재(趙慶濟)의 증언에 의하면, 싣고 간 옹기를 모두 옹기상점에 내리고 소에게 물과 여물을 주고 나면 우마차 운반인들도 국밥집으로 가서 탁배기 한 잔에 국밥으로 든든히 배를 채웠다고 한다. 그리고 서둘러 온 길을 되돌아 경서동에 오면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다고 한다.

한창 생산량이 많을 때는 직원이 30~40명 정도 되었고, 한 달 생산량은 대략 2.5톤 화물차로 12차~15차 정도가 생산되었다. 옹기가마에서 한 번에 구워진 옹기의 양은 2.5톤 화물차로 4차~5차가 나왔는데, 대략 10일 정도면 옹기가 구워져 나오고 많이 구워낼 때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구워냈다.

(5) 옹기를 접고 깸팔이사업을 하다.

조금석은 5.16이 있은 다음해인 1962년 옹기가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옹기 일을 접는다. 그리고 깸팔이(까팡이의 경기 방언) 사업을 시작했다. 깸팔이는 깨진 옹기그릇 조각이다. 깸팔이를 수집하여 염전으로 납품하는 것이 깸팔이 사업이다.

옹기가마와 공장시설은 세를 주었다. 당시 25세인 아들에게 넘기려 했지만, 아들(조경재)은 거절했다. 아들 조경재는 일도 고되지만 기술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이 싫었다고 한다. 사주는 좋은 기술자를 구하기 위해 가마가 쉬는 겨울철이면 선금을 주어가며 기술자를 확보해야 했다. 또한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도 누군가가 와서 돈을 더 주고 빼가기도 했다. 기술자의 기술에 의해 좋은 그릇이 생산되기 때문에 좋은 기술자의 확보 여부에 따라 사주의 이익이 좌우되었다. 그래서 술 사주고 담배 사주며 기술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했다. 기술자가 근성을 부리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조경재는 그것이 싫어 아버지의 옹기공장을 이어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조경재는 아버지와 함께 깸팔이 사업을 했다.

당시 염전 바닥은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깨진 옹기조각으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전국 가마터를 돌며 깸팔이를 수집했고, 아들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깸팔이를 수집했다. 깨진 옹기조각들이 의외로 쓰레기에서 많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에는 한 말들이 술독이 많이 공급되었는데 그 술독 깨진 것들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 수집 된 깸팔이 중에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것들만 골라 짚가마니에 담아 인천항에서 각 지역 염전으로 보냈다. 깸팔이사업도 옹기사업 만큼 수익이 났지만 힘들기는 매일반이었다고 한다. 그 후로 타일이 생산되면서 깸팔이사업마저 접었다.

(6) 이후

조금석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박해를 피해 외진 곳으로 숨어 살며 생계를 위해 옹기일을 하던 선조들의 후손이다. 자연스럽게 옹기 기술을 배웠고 옹기공장을 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말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옹기공장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들 딸 7남매를 키웠다. 딸 조희재(데레사)는 성가회 수녀로 수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는 질그릇처럼 거칠고 투박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순박한 삶을 살았다. 서곶에 질그릇 가마를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25년여를 이끌어 오면서 서곶옹기가 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옹기와 깸팔이 사업을 그만둔 조금석은 성당일에 전념하며 말년을 보내다 1986년 가을, 꿈을 꾸고 꿈을 이룬 경서동에서 생을 마쳤다.

2) 신일토기와 최기영[5)]

(1) 최기영

신일토기 사주 최기영(崔基永)은 1932년 경기도 김포 양곡 마산리에서 최무길(崔武吉)과 이청학(李淸學)의 3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어린 시절을 빈농의 아들로 가난 속에 자랐다. 다만 천주교 신자인 선조들이 김포 양곡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살아서 천주교 신앙 속에 집안일을 챙기고 아버지 농사일을 거드는 속 깊은

5) 이하 신일토기와 최기영에 관련된 내용은 2020.03.03. 최기영을 취재 · 녹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집필했음을 밝힌다. 신일토기와 최기영에 관한 내용은 2020.10.17. 최경호(최기영의 아들)씨를 취재 · 녹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했다. (최기영은 이 책이 발간되기 직전인 12월 19일 영면하였다. 취재에 응해주고 환대해 준 고인께 감사드린다.)

아이로 성장했다. 15살되던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혼란스런 시기와 6.25 동란으로 젊은 시절을 시대적 아픔과 함께 해야만 했다. 당시는 대다수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대에 뿌리를 내리려고 각자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던 혼란스런 시절이었다.

최기영은 서울 홍재동에서 과자 장사를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옹기가 많이 판매되는 인기 품목이란 소문을 접하게 된다. 옹기를 직접 만들면 더 많은 수입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1953년 서곶 윗점말을 찾아왔다. 그리고 1년여 동안을 김요셉의 공장에서 옹기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체험하고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다음 해인 1954년, 후에 장인이 된 강몽엽이 일하던 김용운의 옹기공장을 외상으로 인수한다.

청년 최기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옹기공장에서 일을 했다. 옹기일은 힘든 일이다. 너무 힘이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했다. 그러나 최기영은 옹기에서 희망을 보았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문도 많은 법이니 힘든 것만 극복하면 전망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옹기일을 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정직했다. 자신감을 얻은 최기영은 얼마 후 김포에 있는 선친의 땅 일부를 팔아 김요셉의 옹기공장도 인수하게 된다.

최기영은 오직 자신의 열정만 믿고 서곶 경서동 윗점말에서 옹기산업에 뛰어 들었다. 당시 집안에서는 옹기 일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그러나 최기영의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서곶 윗점말에서 최기영은 옹기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평생을 옹기와 함께 하게 된다.

① 옹기장인의 딸과 결혼하다

최기영의 옹기공장에 옹기대장 강몽엽(姜夢燁)이 있었다. 강몽엽은 평안도 의주에서 옹기 일을 하던 사람이다. 해방되고 1948년 아내와 어린 오남매를 데리고 월남했다. 배를 타고 밤중에 인천으로 들어온 강몽엽은 인천 대신, 옹기가마가 있는 수원 봉담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여 수원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포탄 속에서 살 수가 없어 수원을 떠나 인천 서곶 윗점말로 오게 된다.

강몽엽은 1950년대 초 서곶옹기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 때 그 공장을 인수한 젊은 최기영은 강몽엽의 딸 강수자(姜壽子)와 결혼하여 2남 3녀를 낳았다. 이후 최기영은 월남한 장인 강몽엽의 식구들을 모두 보살피며 함께 살았다. 큰 처남 강용운(시몬)은 1964년 신부로 서품 받았고, 작은 처남 강용북은 신일토기의 전무로 신일토기에서 함께 일했다.



| 최기영



| 좌측 상단이 최기영의 부인 강수자

②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다

최기영은 열정적인 사람이다. 무엇을 하고자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성취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또한 진

취적이고 통이 큰사람이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옹기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늘 큰 그림을 그리며 공장을 운영했다. 옹기기술자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나 재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공하였다. 사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썼다.

공장을 시작하고 최기영은 잠도 줄이고 오직 공장에서 일만 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빈 공장에서 물레를 정비해 놓고, 수비장(水飛場)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을 청소했다. 밤 12시가 돼서야 최기영은 잠자리에 들었다. 잠깐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새벽 세 네 시였다. 눈을 비비고 서둘러 공장으로 나왔다. 그리고 직원들이 출근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질토를 곱게 매질해 놓고, 흙 타래미를 만들어 놓고, 화목을 쪼개어 가마 옆에 수북이 쌓아 놓았다. 혈기왕성한 최기영은 6~7년을 꼬박 그렇게 공장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 신일토기는 초기 최기영의 열정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산을 하게 되었다.

생산량이 늘면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가마를 봉우리가마에서 대포가마로 바꾸고 가마를 하나 더 만들어 생산을 늘렸다. 또한 기술 좋은 옹기기술자들을 선금을 주고 최대한 확보하였다. 부족한 질토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전라도에서 질토를 실어와 사용하는 등 신일토기를 수도권 옹기산업의 대표주자로 만들었다.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며 고집이 센 최기영은 그렇게 신일토기를 성장시켰지만 주변 사람들과 갈등도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하려면 늘 있는 성장통이었다. 대립하고 갈등하다가도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면 다시 이웃으로 정겹게 지내게 된다.

최기영은 위기가 닥치면 더 강해졌다. 70년대 말부터 옹기산업에 위기가 왔다.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의 출현은 생활용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고 옹기는 그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그리고 옹기기술자들의 이직과 화목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또 재래식 가마의 생산

한계 등으로 옹기산업은 쇠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기영은 공장을 현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 이후 닥친 광명단 사건도 당당히 이겨내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는 공장일 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섰다. 천주교 신자인 최기영은 옹기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성당 일에 적극적이었다. 초기 서곶공소를 이끌어 왔고 서곶공소가 서곶성당(현 검암동성당)으로 승격하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천주교 인천교구 발전에도 헌신했다. 또한 가족들이 신부, 수녀가 되도록 아낌없이 뒷바라지해, 집안에서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탄생했다. 어릴 때부터 돌본 6촌 동생이 인천교구 제2대 교구장인 최기산(보니파시오)주교이다. 또한 처남 강용운(시몬) 신부는 초기 인천교구 신부로 인천교구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여동생 최베드루 수녀는 현재 중국에서 선교수녀로 일하고 있다. 신일토기에서 일하던 옹기기술자들도 대부분 천주교 신자였다. 아무리 일이 많고 할 일이 밀려있어도 그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일요일은 항상 쉬었다.

또한 서곶 지역 발전을 위해 녹지회에서 활동하고, 서인천장학회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도록 끝없는 애정을 보였다. 6.25 이후 어려웠던 시절 서곶에 옹기공장을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초기 서곶지역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초석이 되었다. 최기영은 70년 가까이 한우물만 판 열정의 옹고집, 옹기장이로 살았다.

(2) 신일토기(산업)

창립 : 경서동 윗점말에 옹기가마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51년 1.4후퇴 이후이다. 조금석을 비롯한 다섯 명이 피난지에서 돌아와 힘

을 합해 가마를 만들고 옹기를 구웠다. 주로 새우젓 독을 구웠다. 이후 가마를 새롭게 개조하며 옹기를 구웠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하지는 못했다. 이후 김요셉이 인수하여 운영했다. 비슷한 시기에 김용옥도 근처에서 옹기공장을 시작했다.

최기영은 김요셉의 공장에서 일을 하며 옹기가 생산되는 과정과 옹기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질토나 화목 그리고 기술자 등에 관해 철저히 배우고 공부했다. 또한 옹기 산업의 전망은 어떨지 따져보고 또 따져보았다. 최기영은 옹기산업에 젊음을 바쳐도 후회가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954년 김용옥으로부터 공장을 인수받아 옹기공장을 시작하게 된다. 최기영의 나이 25세 때였다. 그는 이후 김요셉의 공장도 인수했다.



초기 윗점말 전경



1960년대 신일토기에서 생산된 옹기

성장기 : 1950년 한국전쟁으로 온 나라가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국가 기반시설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집과 건물도 파괴되었다. 집안 살림살이도 다 찌그러지고 깨졌다. 특히 집집마다 필수품인 독과 항아리가 전쟁으로 대부분 다 깨지고 없었다. 당시 어떤 미군은 멀리 있는 장독을 M1 소총으로 쏘아 깨뜨리고 독이 깨지면서 흘러나오는 간장을 보며 통쾌해 했다고 하니 그걸 당한 사람의 분노와 처량함이 어떠했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온 천지에 생명의 싹이 솟아나듯 전쟁의 처참한 폐허 속에서도 다시 원상을 회복하려는 뜨거운 가슴들이 용솟음쳤다. 특히 생활필수품인 항아리는 빠른 속도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1954년 창업한 신일토기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옹기 생산이 차츰 차츰 많아졌다.

옹기공장의 핵심은 항아리 굽기에 좋은 질토를 확보하는 일이다. 최기영은 서곶지역을 샅샅이 뒤져 질토를 찾았다. 가까운 곳에서 좋은 질토를 확보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최기영은 근처에 좋은 흙을 찾아 밤낮으로 산과 들을 뒤졌다. 긴 고생 끝에 마침내 좋은 흙을 찾았다. 1959년 현 서인천 고등학교 앞 밭에서 옹기를 구울 수 있는 좋은 질토를 발견했다. 당시 밭주인이었던 정병섭(鄭炳燮)[6]의 증언에 의하면 흙의 색깔은 약간 회색빛이 돌다가 쌓아 놓고 오래 있으면 흰색으로 변했다고 했다. 흙은 인절미처럼 차졌고 삽으로는 팔 수 없어 특별히 만든 곡괭이로 팠다고 한다. 이 흙은 약 5~6년 정도 썼다고 한다. 옹기 굽기 좋은 흙을 확보하고 공장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옹기를 만들 옹기 기술자들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

6) 이하 정병섭과 관련된 내용은 2020.02.26. 정병섭씨를 취재 · 녹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집필했음을 밝힌다.

하며 모집했다. 멀리서부터 기술 좋은 옹기장인들이 신일토기에 들어오면서 신일토기는 빠른 성장을 한다.



정병섭 자신의 밭에서 채굴된 점토에 대해 구술하고 있다

호황기 : 1960년대 초기부터 옹기(주로 항아리) 수요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다. 질그릇을 굽던 사람들도 항아리를 구울 수 있는 가마로 바꾸고 항아리를 굽기 시작한다. 질그릇 가마는 900℃ 이하에서 구워낼 수 있는 단실요인 봉우리가마가 주로 사용 되었다. 항아리를 굽기 위해서는 1200℃ 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가마가 필요했다.

신일토기는 처음부터 항아리를 굽기 시작했기 때문에 12°~15°의 경사도에 일명 노부리가마가 만들어져 있었다. 서곶에서 불리던 노부리가마는 일종의 봉우리가마다. 그러나 생산량이 늘면서 더 큰 대포가마를 만들었다.

당시는 숙련된 옹기기술자를 확보하는 일이 옹기공장을 운영하는 사주들의 핵심 과제였다. 초기 신일토기 기술자들은 최기영의 장인인 강몽엽 옹기대장과 수원에서 함께 온 옹기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어 옹기를 구웠다. 서곶토기의 옹기 기술자들은 대체로 기술이 좋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사주 최기영은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기술자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러나 성실하지 않은 기술자는 과감하게 퇴사시켰다. 덕분에 당시 신일토기는 솜씨가 좋고 손이 빠른 옹기기술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제작기법은 원형의 점토티를 한 단씩 쌓아 올려 원통을 만드는 똬리기법, 가래떡처럼 길게 뽑아 나선형으로 쌓아 올라가는 타래기법, 널따란 판장형태로 원형을 만들어 올려놓는 쳇바퀴 타래기법 등 다양하다. 신일토기에서는 타래기법으로 옹기를 만들었다.

강몽엽 이후 홍웅식과 1960년대 초 충청도 신례원에서 대대로 옹기를 굽던 집안에 옹기대장 손병재(孫丙在)가 신일토기에서 일을 시작했다. 손병재는 아산에서 옹기일을 하다 안성을 거쳐 신일토기로 왔다. 그의 옹기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다. 얼마 후 그의 아들 원식도 모쟁이 대장으로 신일토기에서 일을 했다. 손원식과 동갑인 권오성도 1964년부터 모쟁이 대장으로 함께 일을 했다. 박재완 옹기 명장과 황충길 옹기 명장도 잠시 신일토기에서 일을 했다.

또한 서곶에서 생산되는 질토가 다 고갈되고 더 좋은 질토를 찾을 수 없어, 멀리 전라도 지역에서 옹기 굽기에 좋은 흙을 수송해 왔다. 전라도 김제와 익산 근처 황산의 흙과 김제 흙을 주로 사용했다. 황산 흙은 점력이 약간 강하고 김제 쪽 흙은 점력이 떨어지고 규사질 모래가 섞여 있어 함께 섞어서 사용하면 좋았다. 일이 없는 겨울에 카고트럭으로 실어와 공장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일 년 내내 사용했다. 점토는 오랫동안 쌓아 놓으면 질이 더 좋아진다.

사주 최기영은 공장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게 재료와 시설을 제공했다. 당시 옹기 기술자들의 임금방식은 일한 만큼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즉 옹기를 많이 만들면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만들면 적게 받았다. 옹기 기술자들은 시간이 되는대로 옹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늘 재료와 시설이 충분하고 잘 갖추어져 있어야 기술자들이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일을 했다. 거나꾼과 질꾼들이 분주히 공장을 오가며 흙을 나르고 점토를 떡가래처럼 타래미를 만들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사주 최기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옹기를 만들었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신일토기는 해마다 생산량을 늘리며 발전해 나갔다. 예로부터 사기는 사 곱이 남고 옹기는 오 곱이 남는다는 말이 있었다. 그만큼 이문이 좋았다는 뜻이다. 신일토기도 독(甕)과 항아리가 생산되기 무섭게 팔려나갔다. 신일토기는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신일토기를 방문하여 항아리 제작과정 설명을 듣는 테이슨 로마노 신부(1969년경)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신일토기 생산 옹기

시련기 : 1970년대부터 생활용기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플라스틱의 등장과 스테인리스 그릇의 등장은 옹기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 깨지기 쉽고 무거운 옹기그릇은 점점 일상생활에서 멀어지고 그 자리를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그릇이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식생활 문화인 김장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 겨울이 되기 전 집집마다 김장을 하는 것은 연례행사 중에 하나였다. 김장을 시작하면 남자들은 의례 김장독을 묻을 땅을 파고 김장 항아리를 준비했다. 그러나 아파트 생활로 인해 김장문화는 사라지고 적은 양의 김장을 적당히 숙성시켜 냉장고에 넣고 먹게 되었다. 뒤이어 김치냉장고가 나오면서 항아리를 찾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또한 옹기의 생산에 필수였던 화목은 점점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가격이 비싸졌다. 50~60년대 우리나라는 난방과 취사를 나무로 해결하면서 산림은 황폐화되었다. 옹기업자들은 화목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화목의 가격이 비싸져서 이익은 줄어들고 힘겨웠다. 옹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 산림이 우거져서 벌목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화목을 구할 수 있었다. 서곶에는 우거진 소나무 군락이 많아 옹기공장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화목을 구할 수 없어 멀리서 구해 다 써야만 했다.

1970년대 후반 옹기업자들은 당시 제정된 산림법으로 화목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유약에 쓸 재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옹기 유약의 재는 소나무나 사과나무가 좋은데, 소나무나 사과나무를 구할 수 없어 잡목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잡목의 재로 유약을 만들면 높은 온도에도 유약이 잘 녹지를 않았다. 그래서 잡목재로 만든 유약에 적은 양의 광명단을 섞어 사용했다. 광명단이 잡재 유약이 빨리 녹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연료비나 시간, 인

건비 등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광명단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광명단(pb3o4)은 3개의 납 원자와 4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졌다. 잿물에 광명단을 섞어 옹기를 구워내면 납 성분이 항아리 표면에 남아있어 저장한 음식물에 납 성분이 녹아들고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1985년 신일토기도 광명단 사건에 휩싸이게 된다. 신일토기에 조사단이 들이닥쳤다. 조사단 중 한 사람이 잿물 통 앞에서 최기영에게 묻는다.

"광명단을 쓰고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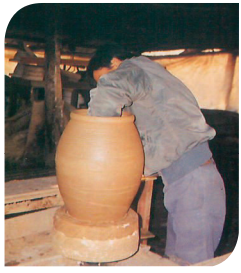
"예, 쓰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광을 내기 위해서 또 항아리를 잘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타시오."

최기영은 바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구속된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광명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물어보면 광명단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구속 된지 2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지만 최기영은 거부한다. 이 사건으로 선조들이 혼신을 다해 이끌어 온 옹기사업이,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인 옹기를 만든 사람들이 나쁜 사업과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광명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 정정 보도 신청도 받아냈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건은 정리되었지만 옹기 업자들에게는 상처가 된 아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옹기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 신일토기도 힘든 시련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





(3) 위기를 기회로 다시 타오른 불길

광명단 사건으로 많은 옹기업자들이 사업을 접게 된다. 그리고 경제적 호황기로 들어서는 80년대 옹기에서 다른 사업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로 인해 기술자들의 이직도 많았고 옹기 기술을 배워서 일하려는 사람들도 차츰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기영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사업에 매진했다.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공장에서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처남 강용복과 머리를 맞대고 밤낮으로 연구를 해가며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갔다.

첫 번째 옹기 기술자 문제이다. 옹기는 기술자에 의해 생산량과 상품의 질이 좌우되었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옹기 기술자가 필요했고 좋은 제품을 위해서는 특급 옹기 대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옹기 일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어 옹기 기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다른 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옹기 기술자들이 새로운 산업현장으로 떠났다. 힘든 옹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석고로 틀을 만들어 질토를 넣고 압착기로 찍어내는 방법이었다. 옹기 모양의 석고틀을 만들어 질토가 굳으면 틀을 벗겨내 옹기 성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옹기 기

술자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절감을 해결하고 제품을 표준화하게 되었다. 두 번째 가마 문제는 터널가마로 해결했다. 힌트를 얻은 것은 당시 도자기가 구워져 나오는 가마를 보고부터다. 터널가마는 이미 벽돌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박촌(변방리) 벽돌공장 기술자와 터널로에서 변기를 만들던 기술자를 모셔와 옹기를 구울 수 있는 터널가마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들었다 부수기를 수없이 하며 2년여 만에 터널가마를 완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료로 방카C유를 쓰면서 세 번째 연료 문제도 해결했다.

당시 옹기 산업은 광명단 사건과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용기의 출현으로 사양길에 들어섰다. 전국에 성업 중이던 500여 개의 옹기공장이 대부분 문을 닫고 겨우 100여 개 옹기공장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일토기는 옹기 기술자 문제, 가마 문제, 연료 문제를 현대적으로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오히려 호황기를 누리게 된다. 1991년에 재래식 공장을 현대식 공장으로 규모를 키워 현재에 이르게 된다. 공장의 규모는 총면적이 8,496m²(3000여평), 제조시설 면적이 3,666m²(약 1000여평) 부대시설이 301m²(10여평)이다. 당시 연 생산량은 5만 자리 정도되었다. 신일토기는 항아리 공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터널로



신일토기 공장 내부 (2020년 현재)



신일토기 전경 (2020년 현재)

(4) 쇠퇴기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아파트 생활로 바뀌면서 옹기의 사용은 급격히 줄었고 옹기의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새로운 고급재질의 생활용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옹기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60년대만 해도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었다. 돌을 2~3층 쌓아서 1~2평의 높다란 대(臺)를 만들고, 맨 뒷줄에는 금줄을 두른 큰독, 중간에는 중들이, 앞줄에는 항아리를 늘어놓았다. 가장 큰 독은 장독으로 쓰고, 중들이에는 된장, 막장 등을 담아 두었고 앞줄 작은 항아리에는 고추장 종류와 장아찌 종류를 담아 놓았다. 장독대 주변에는 봉숭아나 맨드라미가 자랐고 어머니는 날 좋은 날이면 장독뚜껑을 열어 간장을 익혔다. 할머니는 정화수를 떠 놓고 지성을 드리기도 했고, 꼬맹이들은 숨바꼭질할 때 장독 뒤에 숨기도 했다. 장독대가 추억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옹기도 우리 생활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옹기산업의 몰락은 시대적 변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것

이므로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옹기는 간장과 된장 등 발효식품을 필요로 하는 우리민족의 특성상 꼭 필요한 생활용기이다. 수요는 줄었지만 일부 옹기공장들은 끝까지 남아 그 수요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대량생산으로 수요가 넘치던 옹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던 규모가 큰 옹기공장들의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을 뒤로하고 옹기산업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대량생산으로 우리나라 옹기 산업을 이끌던 신일토기도 대부분의 옹기 생산을 줄이고 서서히 열기를 식혀가고 있다.

이미 신일토기 공장자리가 '검암역세권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곧 공장 자리도 수용되고 공장의 흔적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5) 옹고집 옹기장이의 미소

구순(九旬)의 최기영은 오래된 항아리 같은 모습으로 거실 쇼파,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창 너머를 응시하는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촉촉하다. 얼굴에 잔잔히 번지는 미소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회한이 출렁인다.

20대 초반 오직 열정 하나를 움켜쥐고 막막한 경서동 벌판에 옹기라는 나무를 심었던 최기영. 일가친척은 물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향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용감함보다 무모함이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빠지면 빠져나오고, 부딪쳐도 부서지지 않고, 막으면 뚫고 나간다. 최기영의 삶은 늘 그렇게 열정적이었다.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어려움 없이 일 할 수 있게 모든 편의를 제공했고, 항아리 만드는 재료와 시설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며, 늘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富)도 얼마만큼은 이

루었다.

허허벌판에 심은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큰 나무가 되어 넉넉한 그늘을 만들었다. 최기영은 녹청자와 자기(磁器)의 혼이 살아있는 서곶에 옹기산업을 일으켜 전국적인 생산지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옹기기술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 주었다.

오직 열정과 옹고집으로 평생 옹기를 만들어 온 구순의 최기영 회장에게 물었다.

"옹기일을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실 수 있겠어요?"

"암, 수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지! 사람을 시켜서라도 하지!"

열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옹고집 옹기장이의 미소 속에는 아직도 열정이 출렁거리고 있다. 최기영의 마음속에는 메타세콰이어가 푸른빛을 잃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듯 푸른빛의 미소가 평안하다.

공장 주변으로 하늘로 쭉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을 한동안 바라본다. 신일토기를 지켜보며 자란 메타세콰이어가 거목이 되었다. 메타세콰이어가 바람결에 휘청거린다. 곧 사라질 신일토기를 힘겹게 지켜보고 있다.

3) 서곶토기와 안인배[7]

(1) 안인배

서곶토기 사주 안인배(安仁培)는 1936년 인천 주안에서 안영춘(安榮春)과 김언련(金言蓮)의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안인배의 선조들은 천주교 신자이다. 할아버지 안경수(安京秀)는 황해도 연백 사람으로 옹기 일을 하며 살았다. 옹기 일은 너무도 힘든 일이라서 박해받던 천주교 신자들이 생계를 위해 하던 일이었다.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조불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고 천주교 박해가 끝났지만 옹기를 굽던 천주교 신자들은 옹기 일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옹기 일은 고된 일이었고 돈 벌이에 좋은 일도 아니어서 궁핍한 생활을 벗어 날 수 없었다. 안경수는 더 좋은 일자리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 뗏목배에 의지해 황해도 연백에서 인천으로 내려 온다. 안인배의 아버지 안영춘도 어린나이에 목숨을 걸고 뗏목배를 타고 내려왔다.

그러나 인천에서 자리 잡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당시 인천도 일제강점기 아래 혼란스런 궁핍한 도시였다. 일가친척은 물론 아는 사람도 없는 인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다시 황해도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다. 그러던 중 가까운 부천 소사에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사는 조그만 공동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부천 소사로 가서 자리 잡게 된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황해도 연백을 떠난 안영춘은 20대 초반 청년이 될 때까지 부천 소사와 인천 주안을 오가며 아버지를 도와 옹기일을 하고 염전 잡

---

7) 이하 서곶토기와 안인배와 관련된 내용은 안창만(안인배의 아들)씨를 취재 · 녹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집필했음을 밝힌다. 취재는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2020.02.26./2020.07.22.)

부일도 하며 부지런히 살았다. 성격이 쾌활하고 낙천적인 안영춘은 1935년 강화 처녀 김언련(金言蓮)과 결혼한다. 그리고 다음 해에 아들 안인배를 낳았다.

1910년대 초 서곶은 외진 곳이지만 발달된 갯골이 있어 새우배들이 많이 드나들고 주변에 작은 옹기가마들이 있었다. 질그릇이 구워지던 서곶으로 1945년 어린 안인배도 아버지를 따라 오게된다.

장남인 안인배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집안을 챙기며 속 깊게 자랐다. 서곶초등학교를 졸업(15회)한 안인배는 청소년기를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오직 일만 했다. 뜻 맞는 친구들과 검암, 하동, 백석의 염전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당시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실시한 사방공사에도 빠짐없이 나갔다. 그야말로 일거리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다 했다. 체구는 작았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격처럼 깔끔하고 야무지게 해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살림이 늘어났고 생활이 안정되었다. 안인배는 1957년 인천 옥련동 처녀 나운순(羅雲順)과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창만)을 낳았다. 그러나 신혼의 달콤함과 첫아들의 기쁨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군대에 갔다.

군대 3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간 이루어 놓은 재산은 아버지의 한량 생활로 다 없어지다시피 했다. 제대 후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버지의 한량 생활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한량 생활에 실망한 안인배는 홀로 자수성가의 길을 떠난다.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 보리 서 말'을 가지고 황량한 벌판으로 나선다. 당시 서곶에는 먼저 시작한 옹기공장들이 있었다. 옹기일은 선조들이 하던 일이라 낯설지 않았다. 그 당시 옹기공장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는 아니지만, 고민 끝에 그는 옹기공장을 하기로 결심을 한다. 무일푼인 안인배는 물주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중 서울 금호동에 사는 사촌

누나를 찾아가 사업 설명을 하고 승낙을 받는다.

안인배는 1961년 맨주먹으로 옹기산업에 뛰어들게 된다.

(2) 오직 젊음으로 맞선 옹기사업

간판도 없이 옹기 사업을 시작한 안인배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워 나갔다. 선조들이 옹기일을 하였고, 아버지도 옹기 공장에서 일을 한 옹기 기술자이고, 가까이 옹기공장을 하는 지인들도 있어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옹기 일을 직접 해보니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옹기 구울 흙을 구하는 문제, 가마 문제, 화목 문제, 기술자 문제 등 모든 것이 헤쳐나가기 벅찬 가시밭길이었다. 옹기 일을 하던 지인들은 이미 경쟁 상대가 되어 절벽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만 했다. 함께 시작한 사촌 누이에게 실망을 줄 수는 없었다.

20대의 젊은 혈기로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야만 했다. 개나리가 피는지 진달래가 지는지 눈만 뜨면 옹기공장에서 옹기 기술자들과 몸을 비비고 마음을 합하여 옹기를 만들고 구웠다. 그러나 온갖 정성으로 옹기 기술자들을 대접하고 비위를 맞춰도 돈 더 준다는 옹기공장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삶에 의욕도 하얗게 삭아 들었다. 그런 날은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막걸리를 마셨다. 취한 몸을 다시 일으켜 집으로 들어올 때면 들판에 하얗게 핀 개망초만이 집까지 따라오며 위로를 했다.

옹기 만들 질토를 구입하고, 화목을 구하고, 옹기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옹기 판매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어려운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촌 누이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동업이라는 것이 늘 동업자끼리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친척 간에 동업은 훨씬 많은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냥 지나갈 일도 마음에

상처를 깊게 내고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구 잘못도 아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변하고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넘고 만다. 안인배는 젊은 열정으로 일군 옹기공장을 사촌 누이에게 주고 독립하게 된다.

(3) 옹기가마에서 불태운 청춘

안인배는 연희동 사람 소유의 땅 (당시 경서동 90 번지) 약 2,300여 평을 외상으로 매입한다. 그리고 적산 땅인 경서동 산 90-4 약 400평에 옹기가마를 짓고 1965년 29세의 나이에 서곶토기를 창업한다.

가마는 옹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산의 경사를 이용해 약 12°~15°의 각으로 가마를 만들었다. 그는 너비 약 2m, 높이 약 2.5m, 길이 약 30m 정도의 대포 가마를 만들었다. 가마가 좋아야 구워져 나오는 옹기들도 좋은 상품이 된다. 가마가 나쁘면 옹기에 흠집이 생기고 옹기의 때깔이 좋지 않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깨뜨려 버려야 한다. 이런 경우 옹기 공장 주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기대에 부풀어 가마에서 첫 옹기를 꺼내는 날 안인배는 실망을 한다. 옹기에 빠꾸미[8]가 많이 생겼다.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수원에서 가마 만드는 기술자를 불러 다시 가마를 만들었다. 몇 번을 대대적으로 고친 후 제대로 된 옹기가 구워져 나왔다. 서곶토기는 안인배의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밑천으로 서서히 성장해 나가게 된다.

옹기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공장이 커지고 물레 등 시설이 늘어났

8) 옹기에 생긴 흠집을 뜻하는 말로 옹기장이들이 쓰는 비속어

다. 기술자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공장 한 쪽에 사택을 만들었다. 사택은 부엌 하나 방 하나로 작지만 많을 때는 20채 정도 되었다. 기술자는 옹기 대장을 비롯해 거나꾼, 질꾼으로 나뉘었다. 큰 항아리 만드는 기술자는 옹기 대장, 작은 항아리 만드는 기술자는 모쟁이 대장이다. 거나꾼과 질꾼은 옹기대장이 옹기를 빚을 때 뒤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다. 옹기 만드는 기술자와 직원이 점점 늘어났다. 젊은 안인배는 기술자들의 요구 조건을 잘 들어주며 애 늙은이가 되어 공장을 잘 이끌어 나갔다.

한 가마에서 나오는 옹기는 대략 2.5톤 트럭으로 10차 가까이 나왔다. 많이 생산될 때는 한 달에 2~3번 옹기를 구워냈다. 옹기가 구워져 나오는 날이 정해지면 안인배의 부인은 배다리로 시장을 보러나갔다. 옹기를 사러 오는 상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이다. 주로 인천의 상인들 특히 배다리 상인들이 많이 왔고 수도권에서도 왔다. 직원들이 구워진 옹기를 꺼내 공장 마당에 종류별로 진열을 하는 동안 옹기를 사러 온 상인들은 공장 한쪽에 모여 앉아 마작을 하며 기다렸다. 안인배는 옹기를 사러 오는 상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인들과 신뢰를 쌓았다. 특히 배다리 상인회 회장인 일명 바가지 김씨하고는 형제처럼 지냈고 가끔 배다리를 가면 오래도록 머물다 그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옹기를 빚고 가마에 옹기를 가득 채우면 드디어 불을 지핀다. 그때가 가장 긴장이 되어 온 신경을 다 써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직원들은 옹기가 잘 구워지라고 고사상을 가마 입구에 놓고 절을 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시끌벅적하지만 안인배는 말수를 줄이고 가마만 응시한다.

처음 피움불은 이틀 정도 피우면서 가마 속의 습기와 냉기를 제거하면서 서서히 온도를 높인다. 그 다음으로 돋군불을 피우는데 약 30

시간 정도 지속된다. 이때 가마 속 날 그릇의 표면은 완전히 붉은색이 된다. 그 다음 피운 불을 베낌불이라고 하는데 불길이 가마통 속을 완전히 메워 그릇과 가마통이 불길에 달궈지고 그릇 표면에 덮여 있던 붉은 색은 차차 열에 의해 연소된다. 그리고 큰불이 들어간다. 가마의 온도를 1200℃까지 올리는 작업이다. 안인배는 이때 가마 속에 용솟음치는 불길을 넋을 잃고 바라다본다. 용솟음치는 불길 속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불길의 용솟음에 안인배는 가난과 고달픔, 좌절과 절망, 괴로움과 분노를 모두 태워 버렸다. 그리고 용솟음치는 불길 속에서 길을 찾았다. 그는 늘 큰불을 지피고 용솟음치는 불을 보며 내일을 준비했다.

4시간 정도 큰불을 올리고 뒷불을 한 후 아궁이와 굴뚝 작은 구멍을 막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가마를 연다. 채 식지 않은 가마에서 검게 빛나는 길을 안인배는 가슴에 새긴다. 옹기장이의 길은 흙과 불이 만나 모두를 담는 검고 깊은 그릇이 되는 거라고 알 듯 모를 듯한 생각을 언뜻언뜻하기도 했다.

(4)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

일제강점기 때부터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옹기 산업은 70년대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의 등장으로 사양길을 걷게 된다. 특히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장독대가 사라지며 옹기는 설 자리를 잃었다. 그 와중에 광명단 사건은 옹기업자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숨 쉬는 항아리는 장을 숙성시키고 김치를 발효시키는 최고의 그릇인데 항아리에서 납 성분이 나온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소비자들에게 심어진 납 성분의 항아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 무렵 전국에 400~500개 되던 옹기공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된다. 당시 수도권에서 생산량으로 상위권에 있던 서곶토기도 광명단을 피

해 갈 수 없었다. 안인배는 한 달여를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풀려난다. 의욕을 잃은 안인배는 옹기공장을 접기로 결심한다. 그는 20대 후반에 맨주먹으로 서곶토기를 시작하여 전국적인 옹기공장으로 키우고, 그 바쁜 중에도 서곶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섰다. 서곶성당 초대 회장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헌신한 안인배는 후회도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1983년 옹기일을 접는다.

서곶토기 창업주 안인배의 아들 안창만(安昌萬)은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생각난다고 한다.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니 늘 주변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한다. 공장이 자금난으로 어려울 때는 항상 주변사람들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종업원들 먹을 쌀이 떨어지면 검암정미소 정중근(鄭重根) 사장을 찾아가 외상으로 쌀을 사왔는데 심지어는 일 년치 쌀을 외상으로 사다 먹은 후 갚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를 회상하며 안창만은 아버지에 대한 아픈 마음을 내비친다.

"무일푼으로 옹기사업을 시작한 아버지는 가난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성품도 바뀌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4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을 휘어잡고 공장을 이끌어 가야했고, 주변에 같은 업종의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질고 냉정하게 살아야 했으며, 독불장군처럼 고집 부리던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는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꿋꿋이 견디며 살아간다며, 아버지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한다. 불쑥, 아버지의 옹기공장을 이어서 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뜬다.



| 故 안인배



| 안창만 서곶토기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4. 서곶 옹기장인들

1) 옹기대장 강몽엽(姜夢燁)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난 강몽엽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옹기일을 하며 살았다. 해방이후 가족을 데리고 월남했다. 수원 봉담 모샛골 옹기공장에서 기술자로 한동안 일을 했다. 6.25 전쟁으로 수원이 전쟁터가 되자, 옹기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서곶으로 먼저와 자리를 잡았다. 이후 수원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서곶으로 왔다.

강몽엽은 김용옥이 운영하던 옹기공장에서 옹기 대장으로 일을 했다. 이후 이 옹기공장을 사위 최기영이 인수했고 강몽엽은 평생 사위의 공장인 신일토기에서 옹기를 만들었다. 옹기 기술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 공장의 기술자들이 따라 배우려 했지만 아무도 그 기술을 따라하지 못했다. 신일토기에서 묵묵히 흙을 이겨 옹기를 빚으며 서곶 옹기 산업의 초석이 되었다.

2) 옹기대장 손병재(孫丙在)

손병재는 충청도 아산에서 옹기 일을 하던 사람이다. 선조 때부터 천주교 박해를 피해 다니며 옹기 일을 하던 집안이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신례원에서 옹기 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충청도 지역에 옹기 수요가 줄어 문을 닫는 옹기공장들이 늘어났다. 그때 아산을 떠나 안성 보개면에 잠시 머물며 옹기 일을 하다 서곶 신일토기로 오게 된다.

손이 빠르고 성실한 손병재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질 좋은 옹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생산해냈다. 신일토기 사주 최기영은 최고의 기술자 손병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단독주택을 사택으로 주고 온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자식들도 모두 옹기 일을 하였고 모두 뛰어난 옹기 기술자로 키웠다. 그는 1980년 신일토기를 나와 옥당도예를 만들어 아들들과 함께 도자기를 구웠다. 옹기 대장에서 도자기를 굽는 도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말년에는 도자기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아들들과 도자기를 구우며 도공의 길을 걸었다.

3) 옹기대장 홍웅식

신일토기에서 옹기대장으로 일하다 안성 보개면 양복리로 옮겨 옹기공장을 했다.

4) 모쟁이 대장 손원식(孫原植)

손원식은 손병재의 아들이다. 충청도 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천 서곶으로 왔다. 십대 때부터 옹기일을 하였다. 손이 빨라 큰 항아리

보다 작은 항아리를 주로 많이 만들었다. 작은 항아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신일토기에서 모쟁이 대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신일토기에서 나와 아버지와 함께 도공의 길을 걸었다. 각종 도예전에 도자기를 출품하여 수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다.

5) 모쟁이 대장 권오성

1949년생인 권오성은 경기도 안성 보개면에서 14살(1963년) 때 서곶 신일토기로 왔다. 안성에서 거나꾼(데모도)을 하며 옹기 일을 배웠고 인천 서곶에서는 모쟁이 대장으로 일을 했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있어 잠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열심히 항아리를 빚었다. 그는 전국 최고의 모쟁이 대장이었다. 하루에 항아리 크기에 따라 200개~300개를 만들었다. 항아리를 많이 빚을 때는 한 달에 네 번씩 가마에서 항아리를 구워낸 때도 있다. 그러나 24살 되던 해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한 자동차 일을 하기 위해 옹기일을 접고 서울로 갔다. 지금은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6) 이름과 행적이 남아있지 않은 옹기장이들

서곶 옹기공장에서 일을 하며 머물던 옹기기술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주로 사주가 마련해 준 사택에서 머물며 일을 했다. 당시 옹기공장의 사택 수가 30호 많을 때는 50호 가까이 될 때도 있었다. 잠시 머물다 간 기술자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머물며 자식들을 이곳에서 공부시키며 살다 떠난 기술자들도 많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옹기 일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며 살았다. 그리고 묵묵히 옹기를 빚고 구우며 하루하루를 축축하게 살았다.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칭

송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서곶옹기가 전국적인 옹기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도 꼭 해야 할 일이다.

5. 서곶옹기의 맥을 이어가는 옹기 가문

1) 강화 벽전도예

강화군 길상면 강화동로 74번길 50-89번지. 벽전도예가 자리 잡은 곳이다. 야트막한 산자락에 앞이 탁 트인 전망 좋은 곳이다. 벼들이 짙은 초록으로 출렁이는 들녘과 멀리 어깨동무한 산들 그 너머 바다가 있는 평안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유래 없는 긴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8월 초순 벽전도예는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 미안하다는 듯 낯선 방문객에게 몸을 낮춘다. 주인장을 꼭 빼 닮았다.

벽전도예를 운영하는 손원모(孫源模)는 4대째 이어오는 옹기장이 집안의 후손이다. 첫인상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처럼 편하게 느껴졌다. 도예장인의 권위적이고 고집스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쑥스러웠다.

"요즘은 주로 어떤 작업을 많이 하세요?"

"전통을 위주로 한 작업과 시대에 맞게 심미성을 강조하는 비정형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수요는 많은가요?"

"뭘요. 요즘은 좋은 그릇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도자기 그릇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자기 체험하며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

고 있어 조금은 희망적이지요.”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머뭇머뭇 말하는 모습에서 욕심 없이 한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의 여유와 만족이 느껴졌다.



강화 벽전도예



손원모

둥근 탁자에 앉아 막 차 한잔을 마시려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접으며 온명자와 손상현이 들어온다. 온명자는 신일토기에서 모쟁이 대장으로 일하던 손원식의 부인이고 손상현은 그의 아들이다. 손원모의 형인 손원식은 2000년부터 김포 양곡에서 옥당도예를 운영하다 2013년 돌아가셨다. 오늘 벽전도예에 모인 것은 서곶옹기의 맥을 이어가는 옹기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서구문화원에서 발행하는 향토지에 싣기 위해서다.

온명자는 옹기 일을 하는 남편의 곁에서 남편의 옹기 일을 돕고 옹기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시부모와 시동생들을 밤낮으로 모시고 챙기며 살았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옹기와 화분을 만들며 대를 잇는 옹기 집안의 안주인이다. 된장을 품고 묵묵히 발효시키는 항아리를 연상시킨다. 아들 손상현은 아버지를 이어 손씨 집안의 가업을 5대째 이어가는 젊은 옹기장이다. 손원모의 부인 김경숙이 호방한 모습으로 함께 하고, 단국대 공예대학원을 졸업한 아들 손대현과 원광대학교 도예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유학을 마친 딸 손나래가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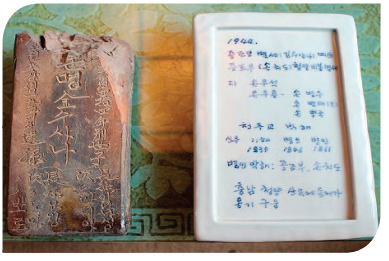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춘다. 60여 년 전에 멈춘 한

순간이 타임캡슐을 타고 눈앞에 바짝 다가왔다. 천주교 행사 중의 하나인 '성체거동(聖體擧動)'을 기념해 성모상 앞에서 손병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에서 당시를 하나하나 소환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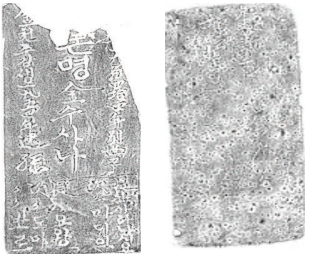


손병재의 할아버지는 충남 청양에서 옹기를 굽던 옹기장이였다. 우리나라 옹기장이들이 대부분 박해받던 천주교 신자였듯이, 손병재 선조들도 박해를 피해 깊은 산속에서 옹기를 굽던 천주교 신자였다. 신앙을 목숨으로 지키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천주교 신자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했던 옹기 일은 고되고 남루한 일이었다. 박해가 끝나고 충남 예산 신례원과 아산 지역에서 가업처럼 옹기 일을 이어오던 손병재 형제들은 더 좋은 옹기공장을 찾아 떠난다. 큰형 손병수는 영등포 염천동을 거쳐 인천 임학동에서 자리를 튼다. 그리고 장작가마를 놓고 전통 청화백자를 굽기 시작한다. 손병재와 손병국은 안성 보개면를 거쳐 손병국은 경기도 군포로, 손병재는 인천 서곶으로 오게

된다. 1964년 서곶으로 온 손병재는 신일토기에서 옹기 대장으로 일을 하며 신일토기의 전성기를 이끈다. 큰아들 손원식도 신일토기에서 모쟁이 대장으로 일을 하게 된다.



김수사나 묘지(墓誌)
– 증조모 이장 때 발견된 유물.
옹기 질토에 글씨를 써서 구워서 만들었다.



탁본사진 (우측 : 앞면, 좌측 : 뒷면)
뒷면은 글자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김수사나 묘지 좌측 측면과 탁본



김수사나 묘지 우측 측면과 탁본



인천, 화성, 여주에서 가업을 잇고 있는 손병재의 가족들

2) 신일토기에서

손병재는 1964년 신일토기에서 옹기대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옹기 기술이 뛰어나고 성실한 손병재는 사주 최기영이 아끼는 옹기기술자로 특별대우를 받았다. 딸린 식구가 많아 사택도 일반 단독주택을 주어 오직 옹기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주었다. 1960년대는 옹기와 항아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대였다. 장을 담그고 김장을 담그는 시절이면 옹기와 항아리가 만들기 무섭게 팔려나갔다. 발로 물레를 돌리며 가죽 방망이로 질토를 두드려 밑판을 만들고, 흙타래미를 이어 붙이고 안과 밖을 두드려 종일 옹기를 만들면 팔, 다리, 어깨.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아팠다. 그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며 40대의 숙련된 옹기장이 손병재는 신일토기의 옹기 생산을 이끌었다.

큰 아들 손원식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옹기기술을 배웠다. 아버지를 빼닮은 손원식도 착하고 성실한 옹기장이였다. 처음에는 아버지 일을 도우며 옹기 일을 시작했지만 손이 빠르고 눈썰미가 좋은 손원식은 작은 항아리를 만들며 일을 배워 모쟁이 대장이 되었다. 작은 항아리의 수요가 특히 많아 모쟁이 대장은 당시 옹기공장의 핵심 기술자였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일 욕심이 많은 손원식은 동이 트면 라면 한 봉지를 들고 공장으로 가서 항아리를 빚었다. 물가죽 방망이로 찰진 흙을 두드려 흙을 깨우면, 깨어난 흙이 하나 둘 항아리가 되어 쌓였다. 어둠으로 빼곡했던 서곶 벌판도 찰싹찰싹 흙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 찬란한 아침을 맞이했다.

손병재와 아들 손원식은 우직한 옹기장이로써 서곶 옹기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서곶 옹기의 맥을 후손에게 이어 주었다.

3) 옹기에서 도자기로

1980년 손병재의 8남매중 다섯째인 손원모는 30대 초반 검암동 257-13에 약 400평의 '옥당도예'를 열고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다. 도자기는 옹기와는 제작과정이 다르다. 약 950℃에서 초벌 소성을 하고 다시 유약을 시유한 후 1250℃에서 구워낸다. 옹기가 서민들의 생활용기라면 도자기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거나 고급 생활용기로 쓰인다. 시대적으로 옹기는 쇠퇴기에 들어서고 도자기가 새롭게 부각되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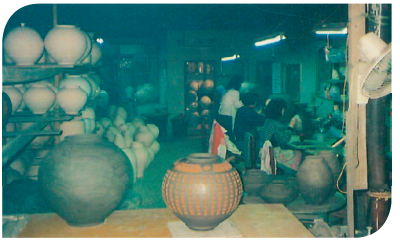
1958년에 태어난 손원모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하는 옹기 일을 곁에서 지켜보며 흙을 가지고 놀며 흙과 함께 자랐다. 그릇 빚는 일에 남다른 재주를 보여 한시도 흙을 떠난 적이 없는 흙쟁이다. 1978년 여주 한양요업 회화과에 입사하고, 한양대 동양화과 특별과정에서 묵농 허석순 선생의 사사를 받으며 동양화 공부를 했다. 그리고 흙에 혼을 넣어 불의 심판을 받는 도예의 길을 걷는다. 손원모는 1982년 '한국전통예술대상전'에서 '도화'로 금상을 수상하면서 각종 공예품 대전과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도예 장인의 길을 가고 있다.

신일토기에서 옹기 대장으로 일하던 아버지도 신일토기를 나와 옥당도예에서 일을 하게 되고, 잠시 용인에서 모쟁이 대장을 하던 형 원식도 합류하여 옥당도예를 이끌어 갔다. 서곶옹기의 맥이 자연스럽게 도자기로 흘러가게 된다.

80년대와 90년대는 도자기 산업이 호황기였다. 청자와 백자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대로 좋은 값에 팔려나갔다. 옹기 기술이 있는 형제들이 모두 옥당도예에서 함께 일을 했다. 그리고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바쁜 일을 함께하며 도자기를 구웠다. 이 시기 서곶에는 많은 도자기 공장들이 생기고 인천의 도자기 산업을 이끌었다. 손원모는 85년

결혼을 하고 옥당도예를 형에게 넘겼다. 그리고 서구 경서동 1-8번지에 대지 500평 건물 100평규모의 '벽전도예'를 다시 창업하고 청화백자와 현대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곶에 도자기 고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IMF가 터졌고, 도시구획사업이 실시되면서 도자기를 굽던 많은 사람들이 서곶을 떠나야만 했다. 대부분이 도자기 산업이 활발히 일어난 여주와 이천으로 떠났다. '옥당도예'는 김포 양곡으로, 동생 손원교는 여주로 떠나 '토어도예'를 창업하게 되었고, '벽전도예'는 강화로 이전했다.



벽전도예 작업 모습



옥당도예 작업 모습

4) 김포 옥당도예

도시구획정리 사업으로 검암동 '옥당도예'가 수용되면서 손원식은 2000년 김포 양곡으로 옥당도예를 옮겼다. 옹기 성형 기술이 뛰어난 손원식은 도자기와 항아리를 주로 생산하며 김포 '옥당도예'를 시작했다. 아버지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던 아들 상현이 마음을 바꾸어 가업을 이었다.

아들 상현은 수비작업이 끝난 흙을 매질하여 흙가래를 만들고 타래쌓기를 하여 항아리를 만들고 항아리를 다시 불에 구워내는 힘겹고 누추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늘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자란 상현은 자신도 모르게 옹기장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옹기장이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레를 돌리며 항아리 만드는 기술과 도자기 빚는 기능 그리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방법 등을 전수 받았다. 상현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으며 손씨네 옹기 가업은 5대를 이어가게 된다.

손원식은 평생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일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흙에 매질을 해 흙 속에서 공기를 완벽하게 빼고 항아리를 만드는 일은 뼈와 근육이 휘어지고 뒤틀리는 일이다. 손목과 손가락뼈에는 실금이 아물 날이 없어 뜨끔뜨끔 통증이 뼈에 박혔고, 어깨는 늘 욱신욱신 쑤셨다. 그러나 날이 밝고 눈을 뜨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욱신거리고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물레 앞에 앉아 항아리를 빚었다. 그렇게 물레일을 하다 보면 욱신거리고 뻣뻣했던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리고 가뿐해졌다. 그렇게 옹기를 빚다 보면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종일 항아리를 빚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울고 넘는 박달재' 가락을 흥얼거리는 것이 낙이었다. 손원식은 2014년 64세의 이른 나이에 흙일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갔다.

아들 손상현은 통 크고 후덕한 어머니와 함께 '김포 옥당도예'[9]를 키워 나가고 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서곶옹기를 유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 서곶옹기의 마지막 옹기 장인이다. 기회가 된다면 서곶에 옹기가마를 재현하고 옹기 만드는 과정을 시현하면서 서곶옹기를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비친다. 또한 환경을 위해 쓰고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토기 그릇을 대중화하고 싶다는 당찬 꿈을 품고 있다.

---

9) 옥당도예에 관한 내용은 2020.03.16. 온명자(손원식의 부인), 손상현(손원식의 아들)을 취재 · 녹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집필했음을 밝힌다.



온명자 (손상현 어머니)



손상현 김포 옥당도예 운영

5) 서곶옹기의 희망 젊은 도예인

벽전도예[10] 손원모의 두 자녀는 도예를 전공, 연구하고 있다. 1986년생인 딸 손나래는 인천 디자인고 도예과를 졸업하고 2007년 도자기 종주국인 중국 경덕진 대학 교환학생으로 1년 수료를 한 후 2008년 원광 대학교 도예과를 졸업했다. 또한 1990년생인 아들 손대현은 인천 디자인고 도예과를 졸업하고 2015년 부산대 도예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2018년 단국대 대학원 전통도예과를 졸업, 정통 도예인의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도예 산업은 웰빙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꼭 필요한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이다. 편리함과 천박한 자본주의에 편승한 플라스틱의 폐해는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생명의 원천인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 순환의 질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 젊은 도예인들의 연구로 흙의 무한 변신과 활용이 절실하게

10) 벽전도예에 관한 내용은 2020.03.12. 벽전도예에서 손원모를 취재 · 녹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집필했음을 밝힌다. 이후 2020.08.10. 벽전도예에서 손원모, 온명자, 손상현 등과 함께 취재를 한 번 더 진행했음을 밝힌다.

요구 되는 시대이다. 그러한 일에 정진하는 두 젊은이를 힘차게 응원한다. 또한 먼 후일 서곶옹기의 맥이 이어져 서곶에서 도예 산업이 다시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벽전도예를 배경으로 서곶옹기를 이어가는 손병재 옹기장이 후손들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 또다시 60년, 100년이 흐른 후 사진 속 사람들이 소환됐으면 좋겠다.



앞줄 왼쪽부터 손미루 김경숙 손원모 온명자
뒷줄 왼쪽부터 손상현 전정선 손대현 손나래

6. 서곶 옹기장이들의 삶과 애환

1) 녹청자의 정서가 흐르는 서곶

서곶의 외딴지역 경서동에서 시작된 옹기산업은 옹기기술자들이 외지에서 들어와 일으킨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토박이들과 마찰 없이 성장하여 우리나라 옹기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서곶지역에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녹청자를 빚고 굽던 정서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정서가 서곶 사람들의 무

의식 속에 남아 있어, 몇 백 년이 흐른 후에 외지 사람들이 일으킨 옹기산업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다.

2) 초창기 서곶 옹기장이들

조선시대 옹기를 빚고 굽는 일은 천민들이 하던 일이다. 이후 옹기일을 박해받던 천주교인들이 하게 되었다. 박해를 피해 숨어든 산골에서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되고 천한 일이라 누구도 하려 하지 않았지만 박해를 피해 숨어든 천주교인들에게 옹기는 생계를 해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직업이었다. 조선의 옹기 기술은 이러한 이유로 천주교 교인들에게 전수되었다. 박해가 끝난 일제강점기에도 옹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옹기 만드는 일은 옹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 교인들이 주로 하게 되었다.

서곶에서도 옹기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옹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천주교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옹기 기술을 가지고 먹고살기 위해 옹기공장을 옮겨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옹기공장 사주가 되어 공장을 경영하며 수도권 옹기 산업을 이끌기도 했다. 사주가 됐든, 옹기 기술자로 공장에서 일을 했든 모두 서곶의 옹기장이들이다. 그들의 애환은 다 비슷하다.

그러나 사주보다는 옹기 기술자들의 삶이 더 절박했다. 곡식을 심어 먹을 농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까이 오갈 친인척들도 없었다. 처자식을 이끌고 일거리를 찾아 이주가 잦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오직 옹기 일을 하며 연명해 가기 위해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곶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별로 없었고 옹기 일만 하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옹기공장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했다.

옹기 일하는 사람들은 옹기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 옹기 일을 하려고 서곶으로 온 사람들은 머무를 집이 없어 옹기 사주가 제공하는 사택에 머물며 일을 했다. 옹기 일은 대부분 가족이 다 함께 했다. '옹기 대장'이나, '모쟁이 대장'으로 일하는 남편이 옹기를 만들면 부인도 옹기 공장에 나가 남편이 빨리 옹기를 만들 수 있도록 뒤에서 잡일을 도왔다.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보며 옹기공장에서 자랐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한여름 옹기가마에서 일하는 옹기장이들의 모습은 상거지 꼴이었다. 가마 속이 뜨겁고 먼지가 많아 옷은 시커멓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검댕이 시커멓게 묻어 있었다. 심지어 웃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옹기 만드는 기술로 처자식을 봉양했던 그들은 시대의 최하층민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곶옹기의 밑거름이 되어 서곶에 옹기산업을 번성케 하였고, 자신들도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갖추어 나갔다.

3) 옹기 같은 삶

서곶의 옹기산업을 이끌어 온 옹기장이들의 삶은 그들이 만든 옹기와 닮았다. 옹기는 흙이 끊임없이 자신을 정재하고, 수없는 매질을 통해 어둠을 거둬내고 한 형태를 갖추면,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 흙의 존재마저 버렸을 때 소중한 것을 품는 옹기가 된다. 서곶 옹기장이들도 묵묵히 그러한 삶을 살았다. 서곶옹기장이들은 경제적 최하층 민으로 흙처럼 살았다. 가진 것 없이 옹기가마를 떠돌던 옹기장이들이 척박한 서곶 경서동 점말로 흘러들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옹기기술 뿐이었다. 서곶지역의 토박이들은 그들의 삶에 별 관심이 없

었다. 기존에 자신들이 하던 농사일이나 염전일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지만, 옹기일을 하는 사람들을 낮춰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곶에서 옹기장이들은 자신을 끝없이 정제하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진흙으로 남아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좋은 조건을 찾아 이주하며 사는 사람들은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며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옹기 기술과 성실한 노동력만으로 살아가야 했던 서곶 옹기장이들은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살았다. 오직 눈만 뜨면 흙을 파고 흙을 매질하고 옹기를 빚는 일에 전념했다. 가진 것이 없어 늘 마을 사람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야 했고, 신용을 잃지 않으려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을 견뎌내며 억척으로 살았고 항상 깨어 있었다.

때론 같은 옹기업을 하는 사람끼리도 한 치의 양보 없이 냉정한 경쟁을 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밤낮없이 일을 했다. 그들은 늘 새롭게 변화하려고 자신을 두드려 깨우고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 새롭게 태어났다. 서곶옹기장이들은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며 한 단계 또 한 단계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며 소박하나마 경제적 부(富)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곶을 품는 그릇, 옹기가 되었다.

4) 눈물과 기쁨

"바람도 타향에서 맞는 바람이 더 차고 시리다."라는 속담이 있다. 서곶에 옹기장이들은 타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다.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다. 한 지역에서 품앗이를 하며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며 두터운 정으로 살던 시절이다.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은 무슨 죄인처럼 기가 죽는 일이었다. 서곶옹기장이들의 타향살이도 서럽고 슬펐다. 그들은 오로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주며 살아갔다. 타 지역에서 옹기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은 일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며 살았다.

(1) 신앙생활에서 찾은 안식

조선 후기부터 옹기장이들은 대부분 천주교 신자였다. 김수환 추기경도 옹기장이의 아들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호는 '옹기'이다. 초기 서곶에 옹기장이들도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이었다. 1930년대 서곶에는 신자들이 모여 기도 드리거나 미사 봉헌할 곳이 없었다. 옹기를 구우며 신앙생활을 하던 천주교 신자들은 작업장인 옹기 가마에서 일을 하다 삼종기도를 하고, 축일을 맞은 동료가 있으면 옹기가마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해주고 축하를 했다. 또한 일요일이면 옹기가마에서 공소예절을 드렸다.

이후 1943년 공소가 설립되면서 공식적으로 서곶에 천주교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때 공소 설립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조금석(요셉)과 신현재(발렌티노) 김경윤(바르나바) 등이다. 초대 공소 회장에 김경윤(바르나바)였고 2대 회장이 신현재(발렌티노) 4대 회장이 조금석(요셉)이다. 이후 7대, 9대 회장이 최기영(바로톨로메오)였다. 이후 서곶성당으로 승격 되면서 초대 회장에 안인배(바오로)가 선출되었다.

이들 모두가 서곶에서 초기 옹기공장을 시작하고 이후 서곶옹기산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다. 어려운 형편에 옹기공장을 운영하고 옹기일을 하면서도 이들은 서곶에 천주교가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고된 옹기일을

하면서 지친 심신을 천주교 신앙 속에서 위로 받고 안식을 찾았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옹기를 구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천주교 옹기장이들은 집안에서 신부와 수녀가 탄생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했다. 서곶의 옹기장이들도 많은 신부와 수녀를 배출했다. 신부가 서품 받는 날은 하던 일을 쉬고 잔치를 열어 기뻐했다.

(2)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옹기와 미래

대부분의 옹기장이들은 자식이 대를 이어 옹기일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힘들고 고된 일에 돈벌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다. 그러나 옹기 일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옹기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고달픈 삶을 이어가며 가장 바라던 일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를 일구는 일이었다. 초창기 서곶에서 옹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타향의 설움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오직 하루하루 고된 노동으로 호구(糊口)를 해결해야 했다. 일이 없는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 방앗간에서 외상으로 쌀을 구입해 먹었으며 늘 비싼 이잣돈을 써야만 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옹기가 호황을 이루는 70년대 중반부터 서곶의 옹기 공장 사주들은 빚의 오라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 수도권의 옹기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적지만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더 이상 서곶에서 그들은 천대받는 옹기장이가 아니었다. 서곶 옹기장이들은 무일푼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자수성가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었다.

서곶의 옹기산업은 우리나라 옹기 생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호황을 누리다 100여년이 지난 2020년 그 애환을 뒤로 하고 역사의 뒤

안 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와 6.25로 인해 가난했던 시절, 최하층 서민들의 밥벌이가 되어주고 꿈을 이루게 한 서곶의 옹기 산업은 경제적으로 메마른 서곶지역을 촉촉이 적셔 주었다. 무연고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옹기공장에서 일을 하며 꿈을 이루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볍고 견고한 생활용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무차별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로 친 환경적이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고 투박한 옹기는 생활현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제 서곶 옹기는 흙에서 그릇으로, 그릇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 순환의 불변의 진리를 몸으로 따르다 잠시 현장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서곶옹기의 정서는 후손들에게 무의식으로 남아 전해질 것이고 서곶의 녹청자가 그랬듯이 먼 후일, 다시 서곶에서 새로운 흙의 산업이 태동하여 한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5) 서곶 옹기장이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노자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다. 노자는 물의 속성을 높이 평가했다.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하는데 물은 늘 낮은 곳과 더러운 곳을 향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아래에 놓이기를 싫어하지만 물은 반대로 낮을 곳을 향한다. 늘 낮은 곳에 처하면서 남과 다툼이 없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고 낮은 곳에 처하면서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아 결국 자기를 잃지 않는다. 유약해 보이면서도 다른 이에게 이로움을 주는 물이야말로 우주 운행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행위의 모범이다. 물이 낮은 곳에 모이면 깊고 고요하며 말이 없고 적막하여 욕심이 없고 위아래가 없는 경지에 이른다.

서곶으로 흘러들어 온 옹기장이들도 물과 같다. 그들은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없음을 이미 알아 낮은 곳으로 흘렀다기보다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한다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다. 무의식 속에 낮추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다. 전 생애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간다. 가진 것 없이 하루하루 몸을 낮추는 것이 살아가는데 제일 편했을 것이다. 하층민으로 힘없이 사는 사람들의 처세술은 낮게 엎드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리고 밀리면서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흐르며 산 삶이 결국은 가장 먼저 바다에 이른다는 것을 문득 알게 되었을 것이다.

흙을 빚어 불에 구워 그릇을 만드는 일은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비로운 일이다. 많은 도공들이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을 관조하고 세상의 진리를 터득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는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곶에서 옹기를 빚고 굽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을 대접해 주지 않았고 만든 옹기들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서곶에서 옹기 굽던 사람들도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하지 않았고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은 몸으로 섭리를 터득하며 몸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서곶 옹기장이들은 낮은 곳을 채우고 흘러가는 물 같은 사람들이었다.

Ⅳ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첫 삽을 뜨다

경인고속도로

1 고속도로 시대의 태동
2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의 건설
3 경인고속도로의 성장과 변화

이성재 (인천도시공사)

Ⅳ.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첫 삽을 뜨다 - 경인고속도로

1. 고속도로 시대의 태동

도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도로는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과 물자가 도로를 통해 오가며 삶의 필요한 것들을 사고팔기도 하고, 보고 싶은 이들을 만나며 정(情)을 나누기도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태생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바, 도로는 그 연결고리의 물리적 토대가 된다 하겠다.



세계 최초로 건설된 이탈리아 밀라노 고속도로(한국고속도로 1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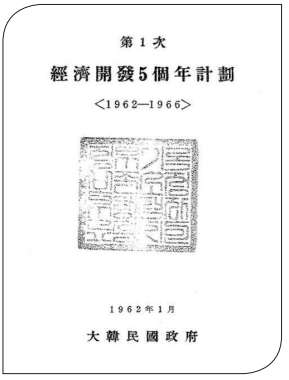
특히 고속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인간은 이동의 편리를 위해 다양한 길을 만들고 관리해 왔는데 이는 운송수단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했다. 자동차의 탄생과 발전에 따라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

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기존의 도로보다 2배 혹은 3배 빠른 이동을 가능케 하였으며 우리 사회도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속도로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이견이 있긴 하지만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는 1924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건설한 약 80㎞ 구간의 '아우토스트라다(Autostrada)'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26년 미국에서는 중앙분리대를 갖춘 4차선 자동차 도로인 '브론크스 파크웨이'를 개통하였고, 독일에서는 1932년에 본~쾰른 간 '아우토반'을 건설하는 등 본격적인 고속도로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한국고속도로 10년사).

우리나라가 고속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5년에서 1957년에 걸쳐 미 상무성 토목국의 초청으로 우리 정부 내무부 토목국의 고위관리들이 미국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제일 과제는 도로개수를 위한 새로운 공법, 특히 새로운 포장기술을 익히는 것이었다. 연수 과정에서 미국의 고속도로를 경험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해외연수는 미국 외에 유럽이나 일본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당시는 한국전쟁의 상흔을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시기로, 고속도로의 건설은 우리에게 먼 훗날의 얘기로만 들렸다.

고속도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60년대 들어 이루어졌다. 자유당 정부의 뒤를 이은 민주당 정부는 1960년 8월 23일 장면 내각이 성립된 후 경제제일주의를 천명하고 곧바로 경제개발기구로서 '산업개발위원회'와 국토개발기구로서 '국토건설본부'를 설치했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집권초기부터 국토건설사업의 계획의 수립을 서둘렀던 것이다. 하지만 예산통과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계획을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하고 다음 정부에 권력을 이양해야만 했다.



196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국가기록원)

1961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군부는 과거의 모든 것을 혁파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하지만 경제개발과 국토건설만은 예외였다. 정권 쟁취 후 이틀 뒤부터 헌법개정과 함께 국토건설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정도로 국토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5월 18일 지금까지의 사업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들은 군사혁명위원회는 '국토건설사업은 민족적인 과업이며 어떤 권력이나 정치력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국토건설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한다'라는 포고(布告) 제12호를 발표하고 같은 날 계엄사령부 담화문 제3호로서 포고령을 뒷받침하였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년사).

이후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는 급격하게 발전해 갔다. 경제성장율은 7.8%, 수출액은 1961년 4천달러이던 것이 1966년에는 2만5천달러로 6배 이상 늘었고, 1인당 국민총생산량(GNP)도 83달러에서 126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세속에 자연스럽게 도로를 통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수요가 나날이 증가해갔다. 이미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도로의

운송분담률이 철도를 앞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투자비중은 거꾸로 되어 도로에 투자한 액수는 철도의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투자구조에 대해 세계은행(IBRD) 한국교통조사단은 특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IBRD 한국교통조사보고서).

	철도	자동차	해운
1962	48.6	45.9	5.5
1963	52.3	42.3	5.4
1964	43.1	49.8	7.1
1965	45.5	48.9	5.6
1966	47.3	47.4	5.3

교통수단별 운송분담률
(교통부, 1967,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중 운송실적)

	철도	도로	항만	해운항공
1962	16.0	9.3	6.9	4.5
1963	39.5	5.2	3.9	3.0
1964	22.1	4.6	5.1	5.3
1965	16.7	4.4	6.3	2.0
1966	22.5	2.6	5	1.8

교통부문 투자비율 (건설부, 1974, 도로총람)

비록 도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긴 했지만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내의 여러 성과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평가절하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 정부도 도로 운송량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1]. 이에 1962년부터는 국토개발에 관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유료도로 신설 등 도로교통에 관한 논의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4년에는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되어 하루 3만500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도로건설에 필요한 아스팔트를 대량 생

1) 대한민국정부, 1962.1,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 241쪽.

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쌍용, 한일, 현대 등의 시멘트 생산시설이 신설, 확충되면서 연간 30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은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자재 수급을 위해 선결해야 할 사안이었다.



| 1964.5.7 울산정유공장 준공식



|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현장(현대건설)

1966년 1월에는 먼 동남아시아에서 낭보가 들려왔다. 태국 건설성 도로국이 IBRD의 차관을 들여 공사비 522만 달러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현대건설이 이를 수주한 것이다.

그동안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해외건설에 공을 들인 현대는 이전에 몇 차례의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따낸 것이다. 이는 당시 기술진과 근로자들이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장면을 방송국이 생중계할 정도로 국가적인 경사로 여겨졌다.

공사는 1967년 1월에 착공해 1968년 3월에 완공하였는데 준공 결과 현대건설은 3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한화 14억7900만원에 수주한 공사에 17억6700만원의 돈을 들인 것이다. 비록 적자를 내긴 했지만 현대건설로서는 해외건설의 물꼬를 틀수 있었고 동시에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하나인 고속도로 건설의 기술력과 경험을 확보함으로

써 향후 국내 고속도로 건설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현대건설 70년사).

한편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왔다는 점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가 고속도로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1964년 12월 '서독 방문'이었다.



서독을 국빈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국가기록원)

12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뤼브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독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 전 연설을 통해 경제시찰, 우호증진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설파하였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차관(借款)'이었다. 정상간 회의, 무명용사 묘지 방문, 파독광부와 간호사와의 만남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박대통령은 서독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본에서 쾰른, 그리고 함보른 탄광 방문 시 아우토반을 이용하였는데 노상에 차를 멈추고 내려 노면, 중앙분리대, 교차시설 등을 유심히 살폈다. 차 안에서는 경제통 출신인 뤼브케 대통령의 의전실장에게 고속도로의 건설, 관리, 재원, 효과 및 고속도로망은 물론 장비, 인력소요까지 소상히 질문하고 중요사항을 메모했다고 한다. 에르하르트 수상 역시 박대통령과의 오찬자리에서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된 시점에 대해 서독 방문 직후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2], 훗날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한국고속도로 10년사).

이어 1965년 교통부는 9월 20일 세계은행(IBRD)과 협정을 맺고 9월 28일 세계은행이 추천한 합동조사단(SOFRERAIL·BECOM·NEI·NEDECO 등 4개사)에게 한국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였다[3]. 조사단은 1965년 11월부터 우리 정부 관계부처와 밀접한 접촉을 갖고 조사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는 1966년 6월 2일 '한국교통조사보고서 초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되었다.

그 내용에는 '과거 1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도로망의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1966년에도 도로망이 현대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한국은 처음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등 신랄한 비판의 내용이 적시되었다.



1966.6 IBRD 합동조사단이 제출한 한국교통조사보고서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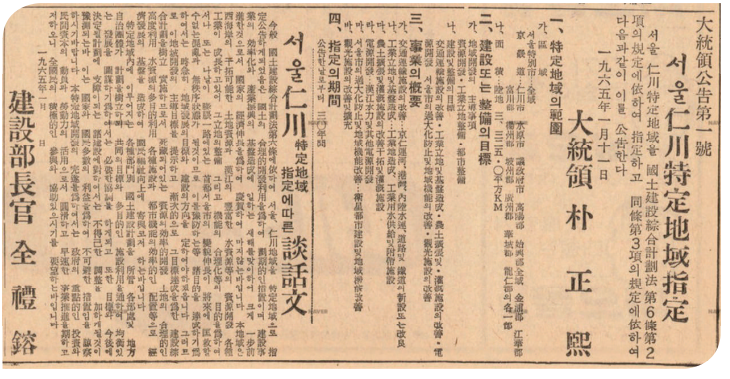
2) 박대통령이 서울-부산선을 비롯한 기간고속도로망의 원대한 구상에 들어간 시기를 1964년 연말로 추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 무렵 어느 명사가 오랜 외유를 마치고 돌아와 박대통령에게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진언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최종성 전 건설부차관 증언 『한국고속도로 10년사』 참조).

3) 정부가 IBRD에 조사를 맡긴 것은 향후 차관문제를 수월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도로 교통에 대해서는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은 줄이고 도로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결론 및 건의〉 부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서울~수원 간, 서울~인천 간 신설 유료도로 건설을 건의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의 교통 현실을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고속도로 건설 추진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서울~인천 특정지역계획 제3차 조사부터였다.

특정지역계획은 1961년부터 추진한 국토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4].



大統領公告第一號

서울仁川特定地域指定

大統領 朴 正 熙

一九六五年一月十一日

서울仁川特定地域指定에따른 談話文

建設部長官 全 禮 鎔

| 1965.1.11 서울·인천 특정지역 지정(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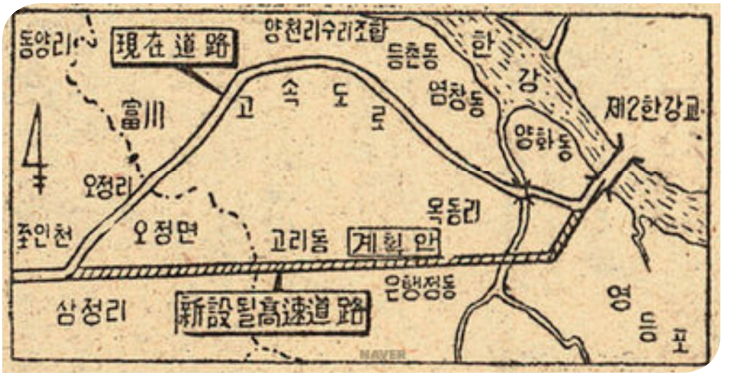
건설부는 경인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962년부터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965년 1월 서울~인천지역을 제1

4)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등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했다. 이는 향후 토지확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호 특정지역으로 공고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인천항 확장, 경인운하 건설, 경인공업단지 조성 등과 함께 서울~인천 간, 서울~수원 간을 비롯한 7개 노선 총연장 160㎞에 이르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포함되었다.

경인지역은 우리나라의 심장부로서 당시 이 지역의 공업생산액은 전국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고, 인천항의 수출입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1969년 준공 예정이었던 인천항 제2선거(船渠)가 완공되고 인천지역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설 경우 기존도로로는 그 운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특정지역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사업을 포함하고 경부 노선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1966년에는 곧 도래할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인천시는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할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안'을 작성해 1966년 7월 4일 보고하였다. 이 계획안은 당시 50분 소요되는 거리를 24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제2한강교에서 인천까지 32㎞구간에 대하여 폭 18m의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6.7.2 인천시가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고속도로안 (매일경제 1966.7.4)

이후 1966년 11월 14일 '서울·인천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공고를 통해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건설이 결정되고, 11월 건설부는 제2차 5개년 계획 중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우선 순위로 추진할 A그룹 사업으로 선정했다(경향신문 1966.11.24). 1967년 2월 28일에는 도로정비촉진법이 발효되는 등 관련 법령도 빠르게 정비되어 나아갔다.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제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정희 후보의 선거공약을 통해 세상 밖에 공표되었다. 박후보는 1967년 4월 29일 약 25만명의 인파가 모인 서울 장충공원 유세에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그 기간 중 호남선의 복선화, 4대동맥의 고속도로 건설, 4대강 개발 등 '대국토건설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동아일보 1967.4.29).

이어 대통령선거 전날인 동년 5월 2일 10시 청와대 접견실에서는 대국토건설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기존의 국토건설계획을 근본부터 수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천·도로·철도·항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대국토건설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967.4.29 장충단공원 유세 (서울역사편찬원)



1967.5.2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박정희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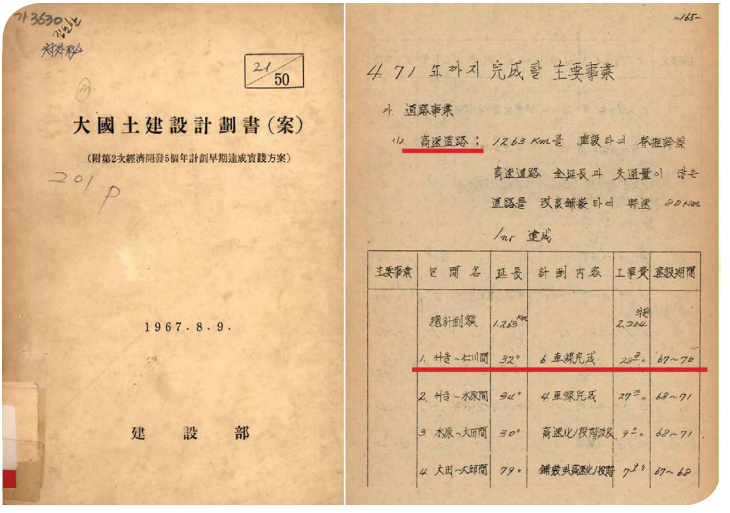
그 내용 중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강릉·부산·목포를 잇는 기간 고속도로 건설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총연장 32㎞, 6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비는 약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경인·경부 등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찬반 여론이 일어났다.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부자들이 기생 끼고 놀러 다니는 길이다', '박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즉흥적으로 만든 계획이다'라는 폄하 속에 '고속도로 건설은 민족의 염원이다', '고속도로는 사투리를 순화시킬 것이다'라는 찬성 칼럼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50달러 정도였고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부족했고, 건설계획이 빈번하게 바뀌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정부로서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긴 했으나 추진 재원에 관한 사항은 숙제로 남겨둔 상태였다. 재원 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휘발유 값을 200% 인상하기도 했으나 당시 국내 여력을 감안하면 차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1967년부터 경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차관에 관한 교섭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중 1967년 11월 10일 ADB 운영국장의 방한은 차관 교섭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大國土建設計劃書(案)

(附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早期達成實踐方案)

1967.8.9.

建 設 部

4 71 年까지 完成할 主要事業

主要事業	區 間 名	延長	計 劃 內 容	工事費	建設期間
	總計劃額	1,249㎞		2,304억	
	1. 仁川~大田間	322㎞	6車線完成	220억	67~70
	2. 仁川~水原間	94㎞	4車線完成	27억	68~71
	3. 水原~大田間	230㎞	高速化/段階改良	9억	68~71
	4. 大田~大邱間	79㎞	舖裝與高速化/段階	7억	67~68

| 1967.8.9 대국토건설계획(안)의 부록에 기재된 경인고속도로 계획

이후 1968년 2월 2일 1차로 차관신청서를 ADB에 보내고 이어 3월 15일에는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를 단장으로 차관교섭단을 ADB에 파견하였다. 3월 24일에는 ADB예비조사단이 내한하여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어 5월 13일에는 ADB평가조사단이 내한하였다. 6월 5일에는 차관자금으로 구입할 자재에 대한 국제구매입찰 공고를 실시하였다. 드디어 6월 28일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고 9월 16일 건설부와 ADB간 680만 달러의 차관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초 차관 신청액은 350만 달러였으나 개통 후의 유지관리, 포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위한 비용이 더 필요하여 증액되었다. 이 차관금은 건설당시 포장공사, 자재 및 장비 구입, 기술용역 및 훈련비 등에 쓰였고, 개통 이후 1970년 포장보수 공사에도 사용되었다(한국고속도로 10년사).

한편으로 고속도로가 들어선다고 하니 어김없이 투기꾼들이 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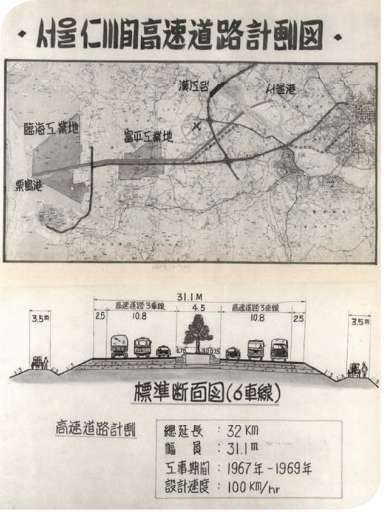
들었던 모양이다. 용지매수에 대한 계획수립은 196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는데 고속도로 건설 1~2년 전부터 소문이 돌면서 투기꾼들이 농토를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다.

부천지역의 경우 평당 5~6백원에 머물던 땅값이 2~3천원대로 올라갔고 서울 구간 주변은 10배 이상 뛴 곳도 있었다. 지역의 주민들도 호기라고 생각하여 너도나도 땅을 팔았는데 양천구 신정동의 경우 70여호 중 10호만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대부분은 토지를 매각한 상태였다.

어떤 이는 몇 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고 영등포구의 모 국회의원은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에 13만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자력으로 택지조성에 나선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다(매일경제 1968.1.26.). 농지를 매각한 사람들은 소작을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토지매매업, 상업으로 전업한 사람이 많았다. 1967년 5월,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주변 토지를 조사하여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2.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의 건설

[설계] 1967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될 시점까지의 1차 설계는 대국토건설계획(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건설부는 김포 양화교를 거치는 31㎞ 노선과 영등포 시가위로 지나는 고가도로를 거쳐 제2한강교에 이르는 32㎞노선의 두 가지 안을 신중히 검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제2한강교에 이르는 안이 채택되었다(동아일보 196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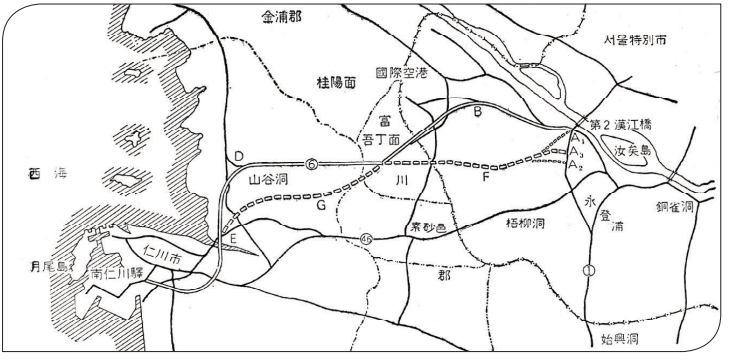
1967.8.9 대국토건설계획(안)의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계획도

차선은 6차선이며 도로 폭은 31m, 설계속도는 100㎞/h였고, 중앙분리대는 4.5m로 수목을 식재하고 양쪽 끝에 2.5m씩 노견(路肩) 구간을 두었다. 공사기간은 1967년에서 1969년까지로 하였고, 총공사비는 20억으로 추정하였는데 AID차관으로 충당하고 유료도로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건설부는 이러한 1차 설계안을 바탕으로 1967년 4월 24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에 건설 타당성조사와 실시계획 용역을 의뢰하였다(매일경제 1967.4.18). 개발공사는 당시 건설 중인 인천항 제2선거를 종점으로 하고, 장차 중공업지역으로 개발예정이었던 인천 서곶지구과 경공업지역으로 개발 예정인 부평지구 등의 교통을 고려하여 총 3개의 후보노선을 선정했다.

검토결과 개발공사는 A-C구간의 경우 기존 국도 6호선을 이용하는 A-B-C노선이 공사비가 절감되지만 서울과 김포공항을 잇는 도로로서 향후 겸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A-F-C노선으로 결정하였고, C-E구간의 경우 국도 6호선 이용에 따른 비용절감과 임해공업지대 연결 등을 위해 C-D-E노선으로 결정하였다[5].

고속도로의 출발지에 대해서도 A1~A3의 3개 안이 제시되었는데 영등포구의 장래 교통수요와 안양, 시흥 방면 연결에 유리한 A3노선으로 결정하였다.



|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후보노선
(노선) 제1노선 : A-F-C-D-E-H 제2노선 : A-B-C-D-E-H 제3노선 : A-F-C-G-E-H
(시점) A1: 제2한강교 직결 A2: 영등포구 중앙부 연결 A3: 양평동 로터리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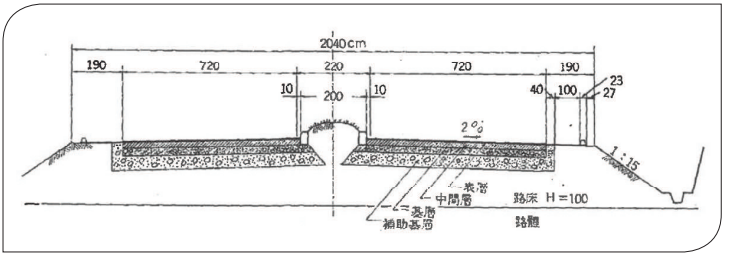
---

5) 일설에 의하면 인천 방향으로는 가좌동에서 도화동 선인학원을 지나 인천공설운동장 앞길과 연결해 부두쪽으로 닿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선인학원 백선엽·인엽 형제의 입김으로 용현동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변경된 코스는 염전지대를 많이 통과해서 지반 침하가 심해 공사에 어려움이 많았다(유동현 2015).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 해 12월에 건설부에 제출되었으며 차관을 협의하고 있던 ADB측의 요구에 따라 건설도서를 일본의 기술용역업체인 일본공영 측에 넘겨 검토·보완하게 하였다.

도출된 용역결과는 당초 계획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노선의 총길이는 29.984㎞로 단축되었고 차선도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 폭도 31m에서 20.4m로 축소되었다. 노견폭 및 중앙분리대폭을 좁게 잡아 서울~부산 선에 비해 너비가 2m 정도 좁았다. 전체 거리는 줄어든 반면에 공사비는 20억원에서 28억원으로 증액되었다.

포장구조는 포장부의 두께를 60㎝로 설계했다. 표층 2.5㎝ 중간층 5㎝, 기층 15㎝ 보조기층 37.5㎝로 이는 서울-부산 선보다 보조기층을 2.5㎝ 줄여 설계한 것이었다.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표준단면도 (한국도로사)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11월 24일 개발공사의 설계용역 진행 중에 주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받고, 계획대로 1969년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하였다(동아일보 1967.11.24)[6].

6) 당시 고속도로 총연장은 29.6㎞이며 서울은 1967년 12월 1일부터, 인천은 내년 3월부터 각각 건설에 착수 69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구획정리면적은 1천2백만평, 도로부지 44만평, 총공사비는 28억 8천만원으로 추산했다.

[공사] 1967년 5월 27일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인천공설운동장에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시민 3만 여명이 운집하였다. 공설운동장 외벽에는 대형의 공사조감도가 걸렸다. 시행청은 건설부 중부국토건설국, 시공자는 ㈜삼안산업, 고속도로의 전체거리는 32㎞였다.

이 성대한 행사는 차관 도입 문제 등으로 네 차례나 연기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것으로(매일경제 1967.3.31), 당시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한해 총 투자액의 1%에 지나지 않는 고작 2천만 원만 확보된 상태였다[7]. 이 돈으로는 640m밖에 공사할 수 없는 액수였다(유동현 2015).

또한 대략의 노선과 비용에 대한 추산은 있었지만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해 6월 8일 치러지는 제7대 총선과 관련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서둘러 기공식을 개최한 것이었다.



1967.5.27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기공식 (국가기록원)



기공식이 개최된 인천공설운동장 외벽에 걸린 공사조감도

7) 건설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포함된 고속도로, 유료도로 건설계획 중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3천만원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위치결정 및 설계작성을 모두 끝낼 계획이었다(매일경제 1966.9.28).

실제 공사에 대한 착공은 기공식보다 두달 먼저 시행되었다.

건설부 중부국토건설국은 ㈜삼안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4일 인천 가좌동 현장에서 토공을 착수하였다. 이후 서울지역은 인천지역보다 8개월이나 늦은 1967년 12월에 화곡동에서 착공했다(대한뉴스 제651호 1967.12.1).



| 서울 화곡동 기공식 (1967.12)



| 부천 오정동 기공식 (1968.1)

1967년도에 구체적인 설계안을 마련한 정부는 1968년도 예산으로 14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1968년 1월 4일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내리에 중부국토건설국 산하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건설 조직을 정비하여 고속도로 건설구간을 행정구역에 따라 인천·부천·서울의 3개 공구로 구분하였다. 해당 시군에 용지매수 및 토공을 위임하고 건설부가 총괄 감독을 맡는 방식이었다. 이는 도로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우려한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까지 함께 진행하기 위한 조치였다[8].

이후 부천군은 ㈜삼안산업과 계약을 맺고 1968년 1월 10일 부천

8) 정부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우려하여 1967년 11월 11일 '서울-인천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고시하였다.

지구토지구획정리 및 고속도로 건설(6.2㎞ 구간)에 대한 기공식을 거행하였고(동아일보 1968.1.10), 인천시는 1968년 1월 29일 ㈜삼안산업과 인천지구 14㎞구간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토공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예산의 부족, 고속도로 건설 경험과 기술력의 부재, 중장비의 부족 등으로 공사 진척은 지지부진하였고 시공 상태도 양호하지 못했다. 공사를 맡아온 삼안산업은 1967년에 인천시 가좌동 국도 6호선의 640m구간에 대한 토공과 암거 1개소, 배수관 4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68년에 석남에서 가좌 간 14㎞구간을 다시 착공하여 토공을 진행하던 중 공사 중지하였는데 그때까지 소요된 공사비는 전체공사비의 1%에도 못 미치는 3천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9].

이대로 시행되는 듯했던 공사는 경인지역의 교통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1968년 2월 말 건설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1969년 12월 말 준공예정이었던 공사를 1968년 12월로 1년 앞당겨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고심 끝에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당시 건설업 도급순위 1~3위 업체인 현대건설·대림산업·삼부토건을 참여시켜, 정부와 합자한 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를 3월 12일 설립하였다. 자본금은 총10억원이었는데 정부와 민간출자금이 각각 5억원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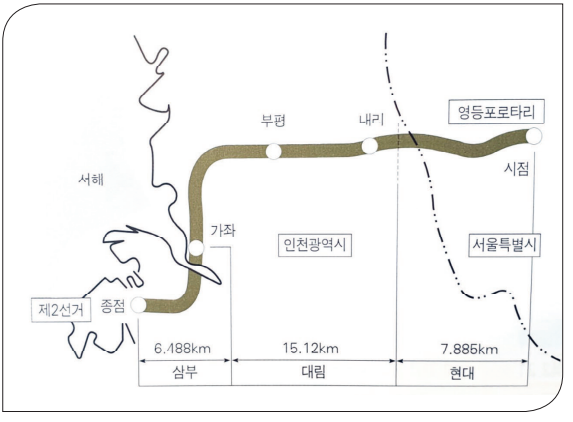
이로서 삼안삼업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1968년 3월 5일부로 중지되고 1968년 3월 24일부터 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의해 재착공

---

9) 당시 국회 건설위원회는 소액의 예산으로 공사 착수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관행에 대해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고 건설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질타하였다.(국회사무처 1967.12.7, 제62회 국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되었다[10].

공사는 다시 3개 구간으로 구분되었다. 제1공구는 서울 양평동 - 부천 내리까지 7.885㎞구간으로 현대건설, 제2공구는 부천 - 가좌동까지 15.12㎞로 대림산업, 제3공구는 가좌동에서 용현동까지 6.488㎞로 삼부토건이 시공을 맡았다[11].



| 공구분할도 (한국도로공사 30년사)

앞서 살펴본 대로 1968년 3월에는 ADB차관이 확실 시 되면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예산 문제가 해결되었다. 더불어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진행하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가 1968년 2월에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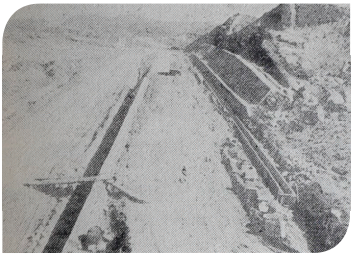
10) 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공사추진에 대해 일부 특혜 의혹이 일었던 모양이다. 삼부, 대림, 현대 3사는 이러한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국회건설분위에 제출하였고 이는 1968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방침을 받고 시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사를 지연케하는가?' 라며 불편한 심경을 보고서(공문)에 적시하였다(대통령비서실 보고번호 제68-59호 문서, 1968.4.3.)

11) 공사발주는 다원화된 상태로 매우 복잡하게 시작되었다. 정부예산과 민간예산 그리고 ADB차관 등 재원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으로 시공한 공사는 건설부 중부국토건설국과 인천시가, 민간자본에 의해 시공된 공사는 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ADB 차관에 의한 공사는 건설부가 각각 공사를 발주했다.

공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공사에 참여했던 노련한 기술진을 국내 공사에 대거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현대건설 70년사). 조직과 예산, 기술력을 갖춘 대형업체까지 완비되면서 경인고속도로 건설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사는 대체로 토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공사의 경우 절토량 약1백2만6천㎥, 성토량 약2백15만3천㎥로 총 토공량은 3백17만9천㎥에 이르렀으며 여러 난공사 구간이 존재했다. 절토 구간 중에는 현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도당고개 구간이 난공사였다. 표고 50m의 구릉을 통과해야 하는데 평면의 선형을 살리다 보니 절토 높이가 약 32m인 대절토구간이 발생하게 되었다.



도당고개 대절토부 작업광경
(한국고속도로 10년사)



주안염전지대 공사현장
(한국고속도로 10년사)



주안염전지대 연약지반시공
(한국도로공사 50년사)

노면을 다지는 공사는 연약지반의 처리가 까다로웠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은 삼부토건이 담당한 주안염전지대의 2㎞구간이었다. 샌드파일(sand pile) 공법[12]을 적용하여 8,088본을 시공하였으나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 침하현상이 발생하였다. 1968년 8월 23일 건설부, 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시공사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 구간은 표층만을 완공하고 포장 및 부대시설은 1969년 6월 30일까지 늦추어 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결국 이 구간은 1차 개통 시 미완성 구간으로 남겨놓아야만 했다.

이 밖에도 오정동의 1㎞구간은 니탄층인데다가 용수가 많아 샌드매트(sand mat) 공법[13]으로 처리했으며 신월동 구간은 물을 많이 머금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흙을 걷어내고 말린 후 샌드매트(sand mat) 공법으로 노상을 안정시켰다.

연약지반 처리에 소요된 모래의 양은 약 8만3천㎥인데 노선의 주변에는 양질의 모래가 적어 모자라는 모래와 자갈은 한강에서 실어 날라야 했다. 여러가지 난관 속에서 토공 작업은 1968년 10월 30일 완료하였다.



부천지구 공사현장(국가기록원)



1968.6 경인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 (경향신문사)

12) 모래 말뚝을 박아 지반을 강화하는 공법

13) 원지반 위에 1m 내외의 두께로 모래를 깔아 연약 지반을 처리하는 공법

포장공사는 여러 층별로 구분이 되는데 보조기층과 기층은 3사가 맡은 구간별로 실시했으나 표층, 중간층은 ADB와의 차관협정에 따라 국제경쟁입찰에 붙여야했다. 입찰 결과 1968년 9월 27일 국내업체인 대림산업이 수주, 10월 14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어찌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함께 시공하였는데 시점 구간 7.9㎞는 현대건설이 맡고 나머지 구간은 대림산업이 맡아 시공하였다.

포장부의 재료는 보조기층에 강자갈과 모래, 기층에 쇄석, 중간층과 표층은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노견(路肩) 포장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아스팔트-머캐덤 공법[14]'으로 시공했다. 중앙분리대는 폭을 2m로 하고 연석(緣石)의 높이는 7.5㎝로 했으며 분리대에는 식물을 심었다[15].

인터체인지는 내리·부평·석남·가좌 등 총 4곳에 설치되었다. 이는 다른 노선에 비해 많은 편으로 경인공업지대 개발과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한 조치였다. 형태는 다른 형식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도 절감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형으로 설계되었다[16]. 톨게이트는 영등포·내리·부평·가좌 등 4개소에 설치되었고, 버스정류장과 비상주차대가 설치되었다. 그 밖에 안전시설로는 시가지 통과 구간에 가드펜스가 설치되었다.

경인고속도로에는 소교량과 육교가 비교적 많이 설치되었는데 2개소가 장대교이고 나머지는 소교량이다. 개통 당시 교량 수는 모두 33

14) 쇄석 위에 아스팔트를 뿌려 도로를 포장하는 공법

15) 개통 후 교통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73년도에 분리대를 가드레일로 교체했다.

16) 개통 후 도화IC(1969년도)와 신월IC(1977년도)가 추가로 개통되었다.

개소로 총연장 약 951m였는데, 개통 후 16개소의 횡단육교가 추가되어 모두 49개소로 늘어나 총연장도 약 1,833m가 되었다. 횡단교량이 대폭 추가된 것은 노선이 주거지역과 공장지대를 횡단하고 있어 도로주변 주민의 왕래를 위한 것이었다.

1968년 12월, 포장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앞서 언급한 주안염전지대를 제외하고는 12월 20일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착수한 후 1년 8개월이 소요되었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 소요된 것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수많은 이들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다짐 장비가 부족하여 덤프트럭에 암석을 싣고 다짐작업을 벌였으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겨울철에는 길이 얼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가며 공사를 하였다(경향신문 1968.12.12). 철야작업을 밥 먹듯이 하였는데 야간에는 횃불을 들고 포설작업을 강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한국고속도로 10년사).

건설부는 공사 막바지인 1968년 11월부터 경인·경수간 고속도로 현장에 기술요원으로 편성된 공정확인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황을 수시 보고토록하고, 장차관실에 대기반을 조직하여 24시간 근무하게 하는 등 연내 완공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였다(경향신문 1968.11.2).

주원(朱源) 건설부 장관은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경인·경부 고속도로 현장을 시찰하였는데 달릴 주(走)자를 써 '주장관(走長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11월 어느 날 비와 우박이 쏟아지는 밤에 주장관은 자신도 모르게 비를 멈춰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했다고 전하니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매일경제 1968.10.26).



1968.4.21 주원 건설부장관 현장 시찰 (국가기록원)

근로자들은 계속되는 철야 작업에 잠을 달라고 애원했는데 아파야 잠을 잘 수 있었으니 현장에서는 '고속도로 감기'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참으로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표현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대목이다.

그해 8월에는 폭우로 인해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는데 다행히도 준공을 앞둔 12월은 이상 고온현상으로 따뜻하여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개통] 1968년 12월 21일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입구인 양평동 안양천변의 당중초등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고속도로 개통식이 거행되었다.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가좌IC까지의 23.5㎞)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제1구간인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신갈IC까지의 31.3㎞)가 함께 개통된 것이다.

'뻗어가는 고속도로, 삼천리는 이웃된다.'라는 플래카드가 크게 나붙었으며, 시민들의 축하 인파가 어우러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삼부요인, 그리고 다수의 주한외교사절이 단상에 자리를 잡았다. 헬리콥터가 경축비행을 하고 오색 풍선이 화려하게 떠오르고, 감격적인 팡파르가 드높이 울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고속도로가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또한 가장 빠른 시간에 완성되었다고 강조하며 수고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양평동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시점에서 첫 테이프를 끊고 단숨에 가좌IC까지 시주하여 개통 테이프를 끊었다.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는 서울 동작동에 있는 이수교, 양재동 톨게이트, 신갈 IC에서 각각 개통 테이프를 끊었다. 신갈에서는 개통을 축하하는 샴페인을 노면에 뿌렸다. (한국도로공사 20년사, 매일경제 1968.12.21, 경향신문 1968.12.21).



| 1968.12.21 경인·경수고속도로 개통식 (한국도로공사 50년사)

경인·경수고속도로가 동시에 개통되면서 경인고속도로사무소장과 경부고속도로사무소장의 대조적인 모습도 화제가 되었다. 경인사무소장은 넥타이 한번 매본 적 없이 현장만을 쫓아다닌 일꾼형이고 경부사무소장은 시공 중에도 넥타이를 매고 관련 부처를 다니며 자금문제, 시공문제 등을 타개한 정치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통식날 경인쪽은 시공중 찍은 갖가지 장면을 사진첩으로 만들어 홍보한 반면, 경부쪽은 제대로된 사진 한 장 찍은 것이 없어 주원 건설부 장관의 핀잔을 받았다고 전한다(매일경제 1968.12.26).

1차 개통의 기쁨도 잠시 아직 미개통된 주안염전지대에 대한 포장공사가 진행되었다. 자재는 국제입찰을 진행했는데 일본 전중철강(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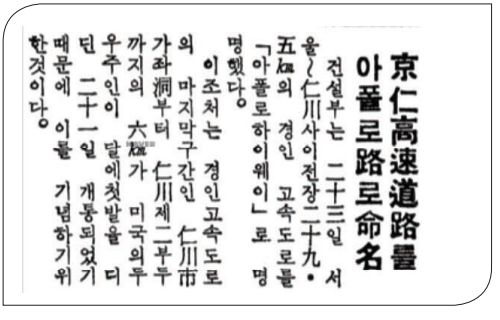
中鐵鋼)의 70톤 가량 되는 아스팔트 플랜트 3기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1967년 7월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가좌-인천(용현동)간 6㎞에 대한 개통식이 7월 21일 가좌동 공사현장에서 거행되었다.



| 1967.7.21 경인고속도로 최종구간 개통식 (국가기록원)

'뻗어가는 고속도로 우리국력 증강한다.', '중단없는 건설로 민족중흥 이룩하자'라는 표어가 붙었고, 정일권 국무총리, 이한림 건설부장관 등 귀빈과 인천시민 다수가 참석하여 경인고속도로의 최종 개통을 축하하였다.

[아폴로 하이웨이] 경인고속도로 최종구간 개통 직후 건설부는 이 고속도로의 이름을 '아폴로 하이웨이'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의 최종 개통일자(7월 21일)가 우연히도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두 우주인이 달에 첫발을 내딛은 일자와 같았던 것이다.



京仁高速道路를
아폴로路로命名

건설부는 二十三일 서울~仁川사이전장二十九·五㎞의 경인 고속도로를 「아폴로하이웨이」로 명명했다.
이조처는 경인고속도로의 마지막구간인 仁川市가좌洞부터 仁川제二부두까지의 六㎞가 미국의두 우주인이 달에첫발을 디딘 二十一일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위한것이다.

| 건설부, 아폴로하이웨이 명명(동아일보 1969.7.23)

당시 국내에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전후하여 아폴로 열풍이 불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착륙 예정일을 일찌감치 임시 공휴일로 정해 발표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11월 방한한 우주인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였다.

아폴로라는 명칭도 대유행하였는데 미장원, 주유소, 다방, 어린이 장난감, 과자, 유모차까지 여기저기에 아폴로가 붙었다. 1974년도에 보건사회부가 쓰지 말아야할 약국 이름 10개를 발표하였는데 그중에 '아폴로 약국'을 포함시킬 정도였다. 이러한 아폴로 열풍 속에 건설부도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의 명칭을 '아폴로 하이웨이'로 명명했다. 다만 이 명칭에 대한 고집은 오래가진 않은 듯하다. 1971년 8월 31일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2호)로 지정되었다.

[제2선거(船渠)까지 연장]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는 건설 당시 종점이 인천 남구 용현동으로 제2선거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인천항 제2선거는 1972년 말 준공예정이었는데[17] 화물 운송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선거 앞까지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70년 9월 18일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에서 건설부, 경기도, 인천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가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사 추진을 결정하였다. 1970년 11월 7일 건설부로부터 서울~인천 간 잔여구간 약 500m에 대한 공사를 71년 8월까지 완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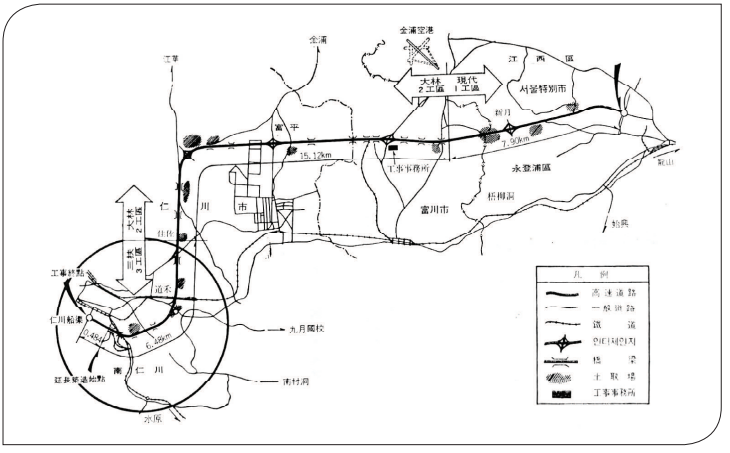
한국종합개발공사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맡고 현대건설이 2차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였다. 1차 공사는 1971년 6월부터 10월까지

17) 실제로는 1974년 5월 10일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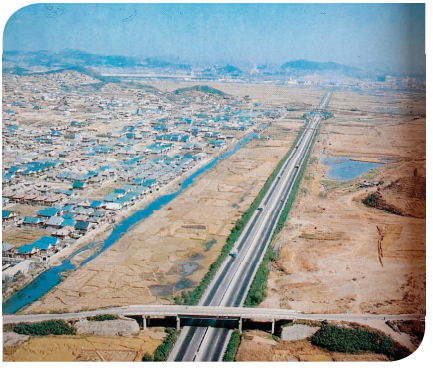
토공과 교량 및 종점 로터리 부근의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2차 공사는 제2선거 준공예정 시점인 `73년 6월 말경에 맞추어 1973년 2월부터 4월까지 1차 때 미시행한 로터리 부근의 토공과 전체 포장, 그리고 부대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공사는 총길이 484m로 이를 포함하면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29.984㎞가 된다. 하지만 1971년 고속도로 노선지정 당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부터 인천시 용현동 간 29.5㎞만이 고속국도 2호선 곧 서울-인천 고속도로로 지정되면서 이 노선의 연장은 통상적, 공식적으로 29.5㎞로 알려져 있다.

[완공된 경인고속도로] 전체 완공된 경인고속도로는 29.5㎞(선거까지의 연장구간을 포함하면 29.984㎞)로 공사비는 정부예산 14억 7천만원, 민간자본 12억6천만원, ADB 차관 4억2천만원 등 총 31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다. 1㎞당 약 1억5백만원을 쓴 셈이다. 사용내역별로는 직접공사비 23억3천3백만원, 토지보상비 5억4천9백만원 외에 부대비 2억6천8백만원이 사용되었다. 공사에 참여한 연인원은 60만5천명이고 장비는 11만2천대가 투입되었다.



경인고속도로 시공도(한국도로공사 10년사)





1969 경인고속도로 초장기 모습 (한국도로공사)

3. 경인고속도로의 성장과 변화

1968년 12월, 드디어 경인고속도로의 문이 열렸다. 첫날 1,562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226,350원의 통행료를 거두었다. 개통 후 2개월 뒤에는 144,744대가 이용, 20,905,050원의 수입을 거두어 66,417대가 이용하여 10,734,070원의 수입을 거둔 서울-오산간 고속도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1969년 4월 12일에는 한진고속의 고속버스 20대가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고속버스 운행 모습(인천광역시)



1970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1968년 8월 23일 확정되었는데 서울-인천간을 기준으로 승용차 70원, 버스와 트럭 100원이었다. 개통 직후에는 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운영을 담당하다가 1970년 3월 21일부로 모든 업무와 도로 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1969.2.15. 창립)에 인계하고 해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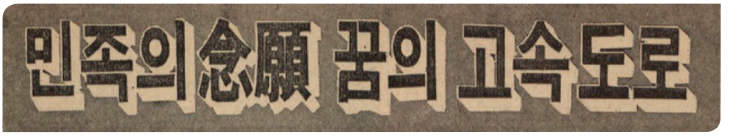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전에는 미추홀구 숭의로터리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차로를 잇는 소위 '경인로'를 이용하여 서울과 인천을 왕래하였다[18]. 대체로 시간은 편도 한 시간 가량 소요되었는데, 경인

18) 총 거리 27.8㎞로 폭 35m 왕복 6-10차선의 도로이며 전 구간이 46번 국도에 속해있고 서울 구간은 서울특별시도 60호선에 속해 있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제는 20여 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울에서 인천을 쾌속 질주하며 변화한 세상을 실감했고, 언론에서도 고속도로 개통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대서특필하였다.


「1日生活圈」에의첫關門 京仁京水高速道路개통

| 1968.12.21. 매일경제


민족의念願 꿈의 고속도로

| 1968.12.21. 경향신문

하지만 무리한 개통 뒤에는 아픔이 뒤따랐으니 경인고속도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 개통 후 3개월 만에 도로면적의 11%가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로 지은 도로라고 자랑하기에는 몹시 부끄러운 상황이었다. 건설 비리도 터져 나왔다. 1969년 2월에 삼영건설이 아스팔트 포장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건설부와 인천시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의 뇌물을 준 사건이 드러났다(경향신문 1969.2.20). 교통사고도 여러 건 발생했는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개통 첫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제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차량의 성능도 문제였다. 일반시내만 다니던 노후 차량들은 고속도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7만5천6백97대의 전차량 중 시속 1백킬로 이상이 요구되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은 2만2천7백72대 정도였다고 한다(중앙일보 1968.10.10). 여객을 수송할 버스는 모두 1백80대가 필요했는데 보유 차량은 50대 밖에 되지 않아 외국에서 1백에서 1백50대 정도 수입해야하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보유한 차량도 규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교통부에서는 새로운 차량이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속 50㎞ 이상 달린다는 조건 하에 통행을 허가해 주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68.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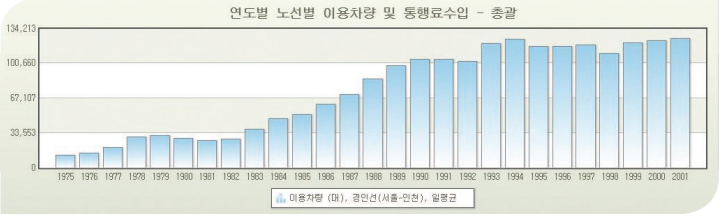


완공 당시의 부평국가산단

1969년부터는 부평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계속 미루어지던 인천항 제2선거까지 준공되면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더욱 커져만 갔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부평국가산단(청천동) 조성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주안국가산단(가좌동, 주안동, 십정동) 조성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인천기계산단 조성(도화동, 가좌동 일원)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인천지방산단(도화동, 가좌동 일원) 조성
1974년 인천항 제2선거 준공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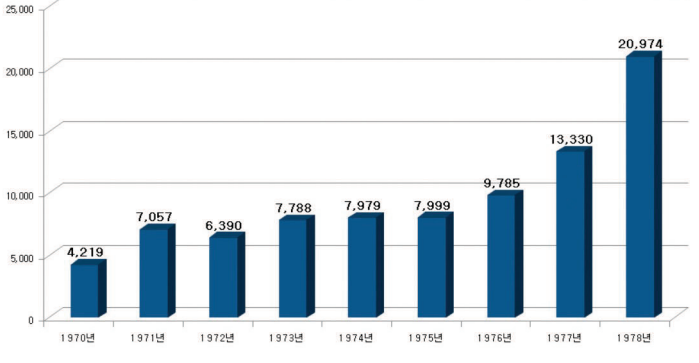
1969년 한 해 203만 대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였고 1970년도에는 이 노선의 일평균 교통량이 7,813대로 건설계획 당시 계획교통량인 6,085대를 이미 초과하였다. 1979년에는 일평균 교통량이 22,075대로 계획교통량의 3배를 넘어서고 있었다. 교통량은 급격히 증가해 2015년 기준 하루 13만여 대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연도별 일평균교통량(KOSIS 국가통계포털)

화물운송량도 급증하여 1970년에 3,264천 톤이던 것이 1973년에는 6,798천 톤, 1979년에는 20,947천 톤으로 6배 이상 증가였다.

(단위 : 천톤)



연도별 경인고속도로 화물운송현황(1979 고속도로 효과조사 보고서)

이러한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해 경인고속도로는 점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습적인 정체와 지체를 반복하게 되었다. 이에 1989년 9월 23일 신월-부평 IC간 11.7㎞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1992년 7월 14일 왕복 8차선 도로를 개통하였고, 1992년 4월 17일 부평-서인천 IC 1.8㎞ 구간의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1993년 9월 4일 왕복 8차로를 재개통하였다. 이어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서인천-인천 IC 간 10.5㎞ 구간도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였다(한국도로공사 40년사).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과 서해안의 관문인 '인천'을 연결하면서 경제와 산업, 생활과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유무형의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서울과 인천을 단시간에 왕래하게 되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경인지역 산업 발전에 따른 물류를 담당하면서 경인공업지역의 발전, 특히 인천이 중추 산업도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큰 소득이었다. 재원과 기술, 장비 모두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일구어낸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앞으로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지도 50여 년이 지나간다. 경제 발전에 사활을 걸었던 1960년대에 태어난 경인고속도로는 2020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개통 초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이 기점이었던 경인고속도로는 1985년 양평동 신월 IC까지 5.5㎞ 구간을 서울시로 이관하였고 2017년에는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구간을 인천으로 이관하여 현재

는 13.44㎞(인천 7.15㎞, 서울0.5㎞, 경기도 5.8㎞)만이 지정되어 있다. 2018년에는 인천시가 일반도로로 전환된 인천기점~서인천 IC구간에 대해 '인천대로'라는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아직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인천항에서 서울 신월, 양평까지 많은 이들은 아직도 '경인고속도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의 시선으로 이 고속도로를 바라봐야 한다. 경인고속도로는 연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고속도로로 단절된 도시, 즉 분단의 상징이기도 했다. 고속도로를 통한 고속성장 속에 갇혀있고 단절되었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 볼 때가 된 것이다. 인천시는 서인천 IC부터 인천항까지 일반화된 경인고속도로의 활용과 변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붙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이 오십이 넘은 경인고속도로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자못 기대가 된다.

[주요 참고문헌]

건설부, 1969, 『건설사진사』.

건설부·한국도로공사, 1973·1976·1979, 『고속도로 효과 조사보고서』.

국가기록원, 2017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Ⅳ 교통편』.

국립민속박물관, 2019, 『메이드 인 인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5, 『현대사 현장기록 Ⅰ -서울 경기 인천편』

유동현, 2015, 『사진 시간을 깨우다-산업화 시절 인천 이야기』,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

한국도로공사, 1979, 『한국도로공사 10년사』.

한국도로공사, 1980, 『고속도로 10년의 자취』.

한국도로공사, 1980, 『땀과 눈물의 대서사시-고속도로건설비화』

한국도로공사, 1980, 『한국고속도로 10년사』.

한국도로공사, 1981, 『한국도로사』.

한국도로공사, 1999, 『한국도로공사 30년사』.

한국도로공사, 2009, 『한국도로공사 40년사』.

한국도로공사, 2019, 『한국도로공사 50년사』.

현대건설, 2017, 『현대건설 70년사』

[언론보도]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KTV 대한뉴스

[인터넷 사이트]

국가기록원,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

국가통계포털(KOSIS)

V

밤섬의 발전소 수도권의 불을 밝히다

율도화력발전소

1 율도화력발전소 설립 이전의 전력사업
2 인천화력발전소
3 경인에너지주식회사
4 결어

최병훈 (인천시립박물관)

V. 밤섬의 발전소 수도권의 불을 밝히다 - 율도화력발전소

원창동에는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한 섬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다. 섬이 밤톨만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밤섬, 율도(栗島)이다. 율도는 조선시대에 한강에서 손돌목을 거쳐 군산으로 가는 서해 항로에 위치하고 있었고,[1] 1866년(고종 3) 이양선이 잠시 머물다 가기도 한 섬이다.[2]

서해를 오가는 해로 상의 중요한 위치 때문이었는지, 1900년(고종 37) 미국인 월터 타운센드(Walter D. Townsend)는 이곳에 폭약창고를 두었다. 이 폭약은 당시 열강의 광산 및 철도 개방 증가에 편승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1905년 이후 후원자였던 미국 공사관이 철수하고, 폭약의 수요가 격감하면서 이익이 줄기 시작했고 타운센드 상회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율도의 폭약창고는 1934년 「동아일보」[3]의 기사에서 "밤섬에 불이 낫다는 보고를 받고 동섬에 화약고가 잇는만치"라고 보도한 바에 따라 1930년대까지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어느 시점에서 폭약창고는 사라지게 되었다.

해방 이후 율도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1960년대 이후 율도는 '낙도(落島)'라고 표현되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

---

1) 이유원, 「임하필기」 권13, 문헌지장편.

2) 「고종실록」 권3, 고종 3년 9월 6일.

3) 「동아일보」, 1934년 12월 8일 3면.

딴 섬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1963년에는 율도에 거주하는 38가구 270명의 주민이 해수의 저온현상으로 특산물인 '주꾸미' 잡이가 부진하자, 육지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구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도하고 있다.[4] 이렇듯 '낙도'로 희미해져가던 율도가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끌기 시작한 것은 화력발전소의 건설 때문이었다.

1. 율도화력발전소 설립 이전의 전력사업

1) 광복 이후의 전력사업

광복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됨에 따라 전력부문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광복 당시 충분하였던 전력설비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지역은 전력자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남한의 전력설비는 198,700㎾로 한반도 전체의 11.5%에 불과하였으며 발전량 또한 4%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남한의 발전설비로는 광복 후 생산 공장 운행을 멈추었던 까닭에 6만㎾에 그쳤던 수요도 충당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평균 5만㎾ 정도를 공급받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군정당국에서는 그동안 가동을 정지하였던 영월·당인리·부산 등 화력발전소를 긴급 보수하여 1946년 12월부터 가동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48년 5월 10일 남한총선거 직후인 14일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단전을 감행하였다. 때문에 당시 남한은 심

4) 「경향신문」, 1963년 4월 26일 6면.

각한 전력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단전 조치 이후 발전설비의 확충에 힘입어 전력사정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국의 발전설비는 발전 40%, 송전 20%, 배전 60%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휴전 이후 활발한 전후 복구사업으로 전력사정이 호전되어 1956년 5월 215,000㎾로 증가하였으나, 1961년까지 신규전원개발이 중단됨으로써 전력사정은 다시 악화되었다.

1961년 전기 3사 통합 당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는 수요전력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발맞추어 제 1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최대수요 465,000㎾를 기준으로 5개년 평균수요 성장률을 12%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목표 년도인 1988년의 최고수요를 842,000㎾로 추정하였다. 이에 우선 가능한 범위인 총 607,000㎾의 공급설비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험 부족과 기술 미숙을 무릎 쓰고 시도된 최초의 장기계획이었던 만큼 수요상정방법을 비롯한 계획자체의 결함이 없지 않은 데다 대내외 제반 여건의 변동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원개발계획이 해마다 확장되어 수차례 걸쳐 수정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긴급 전력대책에 의한 55,000㎾의 신·증설과 8개 계획사업의 추진으로 349,720㎾가 개발되고, 기타 도서(島嶼) 내연 설비 1,205㎾ 등 도합 405,925㎾의 공급설비가 증가되어 노후시설 3,694㎾를 폐기하고도 1966년 말에 설비용량 769,485㎾를 확보하였다. 제 1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계획기간 중인 1964년 4월에 무제한 송전이라는 숙원이 성취되기도 하였다.

제2차 5개년계획(1967~1971)은 기간 중에 수력 125,800㎾, 화력 1,572,500㎾, 내연력 213,060㎾의 확충으로 도합 1,911,360㎾

의 신규전원을 개발하여 발전설비는 1966년 말 799,485㎾에서 5개년 동안에 3.4배인 2,628,045㎾로 증가하여 1971년 말에는 최대수요 1,776,000㎾를 64만㎾의 예비전력을 확보하여 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력자원의 빈약, 석탄 화력의 불리한 여건 등으로 석유 화력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발전설비가 화력이 주가 되고 수력이 그 뒤를 따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71년 말 수력 대 화력의 구성 비율은 13:87로 나타나게 되었다.

2) 인천의 전력사업

인천은 1906년 200㎾ 출력의 발전소를 가동한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추가 발전소의 건립은 없었다. 인천은 처음에는 조선전기로부터 그리고 전기 3사의 통합 이후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전력수요량을 충당해왔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른 급속한 공업화로 경인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제2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인천지역에 부평내연발전소를 비롯하여 인천화력발전소·경인화력발전소 등 3개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 중 인천화력발전소와 경인화력발전소는 율도가 위치하고 있던 원창동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2. 인천화력발전소

1) 인천화력발전소의 설립과정과 제1·2호기

인천화력발전소는 경인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고 당시 기본적인 발전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운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당시 경인지구의 전력공급은 주로 한강계의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수력발전의 발전량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에 화력발전소 설립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발전소 입지는 중량물의 운반과 연료수송 및 냉각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인천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인천은 10m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냉각수의 취수설비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공부에 3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측량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천 앞바다의 율도(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405번길 411)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건설지점을 확정하였다.

이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율도의 대지(垈地)를 매입하여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의 석유회사인 유니온의 지원을 받은 한국화성(韓國化成, 지금의 한화)에서 기습적으로 부지를 사들이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第3精油販路경쟁

韓國化成, 韓電에 맞서 垈地買占

韓國化成(대표=김종희) 계통의 京仁火電이 韓電의 仁川火電 건설지인 인천 북방 앞바다 栗島를 매입한 것은 제3정유의 판로확보책으로 해석되는 등 이를

둘러싸고 油公, 韓國化成, 韓電과의 사이에 미묘한 관계를 빚고 있다.

15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3정유에 해당하는 간이정유시설(1일 5만배럴 처리)과 京仁火電(65만㎾)을 건설할 한국화성이 갑자기 栗島(총 16만3천평)의 절반에 가까운 7만2천여 평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원래 栗島엔 韓電이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다음 주민들로부터는 기공승낙서를 받고 仁川火電(1, 2호기 합 50만㎾)을 건설 중이다.

韓電은 이를 위해 평당 평균 490원의 은행 감정가격 아래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교섭 중 韓國化成측이 박모, 김모씨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평당 1,000원 정도의 높은 값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당초 仁川火電에 필요한 도로, 항만 등 부대시설을 해준다는 조건 아래 유류공급원을 油公에 주기로 하는 油公과 韓電 사이의 유류장기공급계약은 초안에 합의를 보고 계약체결단계에서 파기되었다.

韓國化成이 매입한 땅의 일부를 韓電에 양보할 것인지 또한 栗島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소식통은 韓國化成이 栗島에 자기들의 火電을 짓고 유류저장시설을 갖추어 장차 仁川火電에까지 油類를 공급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5)]

위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본래 율도 땅을 매입하여 유공, 즉 대한석유공사와 유류장기공급계약을 맺으려 하였다. 하지만 한국화성의 방해로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화성과 유류 및 전력 공급 계약을 맺게 되었다.

율도에 건설지점이 확정된 인천화력발전소는 시설용량 25만㎾로

5) 「경향신문」, 1968년 7월 15일 2면.

중유전소식(重油傳燒式) 반옥외형 자연순환식 보일러와 재열식 터빈 및 보조기로 구성되어, 터빈과 발전기는 일본 도시바사(東芝社)에서 제작 공급하고, 보일러는 이시카와지마사(石川島社)로부터 공급받았다. 당초 제1호기는 제2호기로 계획되어 1971년 8월을 준공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1년을 앞당겨 준공함으로써 제1호기로 변경하여 불리게 되었다.

인천화력발전소는 건설계획이 확정되자, 1967년 5월 5일 일본 도시바사로부터 기술 사양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10월 17일에 일본 미쓰이(三井)와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1967년 11월 20일 자본 재도입이 인가되고, 1968년 1월 2일에 사업허가를 받아 건설사무소를 발족시키고 3월 11일부터 부지 정지(整地)공사에 착공하였다. 이어 5월 27일 E/L이 발급되어 외자가 선적되고, 한전 대비공사도 급속도로 진척되었다. 1968년 11월 25일 보일러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이어 1969년 6월 19일에는 인천항을 통해 발전용 터빈이 입항하게 된다.[6] 이 터빈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물이었다.

무거운 仁川火電터빈 揚陸 지지 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화물로 꼽히는 249톤의 발전용 「터빈」이 仁川火力발전소가 세워지고 있는 율도에 접안한지 10여일이 지난 26일 현재 어려운 양륙작업에 부딪혀 현장 도착은 앞으로 2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화력건설사무소에 의하면 길이 92m, 높이 4.5m, 총 4.1m에 총 중량 249톤에 이르는 이 「터빈」 양륙작업은 1백톤짜리 「자키」 8대를 동원, 艀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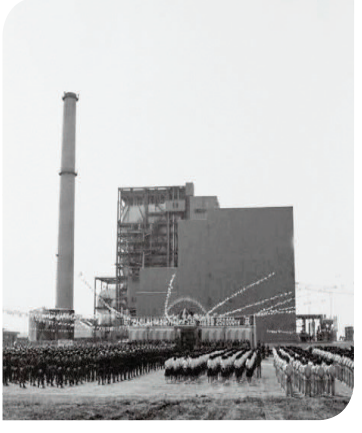
6) 「동아일보」, 1969년 6월 19일, 19면.

에서 겨우 40㎝를 들어 올려놓았다.

이 양륙작업은 「작키」로 들어올린 「터빈」을 박달나무로 깎아 만든 굴레 바퀴 위로 굴러가는 작업인데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鮮光公社측 책임자는 하루 30m 정도의 굼벵이걸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현장 도착은 앞으로도 10여 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터빈」은 일본 「도시바」에서 제작한 출력 25만㎾의 거구로서 지난해 제2한강교에서의 대수송작전을 벌였던 당인리 5호기 「터빈」보다 40톤이나 더 무거운 반동식 및 재열식으로 회전수는 매 분당 3,600회에 연소비율은 매 ㎾/H당 1,900㎉에 이른다.[7]

이어 8월 30일에 보일러 수압시험을 끝내고, 1970년 1월 5일 화입(火入), 3월 2일에 계통에 병입되었다. 3월 31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 1970년 5월 29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사업은 일본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의 상업차관으로 외자 2,344만4천달러와 내자 43억2천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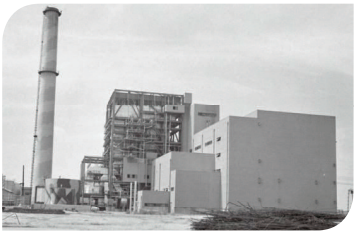
인천화력발전소 준공식





인천화력발전소 준공식 박정희 대통령 시찰

7) 「매일경제」, 1969년 6월 27일 2면.



| 인천화력발전소 (1970년)



| 인천화력발전소 (1978년)

한편 인천화력발전소 2호기는 당초 1호기로 건설 추진되었는데 25만㎾의 동일 사양의 2호기 발전설비가 추가되어 1호기보다 앞서 준공됨에 따라 2호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천화력 1호기 건설 당시부터 장차 후속 사업에 대비하여 제2·3·4호기를 수용할 공용설비가 같은 부지 안에 함께 완성되고 기자재도 대부분 도입되었으나, 계획 조정과정에서 3차 사업으로 이월되었다. 1호기와 마찬가지로 2호기도 일본 미쓰이상사와 1968년 4월 3일 건설계약을 체결했고, 보일러는 일본 I.H.I.사에서 터빈과 발전기는 동지사에서 공급받았다. 6월 8일 사업이 인가되어 8월 28일에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3일 자본 재도입이 인가되어 기자재가 현장에 도착, 공사가 추진되었다. 제2호기 건설에 따른 공용설비는 제1호기 공사가 완료되고, 같은 제어실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1974년 7월 1일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끝내고 12월 20일 준공되어 상업발전을 개시하였다. 이 2호기 건설에는 외자 2,249만9천달러와 내자 47억6,7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2) 제3·4호기의 건설과 인천화력발전소의 현재

급증하는 경인지역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천화력 제1·2호기에 인접하여 유전소식 325,000㎾ 시설용량의 발전기 2기가 증설되었다. 1968년 3월 1호기 착공 시부터 후속 사업에 대비하여 65,000평의 대지가 축조되어 공용설비에 3·4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 것이다. 1974년 4월 29일 프랑스 Alsthom사와 제3·4호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끝내고,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975년 5월 1일 보일러드럼 상양 작업에 착수하여 3시간 만에 설치 완료하였다. 이 보일러 드럼은 프랑스의 Stein Industrie사가 제작 공급한 자연순환계열 강압통풍식으로 중량이 120톤에 이르렀다. 터빈과 발전기는 Alsthom사가 제작한 시설용량 32만5천㎾로, 1978년 5월 31일 제3호기가 설치되고, 4호기는 같은 해 12월 20일에 준공 완료되었다. 이 3·4호기의 건설로 인천화력발전소는 총 115만㎾의 발전설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3·4호기 건설에 따른 공사비는 프랑스 은행단 차관의 외자 8,795만달러와 내자 328억 5,500만원 등 도합 762억 5,700만원이 소요되었다.

인천화력 3·4호기는 1·2호기와 함께 1981년 4월 6일 제 11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LNG사용 발전소로 선정되어 개조공사를 시행하였다. 1983년 12월 26일 당초 인천화력발전소 보일러 공급자인 일본 I.H.I.사에게 개조방안을 검토시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1984년 3월 21일 기술용역계약을 한국전력기술(주)와 체결하고, 1985년 2월 5일 기자재공급계약을 한국중공업(주)가 일본 I.H.I.사와 체결하였다. 개조공사는 LNG연소를 위한 보일러 본체의 개조 및 연소설비설치, LNG연소제어계통 설치, 공급설비, 안정설비 등을 시공하였다. 이 공사는 1986년 1월 착공, 1987년 2월에 완공하였다.

발전용 연료로 가동 시에는 경유, 정상부하 운전시에는 중유 및 천연가스를 전소 및 혼소하도록 되어있다. LNG는 평택인수기지로부터 기화시켜 기체 상태로 약 9.8㎞떨어져 있는 발전소 정문 앞의 Governing Station까지 지하배설관을 통하여 보내고, Governing Station에서 압력조절되어 발전소 내로 공급된 후 다시 감압되어 버너에 공급된다. 발전용 연료공급원의 다원화로 연간 890만 배럴의 연료유를 LNG로 대체하고 있으며 LNG 사용 및 종합폐수설비 운영으로 인천지역의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2001년 4월 2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 설립되면서 인천화력발전소는 인천발전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9년 3·4호기가 폐지되었으며, 1·2호기 또한 2014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들 발전기를 대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2005년 복합1호기(503.5MW)를 준공한 이후 2009년에는 복합2호기(509MW), 2012년 12월에는 복합3호기(450MW)를 준공하였다. 이렇듯 인천발전본부는 고효율의 최신식 복합발전설비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도심지역에 위치한 발전소로써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과 인근지역에 난방열도 공급하고 있다.



인천화력발전소와 직원들 (1992년)



인천화력발전소 제어실 (1992년)

3. 경인에너지주식회사

1) 경인에너지주식회사의 설립과정

경인에너지주식회사는 한미합작투자로 미국 Union Oil사가 3,000만달러, 한국화성계열에서 500만달러를 출자하여 1969년 11월 3일 설립되었으며, 산하 인천정유공장(仁川精油工場)과 화력발전소(火力發電所)가 있다.

경인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 안정과 민간자본을 동원하고자 한 정부 방침에 따라, 1967년 12월 13일자로 동해전력과 호남전력 등 3개 민간화력발전소 중 하나로 건립되었다.

세 民間火電 추진
嶺東·仁川 두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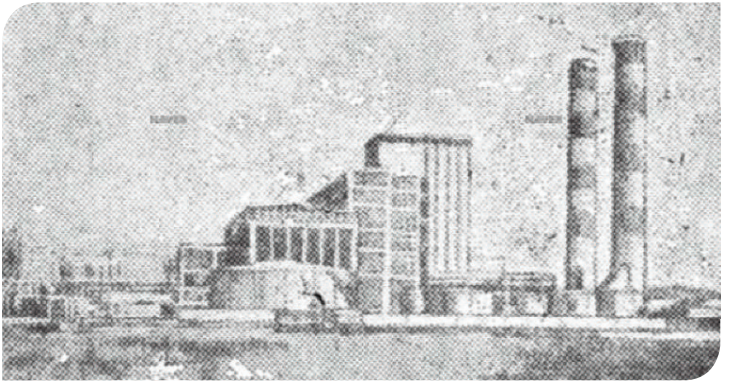
政府는 지금까지 韓電에만 전담시켜왔던 發電所建設에 民間도 참여시킬 方針을 세우고 이를 적극 권장해왔는데 14일 이미 3개의 民間火力發電所建設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14일 商工部當局者는 嶺東地方에 12만5천kW규모 2개와 仁川에 32만5천kW규모의 火力發電所 등 3개의 火電建設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것이 추진됨에 따라 다시 그 밖의 발전소건설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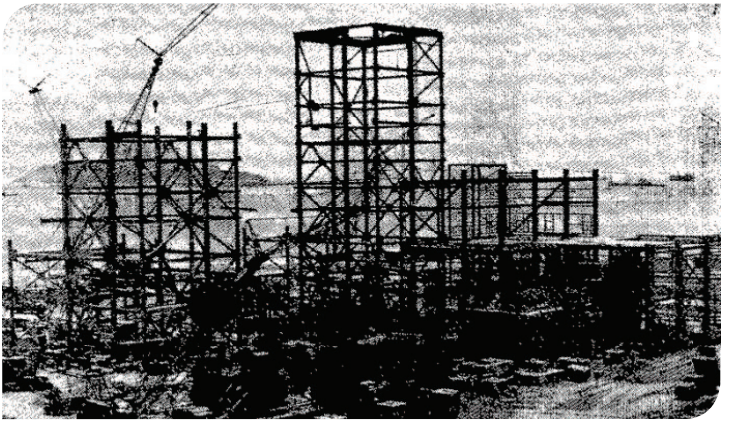
이 當局者는 嶺東의 2개 발전소가 양회업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으나 仁川火力의 建設申請者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8)]

8) 「동아일보」, 1967년 12월 14일 2면.

그러나 민간화력발전소는 동해전력이 1979년 2월, 그리고 호남전력이 1973년 5월에 한국전력에 인수됨에 따라, 그 이후 경인화력발전소만이 국내 유일의 민간 화력발전소로 운영되었다.



경인화력발전소 조감도



경인화력발전소 건설 장면

경인화력발전소는 1968년 3월 28일 전기사업경영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4월 3일 경제기획원의 합작투자 인가를 받고 4월 10일 외국인투자 인가도 받았다. 9월 20일 상공부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

아 1969년 2월 19일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 발전소는 한국전력 인천화력발전소와 인접한 인천시 서구 원창동 율도 동부에 부지 면적 72,000평을 확보하고, 1969년 4월 22일 한전과 율도 공동개발 계획을 체결하고 부지를 조성하였다.(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 314일대) 이 발전소는 유전소 반옥외형 자연순환식 재열식으로 설비용량 324,800㎾를 설치하였다. 1970년 10월 발전소기기 설치공사를 끝내고 1972년 2월 21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보일러는 Babcock-Hitachi사 제작이며, 터빈은 반동·충동재열, 탠덤 콤파운드식으로 일본 히타치(Hitachi) 제품이다. 기술용역은 미국 Flour사가 맡아 사양서의 작성과 설계를 담당하였다.

발전소 건설과 아울러 연료수급대책으로 유조선 전용부두와 6만 BPSP 정유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이 정유공장의 생산품을 국내에 판매하였다.

정유판매 條件변경 안 해주면 發電所 건립 중단
京仁火電서 통고

民間회사인 京仁火電(대표=김종희)이 附帶 정유공장 생산품을 국내 販賣토록 條件변경을 해주지 않으며 發電所 건립을 중단할 뜻을 상공부에 통고해 왔다.
21일 상공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民間발전소로 두 번째 허가된 京仁火電은 日産 5만 「배럴」 규모의 附帶 精油공장에서 생산되는 油類 중 自家 수요를 충당하고 남는 全量을 수출토록한 조건을 변경, 仁川火電을 비롯한 內需用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발전소의 선립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다.
京仁火電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石油公社와 금년 4월에 준공된 湖南정유에 이어 사실상 제3정유공장으로 간주되고 있는 京仁火電에서 국내 販路 확보의

보장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京仁火電은 美「유니온 오일」 회사와 合作, 총 6,500만 달러의 자금으로 65만kW 시설용량의 발전소를 세우도록 되어 있다.[9)]

경인에너지주식회사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1970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아냈고, 1971년에는 방카C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京仁火電」 방카C油 생산

흔들리는 石油市場 … 幕 오른 再分割戰

京仁火電의 精油시설 일부가 준공 돼 오는 4월초부터 우선 벙커C油를 생산, 市販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油公과 호남정유에 兩分되어 일단 안정됐던 국내석유市場의 전반적인 再分割戰이 바야흐로 막을 올리게 됐다.

韓國火藥, 한국베어링, 한국化成(PVC), 골든벨(貿易), 제일火災보험 등으로 구성된 화약재벌(總帥 金鍾喜)의 새로운 主軸기업인 경인火電은 시설용량 32만kW의 發電시설과 日産 6만배럴의 정유시설을 갖춘 350억원(外資 1억4백만 달러)짜리 맘모스 企業. 그만큼 얽힌 애깃거리도 많다. 「京仁」은 1967년 민간 精油공장 설치 許可를 에워싸고 거의 모든 재벌들이 얽혀들었던 泥田鬪狗의 쟁탈전에 참여했다가 호남정유에 敗退당한 뒤 「精油공장의 變形」으로 發想된 회사다.

특히 당초의 認可 조건은 發電시설의 自家 수요를 위한 5만 배럴 규모의 精油시설을 하되 「自家 수요를 넘는 나머지는 全量 수출」토록 못 박아 市販을 禁止

9) 「매일경제」, 1969년 3월 21일 2면.

당했었다.

그러나 일단 「허가」를 받아 쥔 「경인」측의 끈덕진 공작은 작년 초 「국내의 석유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판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가 작년 가을께는 마침내 「제3정유」로 사실상 공인, 시판을 자유화한 뒤에 시설규모까지 6만 배럴(현 호남정유와 같다)로 추가, 증설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가동되기도 전에 한전이 인천앞바다 같은 섬(율도)에 짓고 있는 인천화전에 벙커C유의 독점판매계약까지 이미 맺어 놨다. 합작 상대방인 유니언 오일측으로도 걸프, 칼텍스에 이은 제3주자로 한국 상륙에 성공한 셈이다.[10]

이러한 사정 끝에 경인에너지주식회사는 1972년 4월 17일 화력발전소 및 간이정유공장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발전소에는 외자 4,280만 9천달러와 내자 54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다.



경인화력발전소 준공식

경인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969년 11월 24일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전력수급계약에 의해 전량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 공급되었다.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경인화력발전소 측에 고정

10) 「조선일보」, 1971년 3월 20일 4면.

비에 해당하는 수용원가와 연료비에 해당하는 전력량 원가를 합산한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발전량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선 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천정유공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은 6만 배럴이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으로는 프로판, 부탄, 나프타, 제트유, 저유황경유, 경유, 경질중유, 중유, 벙커C유, 저유황 벙커C유 등이 있었다.

| 1970년대 경인에너지 연간판매고 |

(단위 : 100만원)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256	15,896	23,394	65,328	93,616	109,432	139,364	154,700	215,939



| 경인화력발전소 준공 기념 광고 (『조선일보』 1972년 4월 18일 8면)





| 1972년 경인에너지 전경 | 1976년 경인에너지 전경

2) 1980년대 경인에너지주식회사

1980년, 경제계 전체가 경기침체와 경제개편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1979년 후반 제2차 유류파동이 발생하였고, 1980년 초의 변동환율제(變動換率制) 실시와 수차례에 걸친 원유가 인상과 이란·이라크전의 장기화는 특히 정유업계 전체에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原油수급 惡化
直導入分도 불투명
메이저 10여만 배럴 減量 통고

정부는 美·이란 사태 이후 산유국들이 메이저(국제석유자본)을 통한 원유판매를 기피하고 스포트 마키트(단기현물시장)의 판매를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산유량을 10%이상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연말부터 원유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다.

13일 동력자원부에 의하면 이란 등 산유국들이 메이저를 통한 원유판매량을 줄임에 따라 무웨이트산 원유를 하루 22만 배럴씩 대한석유공사에 공급하고 있는 걸프가 이달부터 50%인 10만 배럴을 감량, 공급하겠다고 통고해왔으며

칼텍스, 유니온 오일 등도 현재 공급하고 있는 湖南정유와 京仁에너지의 소요량 25만 배럴 중 5만 배럴을 감량하는 등 메이저공급분이 하루 약 15만 배럴 정도 감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 직도입선을 사우디·이란 등에서 멕시코·나이지리아·베네수엘라 등 中南美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상시에 대비, 산업체에 대한 석유류 배급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11]

이에 경인에너지주식회사는 원유공급선의 다변화와 중질유(重質油)의 재고누적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원유공급선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베네수엘라의 값싼 원유의 도입에 성공하였다.

油類 도입 多元化 순조

中東 산유국에 편중되어 있는 原油導入先을 다른 지역의 산유국까지 늘려 여러 갈래로 하기 위한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원유도입이 곧 실현될 전망.

4일 관계당국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원유도입교섭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방문중인 京仁에너지교섭단은 7월 1일부터 소급, 하루 5천 배럴씩 3년간 베네수엘라産 원유의 對韓 공급을 베네수엘라측과 합의했다는 것.

경인에너지측은 값이 싼 베네수엘라産 重質油를 국내정유시설로는 정제할 수 없어 스와프방식으로 이를 처리할 방침.[12]

또한 정부의 공해방지대책의 일환인 도심권 공해방지를 위하여 저

11) 「경향신문」, 1979년 12월 13일 2면.
12) 「조선일보」, 1980년 8월 5일 2면.

유황유(低硫黃油)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렇게 수입한 원유는 한전에 공급하였다.

低硫黃油 도입 급증
大氣 오염방지책 힘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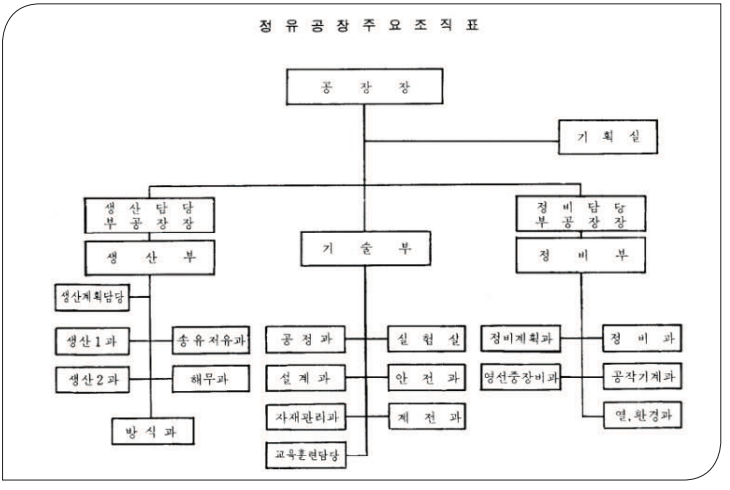
올들어 정유업계의 저유황유 도입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8일 석유협회가 집계하는 상반기 중 국내 저유황유 소비실적은 1천1백만9천 배럴로 지난 한 해 4백59만5천배럴에 비해 139%가 증가, 벙커C油 중 저유황 비중이 전년도 4.9%에서 24.6%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유황유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기오염방지책에 따라 정유업계가 지난해부터 저유황원유를 도입 정제하고 있는데다 저유황벙커C油 수입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별 저유황유 도입실적을 보면 湖南精油의 리비아산 1일 2만 배럴을 비롯 油公이 에콰도르산 1만5천 배럴, 브루네이산 1만 배럴, 말레이시아산 5천 배럴씩을 각각 도입하고 있다.
또한 올상반기 중 벙커C油 도입 물량 5백52만배럴의 90%가 저유황분으로 집계, 국내 유류소비 중 저유황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저유황원유의 평균도입가격은 배럴 당 34달러로 고유황유의 32달러 선에 비해 2달러 정도가 비싸 정유업계에는 수지압박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13]

1981년 7월 민간항공유인 제트 A-1을 생산하여 대한항공에 공급하는 등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시장개척에 주력하여 내실을 도모해야만

13) 「매일경제」, 1982년 9월 8일 7면.

했다.

1983년에는 1980년대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석유자원이 없는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석유에너지 대체를 위한 연구 개발을 계속하여 LNG, LPG 등 다양한 에너지의 공급원을 발굴하였다. 또한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고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 생활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므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질유 제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화력발전소의 연료가 석유에서 LNG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중질유 제품 수요가 격감할 것으로 보았다.



인천정유공장 주요조직표 (1983년)

또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서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 공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저유황연료유의 사용지역 확대 내지 전국적으로 저유황제품 사용을 추구하였다. 한편 당시의 세계원유 시장은 향후 점차적으로 중질화 및 고유황

화될 전망이었으므로, 원유 공급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국내 석유류 제품 간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당시 경인에너지주식회사의 시설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질유분의 경질화 전환시설을 설치하고, 경유·중유의 저유황시설, 즉 탈황시설을 추진하여 종합에너지 산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술개발에 반영되어 석유류 제품의 중질유 분해 장치 설비 투자를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고, 탈황기술에 대한 기초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정유산업의 계열화 및 종합에너지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 외에도 경인에너지주식회사의 각종 업무에 필요한 공정관리 및 에너지 관리의 전산화 처리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상황이었다.

1983년 경인에너지주식회사는 이러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었다. 3월 '유니온 오일'사의 주식 일부를 매입, 소각하여 멸자(滅資)시킴으로써 자본 비율을 50대50으로 환원하고, 1983년 말에는 '유니온 오일'측의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자본을 내국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순수국내자본에 의한 신규투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니온 오일 곧 撤收
京仁에너지 합작社

京仁에너지의 외국 합작선인 美國의 유니온 오일이 연내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인에너지의 우리측 주주인 韓國화약그룹과 美측

투자자인 유니온 오일은 최근 韓國화약측이 5천2백14만 달러의 美 유니온 오일의 합작지분을 인수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14]

이렇듯 경인에너지주식회사는 본격적인 단독 경영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84년 초 기존의 경영방식을 불식시키고 사세확장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1985년 8월에는 공장의 주요설비가 15년이 지나 낙후됨에 따라 공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곧 이어 정제시설의 상압증류시설과 휘발유 생산시설을 개조하는 등, 생산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실행하였다.

1985년부터는 석유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보다 저렴한 개발원유를 도입하고자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능력을 축적하였으며, 1987년에는 미국의 CONOCO사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와림(Warim) 광구에 6%의 지분으로 공동 참여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에콰도르 오리엔테 지역 13광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1988년 8월에는 영국의 석유회사인 BP(British Petroleum)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하루 1,000배럴 생산규모의 윤활유 공장을 완공하였다.

3) 1990년대 경인에너지주식회사

1990년대의 경인에너지주식회사의 사업은 크게 석유정제사업, 전

14) 「조선일보」, 1983년 11월 16일 2면.

력사업, 윤활유사업, 석유화학사업, 유전개발사업, LPG사업 등 6개의 사업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인에너지주식회사가 단순히 정유 및 발전 사업만이 아닌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회사로 탈바꿈했음을 알 수 있다.

석유정제사업은 6만 배럴 규모로 시작한 정유공장이 1992년 3월, 10만 배럴 규모의 신규정제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총 16만 배럴의 정유공장으로 확대되었다.

京仁에너지 油化공장 준공
대형 정유시설 등 4千5百億 들여

京仁에너지는 12일 仁川공장에서 金昇淵 한국화약그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원유정제시설 및 油化제품 생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날 준공된 시설은 하루 10만 배럴 규모의 원유정제시설, 연산(年間生産量) 5만t 규모 벤젠, 연산 26만t 규모의 자일렌 생산시설, 하루 3만 배럴의 경유탈황시설, 휘발유 제조시설, 유황 회수시설 등이다.

지난 1989년 4월부터 총공사비 4천5백억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32개월의 건설공사와 4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이날 완공됐다.[15]

15) 「경향신문」, 1992년 3월 13일 7면.



| 경인에너지 원유정제시설 준공식(『경향신문』 1992년 3월 13일. 7면)



| 경인에너지 광고(『경향신문』 1993년 1월 5일)

또한 날로 증가하는 휘발유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만5천 배럴의 휘발유 정제시설을 신규 신설함으로써 하루 3만1천 배럴 규모의 휘발유 제조시설도 갖추었다. 아울러 환경문제 및 석유제품 수요구조의 경질화 추세에 따라 경질유 탈황시설이 3만 배럴 규모로 가동되었으며,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이 각각 3만 배럴 규모로 1993년 12월 완공되었다.

전력사업은 석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1990년대까지도 가동 중이었던 경인화력발전소는 당시에도 국내 유일의 민

간화력발전소였다. 324,800㎾의 용량인 경인화력발전소는 상업발전 개시 이래 1990년대까지도 한국전력에 전량 공급·판매하고 있었다.

윤활유 사업은 산업발전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고급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이었다. 영국의 BP사로부터 도입한 기술로 생산한 윤활유는 자동차용뿐만 아니라 선박용,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의 윤활유 생산은 중앙집중 제어방식의 채택으로 고효율화와 정밀화를 추구하였다. 윤활유 공장은 하루 1,000배럴의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윤활유 전용 실험실과 제품연구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40여종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석유화학사업은 단순한 사업영역을 벗어나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해 1992년 3월 방향족 제조공장을 건설하였다. 1년에 벤젠 5만톤, 자일렌 26만톤 생산능력을 갖춘 이 공장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

유전개발사업은 석유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와 보다 저렴한 개발 원유 도입을 위해 1985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었다. 1980년대의 인도네시아 와림 광구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알제리, 호주 등에서도 광구 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1993년 알제리 남동부의 리비아 접경지대 이사우에네 광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알제리 油田 개발
京仁에너지

京仁에너지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남부유전지대의 이사우에네 광구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京仁에너지는 이에 앞서 이미 광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스페인 국영석유회사인 렙솔사의 지분 10%(7백만달러)를 인수했다.

이사우에네 광구는 유황성분이 없는 경질원유가 5억 배럴 매장된 틴푸인 광구에서 불과 30㎞밖에 떨어지지 않는데다 지난 1960년대 알제리 국영회사가 시추, 원유 매장을 확인한 바 있다.

오는 1997년까지 계획된 추가 시추가 성공할 경우 1.8억~5억 배럴의 경질원유를 채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에너지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와림 광구, 에콰도르 13광구, 호주 티모르가트 광구 등 3개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해왔다.[16]

LPG사업은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해 없는 연료를 선호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인에너지주식회사는 LPG 수입, 판매 사업을 전개하여 1994년 말 15만톤 규모의 LPG수입기지를 인천공장 내에 건설하였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가스수급 원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4)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경인에너지주식회사의 변화

경인에너지주식회사는 1994년 모회사인 한화그룹의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한화로 합병되면서 한화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편에도 한화에너지의 경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는 곧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6) 「조선일보」, 1991년 11월 24일 7면.

한화 “대대적 구조조정”

한화그룹이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그룹 관계자는 22일 “지난해부터 시작된 개혁운동과 지난 8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金昇淵 그룹회장이 경쟁력 없는 업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9월까지 계열사별로 사업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연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너지가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구조조정에 착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윤활유 사업을 BP사에 넘겨 윤활유 사업팀을 없애고 관련 생산라인을 교체했다.

한화측은 매각합병 등을 통한 한계사업정리와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강화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17]

이러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닥치자 ㈜한화는 결국 한화에너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한화에너지 해외매각 추진

한화그룹은 16일 계열사인 한화에너지를 해외 석유메이저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화그룹은 또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된 매각 부동산 중 한화유통의 잠실부

17) 「동아일보」, 1997년 7월 23일 8면.

지 등도 아시아 지역 호텔 유통업체들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이날 "외국 석유메이저 중의 하나인 S사가 한화에너지에 합작투자하거나 정유 유통을 맡고 있는 한화에너지프라자까지 일괄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와 협상이 거의 성사단계"라면서 "한화에너지는 적자가 심해 합작보다 완전매각 방식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화측은 "그러나 1999년까지 외국지분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자도입법 때문에 일단 합작 후 외자도입법이나 석유사업법이 개정된 뒤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최근 환차손과 적자 누적으로 15일 거래은행에 2천억원의 협조융자를 신청하는 등 그룹 전체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왔다.[18]

이렇듯 한화그룹은 한화에너지를 해외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은 순조롭지 못했다. 미국 텍사코, 프랑스 토탈사, 이란 국영 NIOC사, 대만 석유화학업체 CPD 등이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미국의 AES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한화에너지 美 AES에 발전소 매각

한화에너지의 발전사업이 미국의 대형 발전업체인 AES에 매각된다.

매각금액은 약 2억 달러(약 3,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대형 발전사업이 외국업체에 인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18) 「동아일보」, 1997년 12월 7일 9면.

한화화력발전소는 인천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대 발전능력이 150만㎾이다.

또 내년에 증설공사가 끝나면 180만㎾ 규모로 늘어나며 공장 터만도 6만평에 이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화에너지 발전부문 매각 협상이 원칙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화에너지 발전사업 인수에는 AES사를 비롯해 벨기에 트렉트벨사, 국내 D그룹 등 국내 3~4개 업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다.

AES사는 그러나 국내 발전업에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 넘을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외자도입법 규정 때문에 발전영업권을 양도 받는 형태로 인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한화의 한 계열사가 발전소를 인수하고 여기에 AES사가 자본을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AES는 이 밖에도 한화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에너지는 또 발전사업 외에 석유·에너지사업 부문의 일괄매각을 2~3개 외국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9]

그러나 AES사에 대한 매각협상은 5월 8억7천만 달러라는 매각대금까지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1일 끝내 결렬되었다. 그 배경에는 AES가 한화에 요구한 사항들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 사항은 한전이 요금 지불 등 전력수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할 것과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장기간

19) 「매일경제」, 1998년 4월 28일 11면.

발전소 가동 중지 시 한국이 발전소를 매입하는 조항을 계약서상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한화는 발전부문을 정유부문과 묶어 현대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현대정유에서는 발전소 연료를 벙커C유 사용을 전제로 인수를 추진하였다. 당시 경인화력발전소는 환경부의 「연료사용 규제 고시」에 따라 LNG로 연료를 대체한 상태였다. 현대정유에서는 "초저유황 벙커C유를 사용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서 LNG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한화에너지의 원유정제시설에서 생산되는 벙커C유를 그대로 사용하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

현대, 한화에너지 인수 본계약

빅딜 8개 업종 중 정유부문 빅딜이 가정 먼저 마무리됐다.

현대정유(대표 정몽혁)와 한화에너지(대표 우완식)는 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현대가 한화에너지와 한화에너지프라자를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에 따라 현대는 한화에너지 발행 주식의 38.817%인 946만 3495주와 한화에너지프라자 발행주식의 100%인 400만주를 인수하게 된다.

양사는 본계약 체결 후 120일 이내에 인수작업을 완료하기로 함으로써 늦어도 7월 말 이전에 합병절차가 마무리된다.

현대정유는 유통회사인 한화에너지프라자의 경우 실사가 끝나는 대로 합병하고 상장법인인 한화에너지는 2~3년간 별도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될 예정이다.[21]

---

20) 「경향신문」, 1998년 9월 25일 10면.

21) 「동아일보」, 1999년 4월 3일 8면.

1999년 4월 현대정유는 한화에너지의 정유부문만을 인수하게 되었고, 1999년 9월 1일자로 인천정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05년 12월에 현대에서 다시 SK그룹에 인수되어 2006년 3월에 SK인천정유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8년에는 SK이노베이션에 합병되었다. 현재는 SK인천석유화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의 매각 혹은 합자를 추진하였고, 2000년에 발전부문을 미국의 EL PASO에 50%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사명을 한국종합에너지로 바꾸었으며, 한화그룹으로부터도 계열 분리되어 독자 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포스코가 한화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종합에너지 지분 50%를 2,915억원에 인수한다.

한화그룹은 오늘오후 3시 한국종합에너지 지분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종합에너지 지분은 현재 엘파소가 50%를, 한화석유석유화학(38.25%)와 도이치뱅크(10%), 한화종합화학(1.75%)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엘파소 지분을 제외한 잔여지분 50%가 포스코에 매각되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비 핵심사업은 신속히 매각하고 유동성 확보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사업의 신규투자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석 한화 구조조정본부 상무는 "한화는 KIECO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동안 안정적인 업무성과가 만족스러웠다"며 "그러나 '핵심역량 집중강화 전략'이라는 그룹 방침에 따라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한국종합에너지㈜의 지분 인수로 한국 발전사업부문의 주요 업체도 도약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KIECO 인수와 자사보유 LNG발전소, 오는 7월 완공 예정인 LNG 인수지 등을 활용해 LNG 사업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규모 발전능력과 수도권에 위치해 지리적 우수성을 보유한 KIECO에 30년이상 축적된 가스 및 전략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이 사업분야의 성장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KIECO는 1,800MW의 발전설비를 갖춘 한국최대의 민자발전회사로 인천지역에 액화천연가스 및 디젤을 주 원료로 하는 4기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전기수요 12%와 전국 전기수요의 3%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발전시설로써 지난 2000년 7월 한화그룹이 지분 50%를 미국의 종합에너지회사인 엘파소에 매각한 바 있다.[22)]

2005년에는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종합에너지 지분 50%를 포스코에 매각하면서 포스코파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고, 2013년 2월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결어(結語)

전기는 근대화 이후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었다. 1887년 건청궁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전등은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고, 이 사건은 조선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해방 이후 전기는 산업화의 상징임과 동시에 산업화를 이루는데 가

22) 「한국경제」, 2005년 5월 24일.

장 큰 장애요소였다. 대부분의 발전소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단 이후에는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율도의 두 화력발전소였다. 이 화력발전소는 기공 이전부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도권의 전력을 담당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기대감은 컸다.

화력발전소 준공 이후 수도권의 전력난은 해소되었고, 사람들은 집집마다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밤섬의 발전소가 수도권을, 우리의 삶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이후 발전소는 수도권의 각종 공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였고, 이는 곧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밤섬의 발전소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필로그

송수연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인천 서구문화원은 2003년 인천 서구 지역의 설화를 모은 『천마와 아기장수 외』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3-검단』에 이르기까지 총 18권의 향토지를 발간하였다. 인천 서구의 설화, 문화, 민속신앙, 인물 등을 두루 섭렵한 이 책들은 '향토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천 서구 지역의 '거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담았다. 인천 서구 지역의 옛날과 오늘을 톺아 본 향토지들은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시대의 정신과 향기를 붙잡아 서구의 구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정신을 알리고 문화 구민의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우리 시대는 근대화 이후, 최고 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상전벽해(桑田碧海)의 현실이 매일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인천 서구는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수많은 섬과 바다가 사라지고 그곳을 메운 새 땅에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이들 간척지는 일부 농토가 되기도 했지만, 주로 목재단지나 주물단지, 공업단지, 화력발전소, 정유공장 등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와 그 명운(命運)을 함께 했으니, 인천 서구의 달라진 해안선은 어쩌면 대한민국 산업화와 도시화의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향토지 19권은 '인천 서구의 산업'이라는 주제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의 첫 권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농업·염업 중심의 1차산업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의 인천 서구를 담고자 했다.

1장 「최후의 증인, 공촌천」은 예부터 서구의 중심이었던 공촌천을 중심으로 인천 서구의 어제가 오늘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짚은 총론격의 글이다. 이 글은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 자연과 시간이 언제나 사람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긴 시간 공촌천과 그 주변의 주인은 수없이 바뀌었고, 어제의 공촌천은 오늘의 공촌천과 달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물 밑의 진실을 보여준다.

2장 「서곶 옹기의 고찰」과 3장 「서곶 옹기의 어제와 오늘」은 인천 서구의 특색 산업인 옹기에 관한 글이다. 도예나 옹기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소규모 수공업이 인천 서구에서 어떻게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옹기 산업으로 부각할 수 있었는지를 살핀 이 글들은 인천 서구의 옹기 산업을 제대로 주목한 값진 글들이다. 천주교 신자인 외지인들이 어떻게 현지에 스며들어 인천 서구의 한 시기를 장식한 옹기 산업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꽃피고 저물었는지를 섬세하게 드러냈다.

4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자 고속국도 제120호선인 「경인고속도로」에 관한 글이다. 농업이나 임업 어업 등의 1차산업과 달리 자연에서 얻은 생산물을 가공,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2차산업이다. 경공업 중공업 같은 제조업이나 제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건설업 등이 모두 2차산업에 속한다. 고속도로는 2차산업의 대표적 상징물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인고속도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금은 '경인대로'로 명칭이 바뀐 경인고속도로가 첫 삽을 뜬 날부터 사업이 진행, 완공되기까지의 과정을 각종 사료를 통해 재미있고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5장은 경인고속도로와 더불어 인천의 산업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신호탄이 된 「율도 화력발전소」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은 매립, 간척과 더불어 지금은 사라졌지만 밤톨만 한 섬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밤섬, 율도(栗島)에 세워진 화력발전소의 시작과 끊임없는 변모를 촘촘

하게 재구성했다. 광복과 분단이 가져온 수도권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율도 화력발전소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춘 자기 갱신 끝에 오늘의 경인에너지주식회사에 이르렀다. "율도 화력발전소가 수도권을, 우리의 삶을 밝혔다"는 저자의 말처럼 율도 화력발전소 준공 이후 수도권의 전력난은 해소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과거 없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원상(原象)이니, 과거를 미루어 우리의 오늘을 짐작할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 인천 서구문화원이 인천 서구의 산업 시리즈를 새롭게 내놓은 것 역시 인천 서구의 어제를 통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밝혀보기 위함이다. 이 작은 책자가 인천 서구의 오늘과 내일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인 천 서 구 의 산 업 1

서구산업의 태동과 성장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9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행인 | 정군섭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기 획 | 서덕현 (인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윤혜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前연구원)

집 필 | 정군섭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김영덕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이부웅 (전 단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장)
이성재 (인천도시공사)
송수연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최병훈 (인천시립박물관)
허문태 (인천서구문화원 이사, 시인)

편 집 | 송수연

인 쇄 | 영진종합인쇄 (032-425-2199)

ISBN 979-11-952675-9-0
ISBN 979-11-952675-8-3(세트)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94910
9 791195 267590
ISBN 979-11-952675-9-0
ISBN 979-11-952675-8-3(세트)